금주법구
굳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마음, 붓다, 중생이라고 했으나
이름에 얽매여 분별을 낼 것은 아니다.
-선가귀감-

#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5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목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9월 5일 수요일(주간) 제333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송광사의 문화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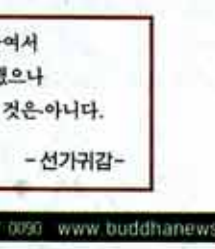
8월 25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송광사 소장 원대 티베트 고문서 규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다른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였지만,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가 불교문화를 지키는 일에 열심"이라는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의 말처럼,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남다른 배경에서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송광사 소장 고문서(전남 유형문화재 30호)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 역시 불교의 유·무형 자산의 의미를 조명해 오고 있는 송광사의 여정에서 나왔다고 보여진다. 송광사(주지 현봉)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국보로 지정된 목조삼존불을 전통양식대로 복원하는가 하면 불교성보보수교습원을 개원, 사찰 문화재 보수 및 보존 분야에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문화불사'에 주력해 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화두였던 원대 고문서는 '전기한 글씨'로 유명한데, 최근까지도 그 내용이 해독되지 않은 채 송광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왔다. 그러나 송광사는 보존에 만족하지 않고, 이 문서가 세계적으로 귀중한 몽골제국에 관한 1차 자료이자 고려불교계와 몽골불교계간의 관계 연구에 귀중한 자료란 점에 의심치 않고 문서의 진가를 밝혀내는 일에 서원을 세운 것이다.

"송광사의 요즘 화두는 불교문화"라고 강조한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은 "3개월마다 열리는 산중임회(山中林會)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깊게 하고 있다"며 "적잖은 사찰 정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스님들이 이러한 문화불사에 공감대를 갖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사중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스님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고문서의 문화재 등급을 높이기 위해 도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청 등에도 관련 자료를 보내 재평가를 의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며



"이 역시 사중 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뚜렷하게 눈에 보이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건축불사와 달리 문화불사는 진척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불사이다. 전통문화가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전통을 올곧게 간직해 오고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곳이 사찰이다. 교구본사로서 문화불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송광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오종욱(취재 1부 기자)

#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

## 종지종통 봉대·승적 수계 제한 해제 등 6개항 합의

### 조계종 종회·선학원 이사회 추인 남아

23년 만에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법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직대 원담)와 (재)선학원 실무위원회(위원장 직대 동진)는 8월 30일 회의를 열고, 6개항의 관계 정상화 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78년 선학원이 '임원은 분원장 중에서 선출 한다'고 정관을 개정하며 파생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해묵은 갈등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3면

양측은 이날 관계 정상화 안을 통해 △선학원 정관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 한다'를 삽입 △선학원 정관 임원선출 조항을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또 조계종은 선학원에 대한 승적, 교육, 수계에 대한 권리 제한을 해제, 법인의 인사, 운영, 관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를 종법에 명시키로 했다.

선학원은 조계종단에 교육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계종 소속 승려가 창건한 신규사찰을 등록받지 않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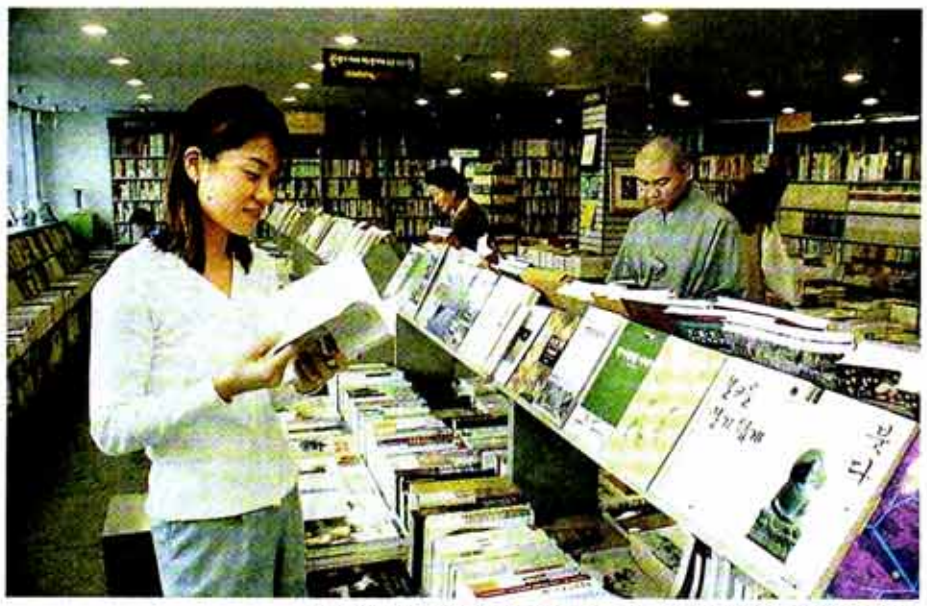
이와 함께 조계종과 선학원은 합의사항이 담겨져 있는 종법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날 채택된 정상화안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날 채택된 관계정상화안은 4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의 결의와 6일 열리는 선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9월 중순경 조계종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96년, 99년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선학원의 정관개정 불이행과 선학원의 조계종 사찰등록과 관련한 조항이 종헌종법에 위배된다는 조계종 종회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관계정상화 안은 조계종이 선학원 승려의 승적 교육 수계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선학원도 조계종과 별도로 가겠다며 금강계단 설치와 승려법 계단법을 제정하는 등의 막다른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어서 향후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정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책으로 가을맞이를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가버리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다가왔다.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책방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결실의 가을에 불서를 가까이 해 살을 보다 풍요롭게 해 보자. 책방 여시아문=고영배 기자

## 조계종 승려 대사면 청원

### 19개 본사주지 등 중진스님 1200명 서명

### 원두·도각 스님 참회문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운동본부(공동대표 진관스님 등 6인)는 8월 28일 징계 승려들의 대사면을 바라는 청원서 및 탄원서를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종단내 비폭력 문화 정착은 보다 현저한 당사자들의 참회와 상호간언, 상호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94, 98년에 징계된 승려들의 회고 및 반성에 대해 종단 차원의 대사면 복권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94년, 98년 당시 징계 받았던 원두스님(전 원로회의 사무처장)과 도각 스님(전 종회 사무처장)은 이날 '사부대중에게 보내는 회고와 반성'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8월 29일 총무원장 정대 스님에게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4일 종회에 19개 교구본사 주지 등 중진스님 1,200명의 서명부를 첨부한 청원서를 각각 전달했다.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새연재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7면

그 누구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역사 또한 큰 방산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조각과도 같이 극히 작은 퍼즐조각의 하나일 뿐이다.

이번 호부터 새롭게 연재되는 '감춰진 불교이야기'에서는 공식불교사에 편입되지 못하고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고고학적으로만 알려진 불교사 속의 미스터리를 발굴하고 공개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남겨진 불교의 장대한 전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또한 불교사 본래의 지향을 복원하고 우리의 협소한 불교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화엄사 등 8개 사찰 방범 방화시스템 설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각 사찰에 설치할 방범·방화시스템을 점검하고, 총무원 인증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8월 18일 화엄사, 실상사 등 8개 시범사찰에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조계종은 8월 29~31일 7개 업체가 설치한 시범사찰에 대한 모의 문화재 도난 훈련 등을 실시했다.

호법부장 종지 스님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지난 13~18일 8개 사찰에 시범 설치한 업체의 방범장치를 점검하고, 특히 도난사건 발생시 각 사찰과 경찰서의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국립 중앙박물관 유물 관리 허점 투성"

#### 감사원 국감자료 제출

국립중앙박물관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유물을 대량 구입하고도, 문화재 지정절차를 밟지 않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8월 2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 감사결과, 박물관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천859점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155억595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단 1점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 지역불교 문화기행

9월 : 부석사·봉정사·용문사

### 신라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화엄종의 근본도량인 부석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어난 목조건축물의 하나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늠름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 번씩 보고갈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여왕이 방문해 더욱 유명해진 봉정사 극락전은 봉일신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잘 이어받은 주심포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입니다. 들아오는 길에는 회전식 불경보관대인 윤장대가 있는 예천 용문사도 함배합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 출 발: 9월22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현대불교신문사

## 장 군 죽 비

◇조계종 문화재 보유 사찰 방범 시스템 강화. 불심은 굳건히 지키고 도둑은 발도 붙일 수 없게 한다. (3면)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2천여 택시에 장기기증 홍보지·모금함 설치. 달리는 불심 생명나눔 메신저로. (5면)

◇하이텔불교동호회 매월 대부도 자현사 '둥지마을'에서 봉사 활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거룩한 만남. (6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지자체 지리산·한라산·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키로. 양복입고 산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방까지 -. (22면)


#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거룩한 삼보전에 일심으로 예경하옵니다.
한국불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글대장경 완간 불사가 마침내 37년의 긴 산고 끝에
결실을 맺게 되어 다음과 같이 회향대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거룩한 불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원로 대덕 스님과 후원회원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 불자님을 모시고 여법하게 회향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장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 대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집행위원장 / 동국역경원장 월 운 합장

법회장소: 장충체육관 특설법회장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법회일시: 불기 2545(2001)년 9월 5일 (음 7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문 의 처: 동국역경원(2260-3893), 삼보불교음악협회(723-0440/2)

- 법회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을 이용하십시오.
- 회향법회 참석은 무료이며, 참석하신 불자님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회향법회가 끝난 후 장사익, 김성녀, 사물놀이 등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봉행위원회 (무순)

중 령/ 혜암(종정), 광융, 서옹, 서암, 석주, 월하
고 문/ 고송, 녹원, 고산, 덕명, 도문, 도원, 도천, 동춘, 법룡, 법전, 법정, 보성, 성수, 송담, 숭산, 원담, 원명, 월주, 이두, 정일, 정천, 종산, 지관, 지홍, 진제, 천운, 청하, 청화, 혜정, 활안, 각해, 덕암, 도용, 화산
자 문 위 원/ 법장, 고담, 근일, 다정, 도영, 도원, 도후, 마근, 무관, 무진장, 법등, 법산, 법성, 법의, 법전, 법조, 법탁, 법현, 벽파, 보선, 석정, 설정, 성오, 성우, 성타, 성파, 신허, 암도, 오현, 월서, 월탄, 인환, 정락, 정련, 정류, 종걸, 종범, 종하, 중원, 지명, 지하, 진제, 진허, 초우, 태연, 통광, 향적, 현각, 현성, 현해, 현호, 혜공, 혜성, 혜청, 홍교, 운덕, 경우, 혜초, 홍파, 광우, 대행, 명성, 묘엄, 진관, 권노갑, 김광삼, 백창기, 서돈각, 선진규, 유주형, 이상현, 전용원, 한화갑, 황영수
봉행위원장/ 정대, 송석구
봉 행 위 원/ 각성, 각원, 경륜, 계성, 계호, 광복, 광조, 대오, 대원, 덕조, 도각, 도공, 도완, 도운, 동욱, 동인, 동초, 명조, 명진, 몽산, 무이, 무착, 백운, 범종, 법보, 법안, 법해, 벽담, 벽봉, 보문, 본각, 상운, 석호, 선각, 선광, 설송, 성관, 성광, 성덕, 성엽, 성오, 성운, 세영, 수완, 수현, 양산, 여연, 영담, 영배, 영조, 우담, 운달, 원담, 원명, 원우, 원타, 원택, 원행, 원혜, 월우, 유광, 의정, 인묵, 일법, 일원, 자승, 자용, 장곡, 장윤, 장적, 장주, 정각, 정념, 정우, 정인, 종림, 종본, 종삼, 종상, 종하, 지광, 지욱, 지운, 지정, 지현, 지형, 지홍, 지흥, 진각, 진만, 진원, 천오, 청화, 탄우, 태공, 태봉, 학담, 학담, 해경, 해주, 현각, 현고, 현묵, 현응, 혜공, 혜성, 혜자, 혜정, 혜총, 홍선, 화범, 효경, 각 강원 강주, 역경원 역경위원, 동국대학교 교무위원, 각 종립학교장
집행위원장/ 월운
집행부위원장/ 일운, 원택, 보광, 김순경, 황영수
집 행 위 원/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동국대학교 정책위원, 각 종단 부장
운영위원장/ 일면
운 영 위 원/

| | | | | |
|---|---|---|---|---|
| 기 획 부 | 부장 | 현고 | 위원 | 법명, 성일, 자현, 혜림, 화해 |
| 홍 보 부 | 부장 | 혜자 | 위원 | 반산, 선우, 송묵, 심진, 초격 |
| 섭 외 부 | 부장 | 계성 | 위원 | 법해, 신천, 일관, 철안, 호산 |
| 조 직 부 | 부장 | 상운 | 위원 | 묵암, 보인, 여산, 화암 |
| 지원봉사부 | 부장 | 선근 | 위원 | 도원, 성의, 준원, 지환, 화원 |
| 의 식 부 | 부장 | 인묵 | 위원 | 광우, 성마, 환풍 |
| 의 전 부 | 부장 | 춘광 | 위원 | 도일, 동산, 법공, 정인 |
| 재 정 부 | 부장 | 학봉 | 위원 | 수경, 연흠, 환봉 |

## 사 설

### 조계종-선학원 합의 '환영'

조계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측 대표자들은 8월 30일 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관계 정상화 안에 따르면 선학원은 정관의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봉대한다'는 구절을 삽입함과 동시에 임원 조항을 '임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인 분원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한다고 한다. 나아가 현행 조계종의 종헌, 종규를 존중하여 향후 조계종 소속 승려가 창건한 신규사찰은 등록을 받지 않고, 조계종단에 교육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계종에서는 종법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선학원에 대해 '시행하고 있었던 교육, 승적, 수계에 대한 권리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이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한 정화운동의 전개와 그로 인한 종단의 혼란과 갈등이 이어졌다. 그것이 선학원의 독자노선을 고집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종교 환경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다종교 사회이며, 더구나 불교가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니다. 사회 윤리적으로 그 도덕성과 적절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는 불교계 역시 지식산업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결집된 불교계의 내적 역량을 사회를 위해 회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는 역사적 필연이다. 양쪽이 대립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미 99년도에 관계 정상화를 합의했으나 조계종 종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실패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미비점까지 보완했다고 하니 종회의 인준을 받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양측의 관계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불교발전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길 고대하여 마지않는다.

### 불교환경연대에 바란다

새로운 범불교 환경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6일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출범한다. 새 단체의 출범을 반긴다. 환경의 훼손과 오염에 의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사람들의 심성이 여전히 물질의 무게에 짓눌려 황폐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바로 불자다운 불자, 불교다운 불교를 일궈내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주요 사업으로 자연생태계 보존과 문화·종교 환경의 수호, 교육·홍보를 통한 환경지킴이의 양성, 연구·출판, 이웃한 단체와의 연대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행환경 침해로부터 사찰을 지켜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백두대간과 주요 산에 위치한 사찰과 사찰 주변의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조사 사업에 주목한다.

사찰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숱한 환경분쟁을 겪어왔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30여 사찰이 분쟁의 와중에 있다. 이러한 때 백두대간과 주요 산에 터잡은 사찰에 대한 생태·문화·종교 환경에 대한 조사는 개발의 광풍으로부터 사찰을 지켜내는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의 수승한 가르침을 요즘의 정서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하는 일도 불교환경연대의 과제이다. 무지막지한 개발을 막는 것이 환경운동의 궁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댐 건설은 막았으나, 강은 또 다른 이유로 죽어가고, 댐 건설을 막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정부, 지역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찮은 미물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불교환경연대는 자연에 대해 지극히 겸손하고, 물신주의의 허상을 부수어가는 환경운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참여와 행동이 없이는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흔쾌히 동참하고 애정어린 비판을 주저하지 않을 때 불교환경운동은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이 어느 누구의 소임만이 아닌, 모든 불자들의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 조계사 '통일가사' 만든다

## 300여벌 제작 11월 승가고시 이수자에 봉정

### 이달중 가사도감 설치

조계사가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가사 통일화 작업에 나선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교육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3급 승가고시 회향에 맞춰 조계사에서 제작한 가사 300여벌을 승가고시를 이수한 스님들에게 봉정한다. 봉정식은 3급 승가고시 마지막 날인 11월1일 직지사에서 열린다.

조계사의 이번 가사불사는 가사를 종단차원에서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색상이나 종류 등 승가 위의와 관계없이 착용해 오던 가사를 연차적으로 통일해 나가겠다는 교육원의 의지를 반영하고, 2~3년마다 해오던 가사불사를 여법하게 봉행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계사는 이를 위해 9월2일 가사불사 입재에 들어갔으며, 이달중으로 조계사 신도회관이나 문화교육관에 가사도감을 설치, 연인원 800여명 이상의 신도들을 동원해 300여벌의 가사를 제작하게 된다. 또한 가사도감에는 가사제작 전문가인 침공(針工)스님을 두고, 침공스님으로 하여금 가사제작을 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가사불사 회향은 봉정 하루 전인 10월31일.

이번 가사불사에서는 7조 가사를 중심으로 9조와 13조 가사를 지을 예정이며, 3급 승가고시를 치른 스님들의 승랍을 고려, 7조 가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조계사와 교육원은 이번 가사불사를 계기로 종단의 가사 통일화 작업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는 구족계 수계자들에게도 조계사에서 가사를 제작, 종단 차원에서 통일된 가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가사에 조계종단을 상징하는 마크와 휘장을 제작해 품계에 맞게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구족계 수계시 가사를 개인이 준비하도록 해 의제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착용해왔다. 지홍스님은 "현재는 마음대로 가사를 착용할 수 있어 의제가 무너진 상태다. 더구나 승복 집에서 제작하다보니 여법하게 제작되지 않고 값도 비싸고 변용이 심해 승복의 위의가 손상됐다"며 "종단의 가사통일화 작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가사불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청하스님 영결·다비식이 8월26일 통도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 청하스님 다비식…1만 대중 애도

8월22일 입적한 청하당 성원 대종사 영결식이 8월 26일 통도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됐다.

5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청혼, 행장소개, 육성법문 청취, 영결사, 법어, 조사, 헌화 및 헌향, 조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조계종 총정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상임부의장 종산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영축산정에 사자후하고 낙동강산에 군학비웅하도다. 계행의 엄정함은 승가의 사표요 교화중생은 사해에 미친다"고 설했다.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은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고 회고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사에서 "종단의 스승으로 법유의 은혜를 주셔야 할 스님께서 사바의 육신을 벗으심은 실로 우리 시대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고 애도했다.

영결식후 사부대중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가운데 스님의 법구는 다비장으로 향했다. 만장과 번을 앞세우고 스님의 영정과 법구가 다비장에 다다르자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말과 함께 다비가 시작되었고 스님의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염불은 더욱 간절하게 이어졌다.

스님의 초재는 28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됐으며 10월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49재가 봉행된다. 055)382-7182 천미희 기자

## "전통사찰 관람료 폐지"

### 8개 불교단체 '전사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전통사찰에 대한 관람료 징수를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개별 사찰과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 중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경불련, 두레생태기행 등 8개 불교단체는 8월 30일 '문화관광부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개정안 중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한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와 불교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불교단체들은 "전사법 개정안 중에는 정치권력에 의한 종단의 예속과 간섭을 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의 부담을 전통사찰과 국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개적이고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단지도자들은 과거 불교재산관리법이 종단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는 등의 비민주적 종단운영의 역사를 인식하고 관련 조항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 불교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현대만평

박 구 원



국보급 관리에…

## 태고종 운산스님 "분규해결 나설터"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운산 스님은 8월 30일 교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종단 분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회의 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산 스님은 "공식 비공식 대화를 계속 하겠다"면서 "인사 문제는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원칙에서 탕평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비상대책회의쪽에서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의 안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수습할 것을 약속하면 타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종단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300~500명의 종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종단 재정의 기초를 다지면서 교구별로 특성을 살려 수익사업을 병행토록 하고 종단 스님들의 정신자세 확립과 수행능력 배가를 위한 '대각성 운동'도 펼쳐가겠다"고 말한 스님은 "백중 이후 전국순회법회를 통해 종단안정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숙 기자

## "안암학사·재정문제 비대위서 해결"

### 중앙승가대 정상화 간담회

중앙승가대는 교수와 동문, 학생회, 조계종 종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월30일 보타사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하(조계종 종회의장) 종석(중앙승가대 총장직대) 원행(총동문회장) 일음(총학생회장) 스님 등 학교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 문제와 안암학사 처리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동문회와 학생회로 구성된 학교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총동문회 측은 "고시원 임대업체인 범진유통이 고시원 개조를 위해 25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시설투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계약조건이 명확치 않아 학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총학생회는 28일 김포학사 본관 4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범스님 총장 복귀 △재학생, 동문회, 교직자와 협의없이 독단으로 체결한 안암학사 임대계약 무효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명우 기자

## 포교사단 160명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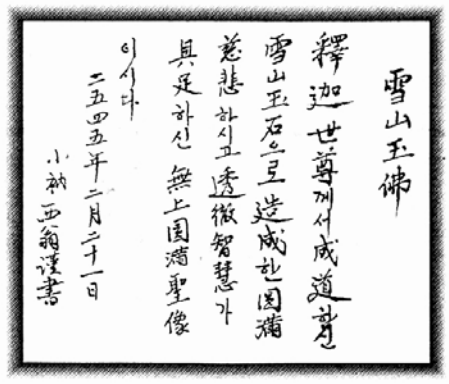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8월 25~26일 이틀간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2001 사찰안내분야 포교사연수'를 실시했다.

사찰안내팀과 경찰, 교도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포교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지역 및 팀 단위의 사찰중심 지역포교 활성화 △자체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종단차원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 강구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한명우 기자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圖像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林西翁謹書

■ 추천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 목어

### 패러디



'패러디'가 뜨고 있다. 가수 서태지와 한 음치가 수 사이에는 '패러디 노래'로 소송까지 가고, 유명인이나 영화장면을 패러디한 광고며, 인터넷상에는 남의 주장이나 글을 비비꼬는 패러디 논설도 등장했다. 사람들은 이를 '패러디 증후군'이라 하는데….

패러디(parody)에는 역설(paradox)이라는 뜻이 포함되며 예술작품을 풍자와 익살로 뒤집어 보는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원작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진실을 내 보여주는 예술의 한 장르다.

그리스 때도 있었다지만 장르로서는 17세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가 중세기사도 전설을 통쾌하게 패러디 한 것이라지 않는가. 서양 17세기 전후라면 중세부터의 권위와 권력들이 아직 거만함에 젖어 있었고 그들의 허위에 찬 권위가 마침 그 수상쩍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여서 어쩌면 '패러디'는 당시의 사회적 요구였을지 모른다. '위선과 거짓의 권위 있는 곳에 패러디 있다'인 것이다.

17세기 이후 '패러디'는 한번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린 적이 없다. 요즘 잘 나가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치즈 내 것 만들기' 등 여러 권의 패러디 물이 나와 함께 종이 값을 올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놀부전' '춘향전' 등의 패러디가 등장, 이제 이 장르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왜 오늘에 새삼 '패러디 증후군'일까.

원래 패러디는 남의 작품을 비틀고 희화화하면서도 원작에서 맛 볼 수 없는 블랙 유머로 배를 잡고 웃게 하는 가운데 원작 이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감동과 비애를 맛보게 해주는 품위와 철학을 지닌다.

하지만 요즘 횡행하는 패러디에는 막가파식이 더러 보인다. '패러디 증후군'이야 비틀린 이 시대의 당연한 증상이겠으나 품위 잃은 것까지 '패러디'라 이름 붙여 줄 수야 없지 않을까.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23년 대립 청산 '한뿌리' 공감

조계종-선학원 관계정상화 '의미'

## 분종 위기서 한발씩 양보 '합의' 도출
## 선거권 · 종무직 취임권 등 현안 남아

23년에 걸친 해묵은 대립으로 급기야 분종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선학원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간 조계종과 선학원의 대립은 이념 갈등보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계종이 잦은 분규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부 새로 창건된 사찰과 일부 비조계종 사찰이 재산보호 차원에서 선학원에 등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78년 선학원이 정관 제6조 임원의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고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비조계종 스님도 분원장이 될 수 있고, 탈 조계종화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확대됐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선학원이 법률적으로 종단의 통제 아래 있어줄 것을 요구했고, 선학원은 변화된 법적 위상을 들어 조계종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서 대립이 계속된 것이다.

조계종은 95년 4월부터 중앙종회 선학원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선학원 정관에 대한불교 조계종' 명칭 사용,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봉대' 내용 삽입,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등의 조항을 선학원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학원은 다수의 분원장들이 정관개정에 반대의사를 보여 종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선학원이 조계종의 뿌리이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인 인사, 운영, 관리권 등을 침해하려 한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95년 1월 첫 만남이후 두 차례에 걸쳐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합의문중 '조계종 소속 승려의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이 종헌 9조3항에 규정된 상설사암 등록 의무에 저촉된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번번히 협상이 결렬되면서 심지어 분종위기까지 치달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지난 8월 30일 만나 강경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관계정상화 안을 마련한 것은 어느 쪽도 선학원 분종에 따른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계종의 경우 선학원이 떨어져 나갈 경우 조계종의 모체이며 비구승단으로서의 출발거점을 잃게 된다는 점과 석주, 진제, 정일, 범행, 성수 스님 등 원로 스님을 비롯, 500여개 사찰과 1천명이 넘는 소속 승려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선학원도 재산보호라는 현실 문제로 조계종단과 결별하는 것은 선 수행에 바탕한 청정성과 불교종단의 역사성을 인정받아 온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30일 양측 실무자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분종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조계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 공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법인대책특위 간사인 원담 스님은 "이번에 타결이 안 되면 선학원과 화합이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종회가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고 했고, 선학원 실무위원회 간사인 동진 스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계종과 선학원이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양측의 위원장이 동반 사퇴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간신히 마련한 이번 정상화 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4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임시종회와 6일 열리는 선학원 이사회가 추인해 주어야 한다.

현재 조계종의 경우 별다른 걸림돌이 없으며 추인이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지만 관계 정상화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선학원은 다수의 분원장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만큼, 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계종과 선학원이 관계 정상화를 회복하더라도 선거권, 피선거권, 종무직 임명의 권리 제한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도 좁혀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난제가 놓여있지만 이번 관계 정상화 안이 한발씩 서로 양보하여 한 뿌리를 확인한 만큼 자신들의 입장에 얽매여 또 다시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과 선학원 대책위 스님들이 8월 30일 실무회의를 갖고 관계정상화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조계종-선학원 관련일지**

△1978. 2. 23 임원의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변경
△88. 3. 28 종회-선학원대책특위 구성
△95. 1. 24 조계종 선학원 첫모임-종단요구안 전달(5개항)
△95. 2. 22 선학원-'정관변경 불가' 통보
△95. 7 선학원 도제 교육기회 제한
△95. 9. 28 선학원 임원 징계 결의
△95. 10. 5 선학원이사회-정관개정 불가 재천명
△95. 11. 8 선학원 독자노선표방 결의
△96. 3. 27 중앙종회-선학원 이사 징계 결의
△96. 8. 27 종단-선학원 공동발표문
△97. 7. 9 제1차 조계종-선학원 실무협의회
△97. 11. 18 총무원-선학원 규제지침 교구본사, 선원, 강원, 교육원에 통보
△98. 3. 14 선학원 분원장 이사회 퇴진 요구
△98. 4. 9 선학원 종헌개정 규제해제 요구
△99. 3. 11조계종 선학원 '다시 대화'
△99. 6. 22 조계종 선학원 합의안 발표
△99. 9. 22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종회부결
△00. 1. 12 선학원이사회 단일계단설치 결의
△00. 10. 30 조계종 선학원 대화 재개
△00. 3.5 선학원 정상화' 초안 수립
△01. 6. 25 선학원 승려법 계단법 제정

# 사면 논의 '가속' … 대화합 기대

조계종 사면운동본부 '청원' 이후

## 분규당사자들 참회문 속속 발표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운동본부(공동대표 진관스님 등 6인)가 8월 28일 징계 승려들의 대사면을 바라는 청원서 및 탄원서를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제출키로 한 것은 조계종의 화합과 사면을 바라는 종도들의 염원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탄원서 및 청원서와 함께 전달될 서명부에는 19개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한 법랍 30년 이상의 중진스님 1,200여명이 피징계자의 사면복권에 동의하는 뜻을 담고 있어, 지난 8월 21일 통도사 방장으로 재 추천된 월하스님의 98년 종단사태와 관련한 참회문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조계종 사면 논의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이날 94년, 98년 종단분규 당시 징계 받았던 원두스님(전 원로회의 사무처장)과 도각스님(전 종회 사무처장)이 피징계자들의 뜻을 모아 '사부대중에게 보내는 회고와 반성'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도 분규 당사자들의 사전 참회를 요구해 온 사면 반대 입장 스님들의 마음을 다소 누그러뜨릴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비록 종단 제도권이 아닌 불교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스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면복권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이번 사면운동본부의 사면 추진은 교계에 공론화 했다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면운동본부의 청원과 함께 분규당사자들이 먼저 발로 참회하는 자세를 보일때 대사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인사와 실상사간의 불미스런 사건을 계기로 관행화된 종단 내 폭력문화를 참회하고 평화적인 대중공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참회정진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면복권운동본부의 이번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종단차원 '사찰 지키기' 나섰다

전국사찰 방범시스템 추진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도난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찰소장 문화재의 도난과 훼손 방지를 위해 '방범 · 방화업무에 관한 령'을 지난 7월 제정한 데 이어 산하 전국 2000여 사찰에 방범 시스템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29~31일 방범 · 방화 시스템 점검을 위한 모의 도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도난훈련은 도난 방지 시스템의 시범 가동 및 운영을 통해 사격에 맞는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 기준을 점검하고, 도난 사건 발생시 사찰 및 경찰, 방범업체 등의 유기적인 대응방안 마련,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를 통해 구축한 비상연락망 점검을 위해서다.

방범 시스템 설치는 올 7월 10일 제정, 공포한 '방범 · 방화업무에 관한 령'에 따른 것이다.

'방범 · 방화업무에 관한 령'에 따르면 조계종 내 모든 사찰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방범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령'은 전국 사찰을 사격에 따라 가군~라군으로 나눠, 가군은 4개월 이내에(올 11월까지), 나 · 다군은 6개월 이내(내년 1월), 라군은 9개월 이내(내년 4월)에 열 감지기와 자석 감지기 등 기본적인 방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가군과 나군은 이 영이 공포된 날로부터 각각 1년과 2년 이내에 화상 감시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령'은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관람료 사찰을 가군(74개 사찰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280개 사찰은 나군에 해당된다. 전통사찰 및 공사찰은 다군(450~500개), 나머지 1,500여 개 사찰이 라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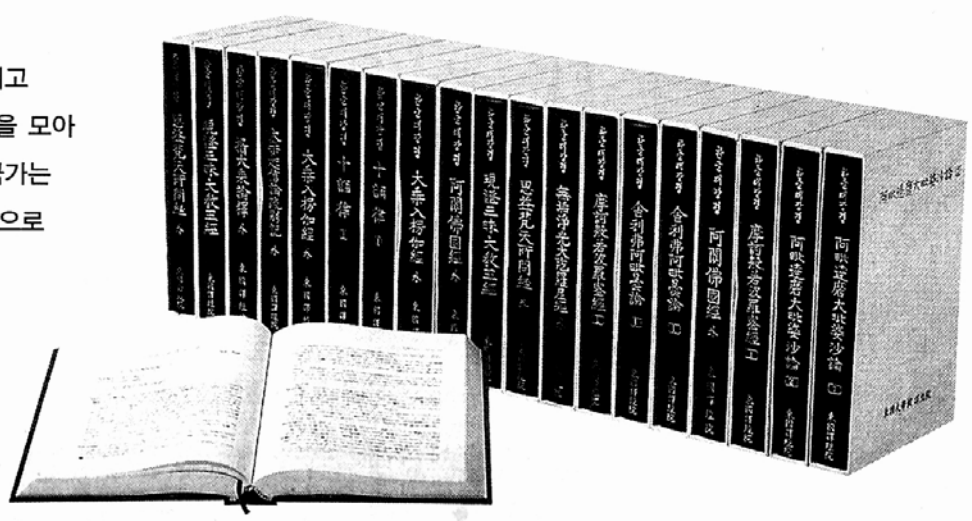
호법부장 종지 스님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범시스템은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해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보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법보 한글대장경 완간

고려대장경, 700여 년 만에 한문의 틀을 벗고 한글로 탄생!!!
장장 37년 만에 이뤄낸 대작불사 한글대장경, 318권으로 완간!!!

한글대장경의 완성은
고려시대, 외적의 침략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고
겨레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민족의 염원을 모아
팔만대장경을 조성한 이래, 그 위대성에 버금가는
업적으로 민족정신의 총화이며, 우리의 유산으로
길이 보존될 현대사의 중요한 공적입니다.
이에 모든 공덕을 이천만 불자와
겨레붙이에게 회향하는 성대한 회향법회를
마련함으로 수희공덕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한글대장경 1질(권당 15,000원) :
정가 4,755,000원
동 국 역 경 원
구입문의 : ☎ 02)2272-0252, 2275-4391
FAX 02)2278-4069
결제방법 : 신용카드 및 분할납부로 결재 하실 수 있어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 소장하신 경전과 분실하신 경전을 낱권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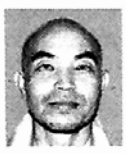
### 해인사서 영가천도 법문

성수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은 10일 오전 11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1029일 영가천도' 법문을 한다.



### 강화서 생명나눔 워크숍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8월 24~25일 강화 코레스코에서 '생명나눔 라이프쉐어 워크숍'을 실시했다.



### 통도사서 '수행' 주제법문

혜인 제주 약천사 회주는 6일 오후 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수행의 향기'를 주제로 법문한다.



### 봉축열차 운행공로 표창

성운 풍경소리 대표이사는 8월 27일 봉축열차 운행 공을 인정받아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 전북불교대 '법보단경' 강의

지묵 법련사 한주 스님은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전북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법보단경〉을 강의한다.

## 바른 행동 36년 '참교육'

### 정년퇴임 동대부고 김상숙 교장



"참교육은 가르치는 이들의 참된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교단에 선지 36년이 지났습니다."

종립 동대부고 김상숙 교장이 8월25일 36년간의 교편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1966년 해동고부터 명성여고를 거쳐 동대부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교장은 특히 2년전 동대부고 교장으로 부임해서는 종립학교답게 아침에 '선정의 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온 신경을 쏟아온 불자.

또 교내에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생태조경 사업을 하고, 빠듯한 살림을 쪼개 학생들이 여름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하는 등 헌신적으로 일해온 김교장은 퇴임후에도 한문이나 예절 등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을 만들어 교육불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발명도 심성 정화하는 수행"

### 특허 5개 낸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5개의 특허를 낸 밀운 스님이 특허등록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신도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스님들의 당연한 불사이니까요."

최근까지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특허청에 5개의 특허를 낸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회주 밀운스님은 "중생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스님들의 본분사"라며, "등록한 특허들이 필요한 곳에서 상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운스님이 현재까지 등록한 국내 특허는 95년 11월 의장등록(제 172220호)한 '하수구용 배수전'을 시작으로 96년 3월 '하수구(가정)용 배수전'(유사의장등록), 96년 10월 '칫솔'(의장등록 제 18756호), 올해 1월 '촛대의 받침반 구조'(실용신안등록 제 0221201호와 6월 '연등의 프레임 결합구'(실용신안등록 제 0237079호) 등.

이중 불자들의 관심을 끄는 고안은 '촛대의 받침반 구조'. 두께에 따라 세가지 종류의 초를 꽂을 수 있는 이 촛대는 받침반에 물을 부어 촛농이 떨어지더라도 달라붙지 않아 닦아내기에 편하고, 특히 촛대가 가열돼 화제가 발생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 법당에는 긴요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상용화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연등의 프레임 결합구'는 기존의 철사로 만든 연등 골조가 잘 결합되지 않고 빠지는 단점을 플라스틱 재질로 보완한 것. 기존의 철사 구조물이 여덟 군데를 끼우는 반면 이 조립식 플라스틱 연등은 네 군데만을 보턴식으로 끼우도록 해 빠지지 않고 가벼워 보관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가정 및 도로용 '하수구용 배수전'은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를 방지하고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것은 물론 물도 잘 빠져 가정의 하수구와 도시의 맨홀에 설치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95년도에 의장등록한 '칫솔'은 1cm의 간격을 두고 두 군데의 솔을 길게 늘어뜨려 구석구석의 이빨을 잘 닦아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미 90년에 일본 영국 태국 특허청에도 등록된 바 있어 스님의 번뜩이는 생활속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신발 바닥에서 흙을 털다가 잘 닦이는 칫솔을 고안했다"는 밀운 스님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발명은 심성을 정화해 나가는 수행과 다름이 없다"며 생활속의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봉선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도봉산 관통로 강행땐 우수한 생태자원 잃어"

### 우이령 보존회 운영위장 조상희 씨



환경부가 97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총공사비 3조3천억원) 중 북한산 국립공원지역인 도봉산 구역을 에코브릿지 공법(터널 이외 구간을 터널식 도로로 건설하고 그 위에 풀과 나무를 심는 공법)을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지난 7월 11일 통과시키자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우이령보존회 등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다.

우이령보존회 조상희(51·언론인) 운영위원장은 "98년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산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우회노선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도로공사는 면밀한 검토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며 "9월부터 30여개 피해사찰 스님들을 비롯한 유명인사 213인 선언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도봉산 서북쪽 식생과 경관은 북한산에서 가장 우수하다"며 "특히 서울특별시 관리 야생동식물인 끈끈이주걱과 산개나리 분포지여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 녹지와 보존가치가 뛰어난 국립공원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7천억원이 더 든다는 정확한 비용실사도 나오지 않았으며, 7천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송추에서 양주군 주내면을 지나 의정부시 민락동을 거친 후 덕송IC로 빠지는 우회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장애인 직접 찾아가 치료"

###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장 지현 스님



"영주지역 불교계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변화하는 첫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8월 28일 경북 영주지역에서 불교계 사상 첫 복지관을 개관한 지현스님(청량사 주지). 스님은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영주와 봉화지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역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복지관 운영 방침을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복지관의 역할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복지관을 찾아 온 장애인들에게 대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다른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돕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스님은 영주시 등록 장애인 수가 3천명을 웃돌고 있어 3백여 평의 복지관 시설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

"장애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복지 불사의 본 뜻을 살릴 수 있고, 가족과 이웃에게 불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포교 불사도 성취한 게 아니냐"는 스님은 "복지관을 수탁한 영주봉화사암연합회 역시 '복지 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있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시설에서 좋은 복지가 나올 수 있다"며, 복지관의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충원과 영주시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부산불교 최고지도자 워크숍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는 8월 25~2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부산교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신도회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강선태 회장은 "폭넓은 토론과 신행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부산불교계의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1회 일연국사 사상 학술대회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스님을 기리는 '일연국사 불교사상학술 대회'가 8월 24일 경북 군위군 인각사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일연국사의 생애와 불교사상을 거시적으로 해석하고, 민족 자주를 바탕에 두고 집필된 삼국유사의 역사인식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동화사 신도회장에 장영관 씨 선출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8월 28일 총회를 열고 신도회장에 장영관씨(동명상공업사 대표·사진 맨 왼쪽)를 선출했다.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장영관 회장은 "동화사를 중심으로 대구지역을 불심깊은 고장으로 만들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동산불교대학 2001학년도 후기 졸업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8월 26일 동산교육회관에서 '2001학년도 하반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63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이번 졸업식은 졸업장 및 공로상 수여, 무진장 스님을 계사로 한 수계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무진장 스님은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여 포교의 역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설정스님 초청 "선가귀감" 특강

수덕사 발심회에서는 설정스님을 모시고 선가귀감을 보고자 합니다. 선원에서, 때로는 소임지에서 바쁜 나날을 지내며 정진의 마음을 잡고 지내다보면 옛 선사스님들의 어록을 접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록을 보아도 글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발심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설정스님을 모시고 선 어록을 보아온 바 이제 좋은 인연이 익어져 "선가귀감"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방의 뜻 있는 모든 스님들에게도 이 귀한 인연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수희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강의동참안내**

◎ 일 시 : 불기 2545(2001)년 9월 9일 ~ 13일
(9일 오후 6시에 입방접수 - 강의는 10일 부터 합니다)
◎ 장 소 : 덕숭총림 수덕사 왕하정루
◎ 수강료 : 3만원, 교재비포함
◎ 준비물 : 가사, 필기도구 및 개인용품
◎ 문의처 : 041)634-6777, 632-8917(용봉사)

■ 주 관 : 수덕사 발심회 ■ 후 원: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 복 :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 삼 :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 방 :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福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판매가격표 | | | |
|---|---|---|---|
| 스타일 | | 구분 | 판매가 |
| 춘추복 | 저고리 바지 조끼 | 남·여 | 150,000 |
| | 두루막 | 남·여 | 130,000 |
| 하복 | 저고리 바지 조끼 | 남·여 | 150,000 |
| | 두루막 | 남·여 | 130,000 |
| 장 삼 | | 조계종 | 200,000 |
| | | 태고종 | 200,000 |
| 손가방 | | 大 | 28,000 |
| | | 小 | 23,000 |
| 바 랑 | | | 30,000 |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생산함
※맞춤 전문으로 생산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용 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 운불련 '생명나눔' 거리포교



◇운불련 부산지회 회원의 택시를 탄 한 승객이 생명나눔에 관한 리플렛을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 2천여 택시에 장기기증 홍보판 부착

## 캠페인 호응늘어…모금함도 설치키로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 이하 운불련)가 생명의 불씨를 나누는 자비행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에 적극 나섰다.

운불련은 8월 20일 회원들의 차량에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 홍보판 부착을 완료한 데 이어, 각 지회 회장단의 협조로 모금함도 설치하는 등 생명나눔 캠페인에 본격 돌입했다.

2천여 운전자 불자들이 몰고 있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부착된 홍보판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장아함경〉의 부처님 말씀과 장기기증의 공덕과 그 방법을 소개한 생명나눔실천회의 리플렛을 꽂을 수 있는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불련은 이미 20만 장의 생명나눔 리플렛을 각 지회에 배포, 차내에 비치했다.

생명나눔실천회에 따르면 최근 장기기증 문의자 중에는 택시에 설치된 홍보판을 보고 장기기증 캠페인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을 정도로, 운불련의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상임이사는 "장기기증 서약은,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에서 장기기증을 홍보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운불련은 장기기증 후원금 모금함도 차내에 설치해 모금에 들어갔고, 신규 회원에게 모금함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

모금한 돈은 생명나눔실천회를 통해 막대한 치료비로 투병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생활고까지 떠안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운불련의 20여 지회는 그동안 평균 1천만 원 정도를 매년 모금해 소찍새마을,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 양로원 등을 후원해 오고 있어, 모금함 설치는 장기기증 후원금 조성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신심을 가지고 캠페인에 임할 것"이라는 운불련 김주본 회장은 "지난 4월 생명나눔 실천회와 업무 협정을 맺은 당일날 120여 회원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할 만큼 운불련 불자들의 호응이 높다"며 "더욱 많은 운전 불자들이 생명의 불씨를 지키는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우리 모임에선

### 경불회 서경임원 모임

전국경찰불교회는 8월 31일 오후 7시 30분 경찰청 법당에서 서울 경기지역 임원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함께 한 20여 경찰 불자들은 10월 21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창립법회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지역 경불회 활성안을 논의했다.

### 공불련 창립 1주년 준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8월 31일 오후 7시 대각사에서 서울지역 임원 · 지도자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서 임원들은 10월 6일 해인사에서 개최될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 대비해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임원들은 대의원과 운영위원회 선출 및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 천불동 웹진출 기념법회

천리안불교동호회는 15~16일 양일간 천안 성불사에서 '천불동 웹(Web) 진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PC통신 체제로 운영됐던 천불동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개편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천불동 홈페이지 주소는 'buddhasite.net'.

### 철불협 대전지회 창립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무사고기원 철도불자연합법회 및 철도청 대전청사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구로승무사무소불교법우회와 15개 단체에서 300~400명의 회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 석불선양회 영주순례

한국석불선양회는 9일 영주지역 불적을 순례하는 17차 답사를 실시한다. 오전 7시 동대문 이스턴 호텔 앞에서 출발하는 이번 답사에서 경북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을 친견, 육법공양을 올리고, 부석사도 순례한다.

### '임업불교' 12호 펴내

임업연구원 불교연구회는 〈임업불교〉 제1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오온개공은 진리이며 가장 큰 화두', '불교는 인간다운 사람부터 길러내야 한다' 등을 비롯해 5편의 수필과 논평이 게재됐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청도군청 공무원불자회 창립

### 초대회장 채장희씨



경북 청도군에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모임이 발족했다. 군청은 물론 읍 ·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50여 공무원들이 지역 불교계의 중심축 역할을 서원하며, 8월 29일 오후 7시 군민회관에서 청도군청 불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청도지역은 비구니 최대 강원으로 유명한 운문사를 비롯 사찰들이 많지만, 지역 주민들의 연령층이 비교적 높아 활발한 신행 활동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 채장희, 박동규 씨 등 군청에서 근무하는 6명의 공무원들이 2개월 남짓 공무원 불자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성과를 일궈냈다.

△회장단 △회칙 △활동방향 등이 논의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청도군청 불자회 회원들은 채장희(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사진) 씨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기초교육 등의 신행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 회장은 "2개월 정도 회원들의 불교 소양을 키우고, 이후 청도사암연합회와 연계해 주민에게 적극 다가가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는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자회는 기획, 포교, 교육, 행사지원, 사회복지 등의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채 회장은 "이들 부서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동적인 불심을 자극하는 것 외에도 조계종 포교원에 지도법사 추천도 의뢰, 회원 개개인의 심신을 다지는 불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청 불자회는 2개월 간의 회원 교육 과정이 끝나는 11월 경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광주전남 불적답사 모임 '아제아제' 창립1돌

# 불교유산 돌아보며 신심 쌓기

### 사경 · 탑돌이등 프로그램 인기

탑돌이며 사경 그리고 마음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답사가 광주전남지역 청년불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해 9월 16일 창립된 불교문화답사모임 아제아제(회장 정재훈)가 대학을 갓 졸업한 불자와 사찰 청년회 소속 불자의 신심을 다지는 신행단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창립 1주년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열 한 차례의 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10명 남짓했던 참가자들은 이제 40여 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매 답사 때마다 원각사, 연화사, 문빈정사, 금륜회 포교당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사찰 청년회에서 13~15명의 청년불자들이 참석, 아제아제의 답사를 청년회 신행프로그램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아제아제의 답사를 기획하고 있는 이해무 씨는 "불교유적이나 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각자의 느낌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8월 25일 실시된 경남 함양 벽송사와 산내 암자인 서암 답사의 경우, 답사지의 역사적 지리적 특징을 고려, '반야심경 1자1배 사경법회', '마음나누기' 등이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프로그램은 30여 년 간 간 사경에 매진한 원응 스님이 서암에 있다는 점과, 벽송사 인근 칠선계곡이 수행처로 각광을 받았다는 점 등에 착안, 마련됐다.

아제아제는 16일 전남 영암 월출산 상견성암과 마애여래좌상을 방문하는 12차 답사를 준비하고 있다. (062)225-8825

오종욱 기자



◇7월28일 경주 감은사지를 찾은 아제아제 답사단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 게시판

### 강좌

▲참선교육=수선회는 제54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두차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참선의 자세, 참선의 종화두의 종요성, 화두 참구법 등의 강좌로 진행된다. (02)732-5960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불고레크리에이션협회는 2급 전문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9월 17일~12월 1일 매주 월 · 금요일 오후 7시 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되는 이번 과정의 강의 내용은 불교레크리에이션론, 리더쉽, 프로그램작성법, 노래지도법 등이다. (02)738-7860

### 모집

▲무의탁 어르신 후원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무의탁 노인 한가위 사랑나누기 후원 사업에 참가할 불자를 모집한다. 후원 방법은 복지관 방문 혹은 서울은행 304708-1392249(예금주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용. (02)3851-3651

▲노인작품 지도교사=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작품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지도 장르는 제한이 없으며, 지도 작품은 10월 7~10일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열리는 '2001 노인작품전시회'에 출품된다. (02)2203-3677

▲컴퓨터 초급과정 교육생=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 컴퓨터 초급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초급반은 3개월 과정이며, 선착순 모집. (02)817-8052

▲문화강좌 수강생=보리사 · 보리불교대학은 9월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강좌에는 선체조, 사찰 꽃꽂이, 다도, 어린이 천자문 교실 등. (053)522-7611

▲대만 참선 수련 희망자=서울불광산사는 대만식 참선 수련 희망자를 모집한다. 참선은 매주 목요일 오전 7~8시에 실시된다. (02)2276-0993

▲이 · 미용 봉사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이 · 미용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월 1회 약 4시간 실시되는 자원봉사의 대상은 거동이 불편이 어르신과 장애인. (051)265-9475

▲불교 전문 IT 교육생=(주)나래사업디자인 학원은 불교 전문 IT 교육과정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승적 증명서, 사찰 주지 추천서 등을 제출하면 수강료 할인 혜택도 받는다. (02)744-4114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바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깨달음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심층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바타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

# 가정폭력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후원 - 행정지치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다. 단지 피해자의 호소만으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가해자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인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해자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더 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혁을 위한 상담가 교육을 통하여 가해자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 대 상 : 가정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병원내 상담 관련 종사자,종교기관 상담자, 포교사,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 일 시 : 2001년 9월 10일. 13일. 14일 - 9월 20일. 21일(4회 20시간)
◆ 장 소 : 만해 교육장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신청기간 : 2001년 8월 29일 - 9월 10일까지
◆ 인 원 : 30명(선착순)
◆ 수 강 료 : 10만원 (한빛은행 : 098- 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 문 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 전화 : 02-738-5586 5568 / 팩스 : 02-738-7576

**1. Basic course (기본과정)**

| 가정폭력 가해자의 이론적 이해 | | | |
|---|---|---|---|
| 9월 10일(목) | 강 사 | 9월 14일(금) | 강 사 |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 | 김현수 원 장 | 가정폭력의 가족치료적 접근 | 김유수 교 수 |
| 1. 가정폭력의 배경과 원인 | | 1. 가족의 이론적 근거와 틀 | |
| 9월 13일(월) | 이종호 원 장 | 2. 부부대화 및 갈등 해결 방안 | 이명진 교 수 |
| 2. 가해자의 유형 및 치료적 접근 | | | |

**2. Advanced course (심화과정)**

|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 | | |
|---|---|---|---|
| 9월 20일(목) | 강 사 | 9월 21일(금) | 강 사 |
| 가정폭력 가해자 심리평가 | 채규남 교 수 (성심여대) | 가정폭력 심리치료 과정 | 채규만 교 수 (성심여대) |
| 1. 가해자 심리치료 과정 비디오 | | 1. 가정폭력 심리치료 과정 | |
| 2. 가해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 (단계별 접근 - 초기, 중기) | | 2. 가족폭력의 가족치료적 접근 -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 |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심화과정은 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정 프로그램 중 가해자 부분(12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제16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저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지도하시는 선생님, 법사님, 스님등, 불교레크리에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매년 전 · 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16기 강좌는 어린이, 청소년 교화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2배로,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기 간 : 불기 2545년 9월 17일 ~ 12월 1일 (특강 · 종합실습 포함 총 72시간)
▣ 시 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7시 ~ 9시 45분(토요특강 2회 포함 오후3시~9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사 건너편)
▣ 대 상 : 만 18세 이상의 불교레크리에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
▣ 강좌내용 : · 불교교리 - 불교지도자론, 레크리에이션포교론, 의식교육
· 레크리에이션론 - 레크리에이션개론, 스피치, 모임진행, 프로그램작성
· 댄스부문 -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댄스, 스포츠댄스
·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 율동 지도법
· 생활부문 - 만들기, 구슬공예
· 게임부문 - 실내 · 실외게임, 전래놀이
· 야외활동 - 캠프, 오리엔티어링
· 종합실습 - 이벤트 (폭죽, 풍선아트), 야외활동, 진행실습
▣ 참 가 비 : 300,000원 (교재, 재료비, 종합실습비 포함)
▣ 온라인접수 :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 김 재 성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문 의 : ☎ 02-738-7860 (daum cafe - http://cafe.daum.net/burec)

※ 특 전 : - 수요강좌 강의 기회 부여 - 각종 이벤트 참가
-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수자)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포 교 원
불 교 레 크 리 에 이 션 협 회

# "매월 둥지마을行…아이들과 함께"

신행현장

## 하이텔불교동호회 보살행



◇매월 둥지마을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하이텔불교동호회 둥지마을 봉사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것이지요. 삶자체가 그러하기에 남을 도왔다던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대부도 자현사(주지 법현) 둥지마을을 찾아가 아이들의 언니와 오빠, 형, 누나로 생활하는 하이텔불교동호회 보살행방(공양주 임수빈) 회원들. 온라인상에서 불교공부를 함께하는 이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실천을 함께하고 있다.

8월 26일 일요일. 8명의 보살행방 회원들이 아침 8시 30분 카풀장소인 여의나루역에 모였다. 회원들의 손에는 전날 시장 봐온 닭매운탕 재료부터 아이들에게 줄 컴퓨터 3대, 수박 5통, 라면 4박스, 주스 20통, 초코파이 20박스 등이 들려있다.

회원들은 물건들을 재빨리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한다.

10시쯤 둥지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회원들은 아이들과 만나 안고 쓰다듬어 주며 회포를 풀더니,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일일주방장인 오진세 회원이 아이들에게 줄 닭매운탕을 요리하고, 다른 회원들은 빨래와 청소 등의 봉사를 한다.

드디어 점심시간. 아이들은 보살행반 회원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최경희 회원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동호회 게시판을 보고 참가했다. 이제는 둥지마을에 와서 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달중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고 토로했다.

### 요리 · 빨래 등 봉사
### 컴퓨터 교육도 실시

법현스님이 후식으로 타준 커피를 마신 회원들은 아이들과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큰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네뛰기 대회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아이들에게 수박을 건네주던 김지훈 회원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큰애나 작은 애나 안아주는 것을 좋아해 힘이 들지만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오게 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이곳에 있으면 편하고, 부지런 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진실한 즐거움을 배운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저녁식사후 아이들에게 컴퓨터방을 꾸며주고, 컴퓨터교육도 실시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자 회원들은 간단한 자체모임을 가진 뒤 밤 12시쯤 서울에 도착했다.

하이텔불교동호회 보살행방 회원들은 모두 30여명. 이들은 올해 1월부터 둥지마을 봉사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보살행을 펼치고 있다.

매달 아이들이 원하는 메뉴를 추천받아 사이버상에서 의견을 모아 직접 시장을 본 뒤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하는 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 회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사랑과 함께 장롱과 책상 의자 책꽂이 학용품 등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보시에도 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둥지마을 봉사에 나서는 보살행방 회원들이 힘을 얻는것은 직접 참가하지 않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하이텔불교동호회 회원들이 매달 보내주는 보시금과 물품들.

보살행방 공양주인 임수빈씨는 "사이버 상에서 불교공부를 하다보니 부처님 가르침이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꼭 무엇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정서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며 "내년에는 둥지마을 뿐 아니라 다른 복지관련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생활속의 불교 — 소유는 구속이고 집착은 족쇄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상대가 누구이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소유 당하고 내가 붙잡히는 것이다.

가령 그 대상이 돈이라고 하자. 내가 벌고 내가 갖는 것 같지만 일단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알게 모르게 돈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 누가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내 손을 떠나게 될까 봐 걱정하게 된다.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도 그렇다. 일단 내 것이다 싶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게 마련이다.

대상이 사람인 경우도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소중한 사람이라면, 늘 그와 함께 해 주고 싶고 상대 또한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때는 비탄에 젖고 괴로워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걸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일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있다. 사랑하는 데 왜 떠나보낸단 말인가. 사랑하는 만큼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있다. '젊은이가 겪게 되는 일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은 자비심 많은 어머님을 갖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자녀의 독립을 가로 막고 자녀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 무엇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그 무엇을 자유롭게 하라, 그 누구를 자유롭게 하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돈이 제 갈 길을 가게 하라. 소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그로부터 해방되고 싶거든 먼저 그를 풀어 주어라. 그를 풀어주면 나의 족쇄도 풀린다. 그를 풀어주지 않고 나만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으로 자유롭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려면 욕망과 집착이라는 노비문서부터 버려라. 탐욕의 노비문서는 나를 얽어매는 마음의 끈이다. 마음이 풀리면 삶도 풀린다. 얼었던 강이 녹듯이 삶의 강물도 녹는다. 강물이 풀리면 배가 올 것이고, 그리운 님 소식도 올 것이다.

龍眼

## 주제가 있는 법문

# 시들어가는 잎과 줄기 가을의 또다른 아름다움



복혜스님
제주 화천사 주지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 다 이기고 무르익은 낱알과 열매에서 농부의 수고로움이 영글었다'는 상투적인 언사로 이 계절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계절은 조락(凋落)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한켠에서는 이제까지 열매 맺게 해주던 잎과 줄기가 시들어 떨어지고 마르며, 거기에서는 삼라만상의 무상(無常)함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고 덧없는 세월에 대해 전혀 무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결실과 조락이 함께 하는 계절이면 나의 육신은 시들어 가는 잎과 줄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놓은 내

### "내가 지은 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자"

가 지은 업(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인간이 지은 업은 낱알과 열매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튼실한 것인지 쭉정이인지 구별되지 않아서 무시할 수도 있고, 위선으로 감출 수도 있어서 큰 걱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정한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없이 편하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보온비닐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난 폐비닐이 문제가 됩니다. 대개는 밭둑에서 태우고 마는데, 그 매캐한 연기가 절 안으로 날아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못 태우게 할 수도 있고 나아가 고발할 수도 있으나 어디 세상인심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발암물질이며, 대기오염이며 하는 것은 인정의 뒤편으로 밀려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실명 속에 사는 시골이 이러한데, 익명 속에 사는 도시야 오죽할까요.

가끔 여름의 도시골목을 지날 때 느껴지는 것은 악취와 열기 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에어컨은 그 더위를 모든 사람들의 공간에 전가시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아수라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하고 우리는 다음 생의 과보를 기다릴 것도 없이 현재 지옥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육신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시들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이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겠으나 제 몸 건강하자고 거리낌 없이 다른 생명을 취하는 인간의 행태는 모든 것이 인과의 사슬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연기(緣起)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동물이 몸보신에 좋다고 마구 잡아, 씨를 말려서 초래되는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소수의 건강을 위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닐과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토지와 공기가 썩어가고, 건강과 보는 즐거움을 위해 잡아들이는 각종 동식물의 남획 속에 모든 생명체의 공간이 균형을 잃을 때, 배불리 먹고 활기찬 생활을 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결실과 조락이 함께 하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떠나가는 잎과 줄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코 허무한 무상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남김없이 열매에게 깃들게 하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 신행 캘린더

**9월 6일 (목)**

■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불교환경연대는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LNB싱어즈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02)720-1888

■영규대사 추모대재=청주사암연합회는 오전 10시 증암공원에서 청주성 탈환 409주년을 맞아 '영규대사 추모대재'를 봉행한다. (043)284-6812

**9월 7일 (금)**

■통일대화마당=좋은벗들은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통일교육을 다시 본다'를 주제로 제7기 통일대화마당을 연다. (02)587-8996

■생명나눔 일일호프=생명나눔실천회는 오후 1시-11시까지 동국호프지하 1층에서 라이프 쉐어(Life Share) 일일호프를 마련한다. (02)734-8050

■은빛어르신봉사대 수련회=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은빛어르신봉사대는 오전 10시 30분 일산 호수공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하는 수련회를 개최한다. (031)919-8677

■불교교양강좌=부천 석왕사는 제1기 불교교양강좌를 개강한다. 초·중·고급반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6개월간 계속된다. (032)668-0076

**9월 8일 (토)**

■관음사 무료진료=영남불교대학·관음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남불교대학 2층 법당에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진료는 허한방병원에서 맡는다. (053)474-8228

**9월 9일 (일)**

■인드라망 창립2주년법회=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오전 10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3281-1888

■설정 스님 선강좌=발심회는 13일까지 오후 6시 수덕사에서 前 수덕사 주지 설정스님 초청 '선가귀감' 특강을 실시한다. (041)634-6777

■서울 문화유산 답사=터사랑은 서울 문화유산 바로알기 제23회 일일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답사 코스는 남산 한옥마을->타임캡슐->남산->봉수대. (02)722-9747

■영주 불적 답사=한국석불선양회는 경북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을 친견하고 부석사를 순례하는 제17차 답사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전 7시 동대문 이스턴 호텔 앞. (016)267-7945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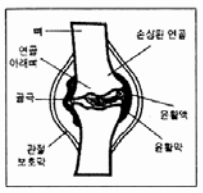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획연한 화제만발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슙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공 고

승려, 포교사, 법사, 연수교육 및 법계고시 실시

대한불교 무량종에서는 본종 산하 각 사암 승려 및 법사, 포교사, 창건주 대표자를 대상으로 2001년 종단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승려는 법계고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에 해당되시는 종도들은 대소불사에 다망하실줄 사료되오나 필히 참석하시어 본 소정의 교육을 통해 참신한 불교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종도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교육 및 법계고시 일시 | 교육장소 | 교육내용 |
|---|---|---|
| 2001년 9월 13, 14, 15일 (2박 3일) | 총무원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 본 종단 등록된 각 사암 주지 및 승려, 법사, 포교사, 창건주 |

2001년 8월 23일

문의처 : ☎ 055)883-7771. 7790. 7781. 882-9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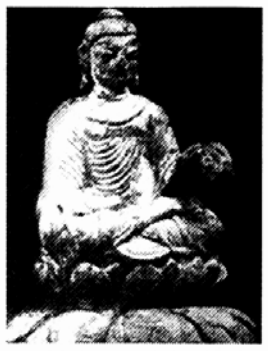
대 한 불 교 무 량 종

총무원장 정 혜 안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 1. 스웨덴 고대유적서 발견된 한 불상의 침묵



1954년 7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약 16km 떨어진 멜라랜호수의 동쪽 에케레섬에서 작은 청동불상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이 발견된 장소는 5~8세기의 유적이다. 불상의 높이는 10cm, 연화대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 불상은, 왼손을 앞에 들고 오른 손은 무릎 위에 드리우고 있다.<사진>

스웨덴의 학자들은 이 불상이 6·7세기경 카슈미르지역에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불상이 발견된 멜라랜 호수 주변은 중세 이전부터 바이킹 세력의 주축으로 발전한 원주민 스베아족이 촌락을 형성하고 집단 생활을 한 곳이다. 점차 다른 부족을 흡수·지배하게 된 그들의 해상 활동은 바이킹 시대에 절정을 이루어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해로를 지배하면서 유럽과 동방 사이에서 무역을 한다.

바이킹을 해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나 실제는 당시 극도로 한랭한 기후 때문에 물자의 교류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 고대북구의 외딴섬
### 바이킹 불교 믿었나

민족 이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역사학자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독교 역사는 비교적 늦어서 830년경 프랑스의 수도사 안스가르가 최초로 기독교 선교사로 스웨덴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유구한 세월동안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을까? 혹시 바이킹들에 의해서 옮겨진 불교의 한 지류가 멜라랜 호수의 한 외딴 섬에 정착하여 고태 북구에서 지독하게 고독한, 그야말로 천애의 로칼판 불교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불상에 주목한 삼산이랑(杉山二郎)은 '한 불상의 배경 – 비단과 호박(琥珀)의 길'이라는 글에서 "이 불상은 코탄 지방의 한 사막도시에서 제작되어 불교신자들이 많았던 중앙아시아나 시리아 부근의 교역자들이 모시고 예배하다가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실크로드를 여행하여 시리아연안에서 로마의 식민지 도시로 운반되어 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는 이 불상의 침묵이 세 갈래의 가설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코탄에서 제작된 불상이 여행하는 불교도의 손에 의해서 흑해연안에서 스웨덴으로 옮겨졌다. 그 둘은 불교사의 이상적인 제왕, 아쇼카(268-232, B.C.在位)가 파견한 불교포교사단에 의한 운반이다. 아쇼카의 불교포교사들은 멀리 시리아, 마케도니아, 이집트까지 도착했었다. 그 셋은 서기 230년경 오리게네스가 구약 에제키엘서 주해에서 "그 섬(영국)에는 드루이드(Druids)의 승려들과 불교도들이 신의 유일성에 관한 가르침을 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곳은 훨씬 이전부터 복음을 들을 준비가 있었다"고 쓴 것처럼 고대 영국의 한 불교지류가 봉헌하던 불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모든 것이 미스터리다. 그러나 서기 79년 이전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전해져 화산폭발과 함께 묻힌 인도산 공예품(상아로 만든 거울 손잡이)이 발견된 사실은 고대사회 각 민족 간의 왕래가 활발하게 열려 있는 세계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스웨덴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불상뿐만 아니라 같은 스칸디나 반도의 노르웨이에서는 불상과 불교사원의 유적을 발견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은 세간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발굴을 주관한 오슬로대학에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지스님은?** 1974년 출가하여 8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82년 해인율원을 수료한 뒤 계속 경학과 선학에 정진해왔으며,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불교적 삶과 현대사회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 온 스님은, 불교인문주의라는 독특한 영역을 심화시켜오면서 많은 불교관련 저서를 쓰고 경전과 선어록들을 번역했다.

# 한번 굴릴때마다 번뇌 끊어짐

**참불자의 길** 염주의 의미와 사용법



◇염주는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불구다.

지난 일요일 오후 3시 경기도 남양주 봉영사 대웅보전. 10여명의 불자들이 염주를 돌리며 절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염주는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불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 의미와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불자들은 의외로 적다. 그렇다면 염주는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염주의 사전적 의미는 수주(數珠)·송주(誦珠)·주주(呪珠)라고 하며 염불의 횟수를 기억하는 구슬이라는 뜻이다. 즉 염불할 때, 다라니를 외울 때, 절을 할 때 일정한 수의 구슬을 끼워 연결한 염주를 가지고 그 수를 기억하도록 하는 도구인 것이다.

〈목환자경〉에 의하면, "번뇌 업보를 없애고자 하면 목환자 108개를 끼워 항상 지니고,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를 막론하고 언제나 불법승의 명칭을 외우며, 외울 때마다 목환자 하나씩을 넘겨 그 수가 많아지면 업을 소멸하고 안락하여 위없는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염주 하나를 굴릴 때마다 번뇌가 끊어짐을 상징하므로 일념으로 염주를 돌림에 따라 부처님 광명이 자신에게 충만해지고 죄업이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염주의 의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염주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에 들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삼보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나씩 앞으로 넘긴다. 불보살께 예를 올릴 때에는 팔에 감거나 목에 걸기도 한다.

합장주라고 하여 손목에 차고 다니는 짧은 염주도 있다. 염주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다라니집경〉은 108주, 54주, 42주, 21주 등 4종을, 〈수주공덕경〉에는 108과, 54과, 27과, 14과 등 4종을, 〈금강정유가염송경〉은 상품은 1,080과, 최승은 108과, 중품은 54과, 하품은 27과의 4종을 말하는 등 그 수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이것은 대게 108과를 절반으로 하였을 때 54과가 되고, 또 54과를 절반으로 하여 27과로 하고, 또 108과를 10배로 하여 1,080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염주의 수는 108과를 기본으로 한다. 즉 108번뇌를 끊고 108삼매를 증득하는 것을 뜻하며, 1,080과는 108삼매를 각기 10삼매를 갖춘 것이

**염불횟수 기억도구**
**108염주 많이 사용**

**불보살께 예 올릴때**
**팔에 감거나 목에 걸어**

라 한다.

54과는 심신, 십주, 십회향, 십지에 사선근(四善根)을 합쳐 수행의 54위를, 42과는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의 42위를, 27과는 18학인과 9무학을, 21과는 십지, 십바라밀에 불과를 합친 21위를, 14과는 관세음보살의 14무외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

염주의 재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라니집경〉에 따르면 금, 은, 보리자, 수정의 네 종류와 목환자, 보리자, 연화자 등을 들고 있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는 보리자, 금강자, 금, 진주, 연화자 등을 들었고, 〈제불경계섭진실경〉 하권 지념품에는 향목, 유석, 구리, 철, 진주, 금강자, 연화자 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율무, 유리, 전단 등이 불경에 나타나 있다.

대체로 모든 염주에는 가장 큰 굵기의 모주(母珠)가 있는데, 모주는 내부를 투명하게 하여 그 안에 불상이나 보살상을 넣어 작은 구멍을 통하여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백팔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백팔번뇌를 모두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공덕이 있다는 것이다.

김중근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㉘ 여사인(呂舍人)에 대한 답서

# "화두 해결되면 모든문제 말끔히 사라지고"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話頭) 위에서 의심이 부서지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화두가 부서지지 않으면 다시금 화두 위에서 의심과 대면하여 끝까지 씨름하십시오. 만약 화두를 포기하고 도리어 다른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옛 사람의 공안(公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사의 잡다한 일 속에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삿된 마구니의 권속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화두를 제시하는 곳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사량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뜻을 사량할 수 없는 곳에다 두고 사량하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늙은 쥐가 소의 뿔 속으로 들어가 바로 넘어져 갈 길이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가슴에 시끄러움이 있으면 다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드십시오.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과 여러 곳의 노스님들의 말씀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 같지만, 무자(無字) 화두를 뚫어내면 일시에 모두 뚫어내어 남에게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하며 조사의 말씀은 어떠하며 여러 노스님들의 말씀은 어떤가 하고 남에게 한결같이 묻기만 한다면, 영원히 깨달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이다. 중생이 가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한 번뇌와 문제가 실은 하나의 문제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으로 보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제각각으로 다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문제이다.

그 하나의 문제란 바로 모양(相 ; 생각, 관념, 느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며 모양에 머무르고 모양에 매여서 모양으로부터 벗어지지 못하여 모든 것을 모양을 가지고 해명하고 해결하려 하는 습성이다.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든 세속의 일을 모양에 매여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한 도(道)니 진리니 초월함이니 해탈함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탈세속의 문제까지도 모양에 매여서 행하고 있다. 세속과 탈세속이 그 뜻으로 보면 다르지만, 둘 다 모양 속에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즉 중생의 근본 문제는 모양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도 단 하나뿐이니, 그것은 모양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양 속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을 따라 이리저리 모양을 취사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의 구속에서 한 번 벗어나는 것이다. 일단 모양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다양하게 보였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되면서, 모든 문제가 본래 하나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화두를 부순다(打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모양에서 한 번 벗어나는 체험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어떤 화두든 하나만 부수면 그것으로 모든 화두를 다 부순 것이 된다. 진실로 완전히 부수었다면, 이 화두는 부수었는데 저 화두는 아직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판단된다면 아직 처음의 화두도 부수어 진 것이 아니라, 부수었다는 모양을 지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화두를 들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모든 모양을 벗어나서 허공 속에 한 점 바람도 없이 깨끗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모양에 의지하여 이리저리 나누고 결합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화두의 해결은 어떤 미묘한 이치의 이해도 아니고, 산뜻하고 상쾌한 느낌도 아니고, 그럴듯한 관념도 아니고, 말로써 상대를 묶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 설명도 아니다. 화두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고(해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본래 없었다), 동시에 모든 이유도 사라져서 물을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다. 그저 말끔할 뿐이다.

http://www.mindfree.net


#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 학 과 | 수업연한 | 모집과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특별전형30% |
|---|---|---|---|---|
| 불교학과 | 2년 | ■주간 20명 ■야간 20명 ■통신 50명 | · 고등학교 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br>·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br>·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br>· 주민등록등본 1통<br>· 반명함판 사진 5매 |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br>·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
| | 4년 | ■통신 50명 | | |
| 개호복지사과 | 2년 | ■통신50명 | | |
| 불교미술 (문화재)과 | 2년 | ■주간20명 ■야간10명 | | |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 10회 졸업생 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8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511-2028
· 일본동경분교 : TEL 055-233-1848
· 부 산 분 교 : TEL 051-322-32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samhwade.com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 인정 ◈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만 60세까지)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 학 과 | 수업연한 | 모집과정 |
|---|---|---|
|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 3년 | 주간·야간 |
| 중학교 과정 | 3년 | 주간·야간 |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9월 15일까지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 한의사 과정 학생모집

**1.모집학과**

■석사·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 학 과 | 학제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 년 |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br>◇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br>◇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br>◇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br>◇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br>◇ 건강 진단서 1통<br>◇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br>◇ 여권용 사진 3매 |
| 중의외과 | 5 년 | |
| 중약학과 | 5 년 | |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1080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남경 중의약 대학 박사과정 연수

## 한방미용연수
■ 대 상
피부관리사, 전문미용인 한방미용이나 경혈 마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주요연수 내용
머리경혈마사지 기공미용, 추나미용, 한방팩, 한방 다이어트, 식이요법·및 응용 등

## 침·기공 연수
■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주요연수 내용
당뇨병·중풍 비만·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 원 : 10명 선착순
■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 02) 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이렇게 들었다

### 건강한 성문화

### "생사는 음행으로부터 비롯"

▩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로 알라. 중년쯤의 여인은 누이로 알라. 젊은 여인은 딸로 보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불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도 욕정에 끌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있다." <본생경>

▩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은 애욕으로 그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애욕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 <원각경>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8월 3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9명의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 관보 · 정부청사 및 16개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알게 해 준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을 물질화라고 한다면 인간을 물질화한 가장 적나라한 예가 성의 상품화이다. 인간이 성의 노리개로 전락되어 금전적으로 매매되고, 특히 초등학생을 주행하고 2-3세 유아까지 욕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같은 범죄자들의 문제는 성윤리의 회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 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사는 음행으로부터 비롯된다"며 출가자에게는 성행위를 금지하고, 재가신자들에게는 건강한 성문화를 갖도록 불사음을 강조했다.

비구 250계를 보면 거의 반이 남녀관계에 관한 것이고, 비구니 348계도 특히 남녀관계에 관한 규정이 많다. 곧 구족계의 과반수가 남녀의 정욕에 관한 계율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음계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의 음행도 해서는 안된다"고 한 반면, 재가불자들에게는 불사음만을 강조했다. 즉 자신의 처 이외에 일체의 여인을 범하는 것, 자기 남편을 제외한 모든 남자와의 음행을 사음으로 정의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경계한 음행은 크게 자음(自淫)과 교인음(敎人淫)으로 나뉜다. 자음은 자신이 스스로 음행을 범하는 것이고, 교인음은 다른 사람에게 음행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강간, 강제 추행, 매매춘 알선 등 이번 신상공개에서 나타난 성 범죄유형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건전한 성문화를 가지면 어떠한 공덕이 있을까. 〈십선업도경〉에서는 불사음계를 잘 지키면 △모든 본능의 감각기관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시끄러운 비난을 길이 여의고 △세상이 다 칭찬을 하며 △정숙한 배우자를 얻게 되는 네 가지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화엄경〉에서는 사음의 죄를 범하면 삼악도에 떨어진다' 고 정의한 다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정숙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뜻에 맞지 않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김중근 기자

# '엽기문화' 청소년들 왜 열광하나

불자 세상보기

### 폭력적-변태적 성향
### 가치관 혼란 아노미현상
### 자기안에 불성 찾도록
### 청소년 포교 더 관심을



방귀희
방송작가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안다. 선과 악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능력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진실이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띄뤼켄이 인간 세상에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가치관의 혼란을 뜻한다. 가치에 대한 생각이 뒤바뀌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는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랴 방심하고 있다가는 천재(天災) 이상의 인재(人災)로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다. 이미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엽기 문화가 한 징후다.

요즘 모든 매체가 엽기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건다. 엽기적이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언어 속에도 '엽기'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신세대인양 인정받는 이상한 유행병에 걸려있다.

엽기라는 것은 '기괴(奇怪)한 것이나 이상한 일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찾아다니는 일' 이라고 국어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엽기 본래의 뜻은 특별한 취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엽기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 폐해성이 심각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특징은 문화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 속에 빠져 그것을 생활화 한다는데 있다. 그러니까 엽기 문화는 우리 청소년들을 그야말로 엽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독버섯처럼 자랐다. 학교 폭력은 교사를 폭행할 정도로 위험 수위를 넘고 말았다.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를 거부하고 패륜아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부모를 구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그리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은지 오래다. 사회에서도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할 정도로 변태적이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문화가 도덕과 규범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을 엽기 신드롬, 더 나아가 엽기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엽기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광우병이 아직도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데 광우병의 원인은 초식성 동물이 육식 사료를 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필자는 오늘 우리 사회의 엽기 문화를 '광인병' 이라고 생각한다.

한창 유행인 엽기를 한꺼번에 엎애려면 무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래 의미의 엽기로 엽기 유행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패러디나 비판, 유머, 개사 등의 형식을 이용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명랑 엽기 문화'는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장려할 만 하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욕구를 예리한 비판과 상상력의 나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자신과 사회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며, 그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불교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즉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다. 참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습득할 수 있다.

#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 집근처 불교유치원 없어 결국 타종교 유치원으로

○… 경기도에서 살다가 충남 천안으로 이사한 지 세 달 정도 됐다. 이사하자마자 6살 난 큰아이가 다닐 유치원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인근은 물론 자동차로 20여분 거리 안에서도 불교계 유치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입구에는 선교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하는 수 없이 큰 아이를 이곳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유치원 원장은 아이 신상 카드에서 불교라고 적힌 가족의 종교를 보며, 식사 때나 아니면 가끔씩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어왔다. 주변에 유치원이 없는 처지에서 달리 보낼 곳도 없었기에 하는 수없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요즘에는 도심에도 포교당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지역에서 몇몇 포교당만이라도 유치원을 운영한다면 불교계 유치원이 없어서 다른 종교단체 유치원에 보내는 일을 없을 것이다.

장경희 · 충남 천안시 신부동

### 교도소찬불가 발표준비 악기 · 악보집 등 부족

○…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는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해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계 소식을 알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 들어온다. 간행물을 보내 주시는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린다.

얼마 전 본소의 불교회 회장으로 선출되고나서 10월8일 본소에서 찬불가 발표 법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열심히 연습 중에 있다. 악대와 합창단도 구성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이곳 법우들 사이에서 넘쳐난다.

하지만 악기와 악보집, 찬불가 자료 등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연습에 임하는 법우들을 볼 때면 회장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같은 불자로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늘 후원해주고 격려해 주는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원주 교도소 불자회장 설산 · 원주시 원주우체국 사서함 87-984

### 종단내 빈번한 폭력 사부대중 모두 반성을

○… 요즘에 종단 내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매월 정기법회에 빠지지 않으면서 10여년을 넘게 신행생활을 해오다 몇 차례 종단의 폭력사태에 환멸을 느껴 신행생활을 그만두었기에 폭력근절을 의치는 목소리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그런데 7월22일 조계사에서 열렸던 '비폭력 평화 실현' 세미나에 참석하고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70명이 넘는 방청객 중 스님은 불과 3~4명뿐이었다. 종단 폭력의 중심에 서있는 장본인이 스님인데, 어떻게 스님들이 이렇게 무관심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재가자들도 종단 폭력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스님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할 텐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폭력이 근절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등심 · 서울 종로구 인사동

### 기차서 자리양보한 스님 합장도 제대로 못했는데…

○… 부산에 사는 주부다. 얼마 전 연로하신 노모를 모시고 서울 친척집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휴가철이라서 좌석을 예매하기 힘들어 할 수 없이 입석으로 가야 했다. 열차 통로마다 빼곡하게 차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노모는 열차가 출발한지 10분도 안돼 힘들어하셨다. 어쩔 수 없이 신문지를 구해 통로바닥에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그런데 대구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올라타고 그 중 한 스님이 노모가 앉아있는 곳 서너 발치 뒤에서 자리에 앉다가 노모 곁으로 다가와서는 저쪽에 앉으시라며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그리고는 아예 다른 칸으로 가버리셨다. 아마도 우리 모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몇 분이 지나고 보니 불자로서 스님에게 합장인사도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어디에 계신 스님이신지는 모르지만 그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박연순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 기고

# '교육이 아프다' 마음의 약 처방 지혜 낼때다



서명석
동국대 강사
교육학

동해안의 경포대 바닷가 백사장.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붕붕카를 타고 온갖 소음을 터뜨리며 곡예로 모래 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 때 방송기자가 그에게 다가서서 물었다. "그렇게 타는 것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소음 공해와 사고의 위험성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만 즐겁고 신나면 되니까요." 왜 우리는 이 청년에게서 에고와 이기로만 뭉쳐진 자폐적 폐쇄회로 만을 보고 읽어야 하는가.

지금-여기, 모든 것이 반성과 성찰적인 시간대. 여기에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적어도 12년 이상 교육이라는 공적 제도 속에서 커왔으니까. 그런 청년을 길러내고 있었다면 우리 교육은 부실하다. 아니,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이런 청년이 교육에서 걸러지고 그의 생각이 타자를 배려하고 자신의 에고와 이기를 줄이는 교육의 참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제 제도교육에게 우리는 파산통지서를 배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청년은 지금 에고증과 이기병을 앓고 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다. 몸에 질병이 찾아들면 우리는 약을 먹는다. 그럼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마음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을 불가에서 통상 명상이라 지칭하지만, 이 때의 명상은 그냥 눈감음이 아니다. 감음으로써 나의 에고를 덜어내고 더 큰 나를 찾는 것이 그것이요, 그럼으로써 나의 이기를 세척하고 또 세척하여 타자를 배려하는 공간을 내 마음 속에 개설하는 일이다. 이를 줄여 마음공부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나만의 부처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지혜와 자비라는 명상의 약을 만드는 그런 시간대.


인터뷰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로(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사·부·대·중

## 사찰순례 가기가 겁난다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재가불자들은 사찰 순례(성지순례)길에 자주 오른다.

새벽잠을 설치며 대절버스에 몸을 싣고 또 한참을 걸어올라 사찰의 일주문이 시야에 들어오면 여독(旅毒)은 씻은 듯 가셔지고 경건함과 환희심 가득한 마음으로 두손 모아 반배의 예를 올린 후 사찰 경내로 들어선다. 법당 및 전각을 순서대로 참배하기 위해 우선 본존불이 모셔진 큰법당으로 들어가면 노보살이 사인펜과 불사카드를 내밀며 참배객의 옷자락을 잡는다. 참배를 마친 후 법당 마당에 나와 주위의 경관을 둘러볼 양이면 이제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앉아 있는 젊은 보살이 좇아 와 기와불사를 권한다.

금년에 다녀온 많은 사찰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사를 하지 않는 사찰은 거의 없었다. 불사의 종류도 각양각색이었고, 심지어 어느 사찰은 전각별로 불사 시주를 권유하고 있었다. 정말 피곤하다. 새벽의 설레였던 마음, 경건하고 환희심 났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성능이 좋지 않은 확성기를 통해 크게 내뿜는 독경이나 염불테이프 소리는 산사의 일등 공해(?)가 아닐 수 없다.

8월 초 50여명이 어느 사찰로 순례를 갔을 때 일이다. 그곳의 주지스님이 불사 동참을 간곡히 권하였다. 우리 단체의 70% 정도가 기꺼이 동참하였기에 흡족한 마음으로 불사카드와 함께 보시금을 그 사찰 종무원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 종무원 하는 말이, "몇 명이 왔는데 이거 밖에 안돼요?" 한다. 마침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터라 그 종무원에게 시원한 물을 부탁했지만 냉장고에 물이 없다고 한다. 불자들의 정성을 머릿수로 계산하는 얄팍함과 여름철 땀범벅이 되어 찾아온 불자들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지 못하는 그 사찰의 짧은 안목과 인색함이 왠지 측은했다. 이런 수모를 겪지만 언제 그랬냐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다음 번 사찰순례를 의논하는 우리는 정말 미련한 곰들 일까.

목탁소리

## 가사불사의 의미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조계사가 가사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지은 가사를 올해 10월말에 치러지는 조계종 3급 승가고시 이수자에게 봉헌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원도 조계사와 함께 이번 가사불사를 계기로 의제 통일화 작업을 본격화할 태세다.

사실 조계종의 의제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고, 비구(니) 사미(니)의 승복과 가사를 차별화하고 또 단계별로 법계에 따라 가사의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96년 의제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조계사와 교육원은 우선 가사부터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누구나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게 돼 있다보니 승가 위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승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복과 가사를 구입해 사이비 승려 노릇을 하며, 사기행각을 일삼거나 부녀자를 농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스님들이 가사를 마련하는 방법은 승복집에서 사거나 신도들로부터 보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수행을 상징하는 가사의 본래 의미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색깔도 틀리고 변용이 심해 가사의 '위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가사의 위의를 되찾겠다고 나선 조계사의 뜻은 반가운 일이다. 교육원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승복을 관장하는 가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단차원에서 승복유통을 관장하고 가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법한 의제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타태아기령 천도재 '확산'

# 부모 원망하며 떠도는 아기영가 '해원'

"액체의 태아에 해당하는 '갈자람'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태아를 타태(墮胎)케 하면 중대한 살생죄를 범한 것이다." <유가논기>

9월 2일(음력 7월 15일)은 일년에 한번 지옥문이 열린다고 하는 우란분절이다. 우란분절을 맞아 선망부모와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는 우란분재가 사찰마다 열리고 있는 가운데 타태아기령 천도재를 봉행하는 사찰도 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신흥사, 정토사, 한강 광나루 수상법당, 법성사, 사천왕사, 방생선원, 관음의 집과 함께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제6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 입재식을 갖는 등 최근 많은 사찰에서 타태아기령 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루 6,000여명, 연간 200여만명의 태아가 무분별한 낙태수술로 생명을 잃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불교계가 더 이상 낙태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명존중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수녀회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와 개신교가 중심이 된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을 아끼는 모임, 새생명사랑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낙태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정작 불살생계를 중시하는 불교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다. 불교계가 반낙태 생명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우란분절을 맞아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실시한 타태아기령 천도사경법회 회향식에서 낙태 경험이 있는 불자들이 꽃과 사경문, 영가위패 등을 들고 법당을 돌며 영가천도를 기원하고 있다.

### 매년 태아 2백만명 '생명 잃어'
### 태아도 인격체…"낙태는 살생"

### "생명중심 성교육 등 대안찾자"
### "범종교 낙태반대운동 나설때"

●낙태율 세계 1위 한국

성개방 풍조로 어린 미혼모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낙태율 세계 1위'란 불명예를 가진 한국 땅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20초에 한 명씩 소중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천부적인 인간의 생명권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정신에 반하는 낙태문제가 한국사회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무지함 △개인 편리주의 △도덕적책임의 사회 전가로 죄의식의 감퇴 △남아선호사상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기준 완화(실제적인 법적 보장) △낮은 산부인과 의료수가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불교의 태아관

불교의 생명관에 의하면 태아는 어머니 태안에 물방울의 형태로 태어날 때부터 인격체로 간주된다. 소승불교에서는 중생들의 윤회 과정을 중유(中有),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의 네 가지로 나눈 사유(四有)학설로 설명한다.

중유(中有)는 전생에 어떤 중생이 죽은 뒤로부터 다음의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명체를 뜻한다. 생유(生有)는 전생의 영혼이 금생의 부모를 만나 태안에 출생한 것을, 본유(本有)는 영혼이 모태에 탁생한 뒤부터 수명을 다하여 죽는 순간까지의 생존기간을, 사유(死有)는 인간이 살다가 사망하는 찰나를 말한다.

또한 태아의 성장 과정은 팔위설(八位說)과 오위설(五位說)로 설명된다. 이는 태아가 모태에서 자라는 동안에 오장육부와 눈, 코, 귀, 입 등 인간의 형체를 갖추어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을 다섯 또는 여덟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태아를 인격체로 간주하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

불교는 이웃 종교와 달리 태아에 대한 많은 경전을 갖고 있다. 〈증일아함경〉에는 수태의 과정과 태아의 성장과정이 매우 상세히 기록돼 있다. 〈불설포태경〉에도 태아의 발달과정과 윤회에 의한 과보의 적용과정 등이 설해져 있으며 〈근본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다.

〈아귀응보경〉 〈타태경〉에서는 백천세 동안 고통을 받는 무서운 타태(墮胎)의 과보를 강조하고 있다.

●낙태영가를 천도하는 이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낙태의 중죄를 지었더라도〈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에서 설한 바와 같이 "태아를 죽인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하고 천도공양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이고득락(離苦得樂)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성덕스님은 타애아기영가의 해원(解寃)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모로써 씻을 수 없는 살생죄업을 참회해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원한 맺힌 아기영가들을 해탈시켜 이고득락케 하며,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한 불보살님들의 큰 서원에 의탁해 영계와 현실계의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고통의 원인을 모두 없애고 가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게 된다."

●대안있는 낙태반대운동

불교적인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교리적 입장을 정립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을 갖는 대안있는 생명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찰이 낙태한 부모들에게 상담을 통한 참회를 유도하고 천도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며, 포교활동의 하나로 낙태반대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회적으로는 불교계가 나서서 생명중심의 성교육과 태교교육, 미혼모를 위한 입양 예약제 활성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종교간의 연대와 대사회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국회, 정부, 언론 등에 끊임없는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낙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른 의식을 갖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스님들이 교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 낙태 반대운동 나선 스님들



◇성우 스님



◇자우 스님



◇성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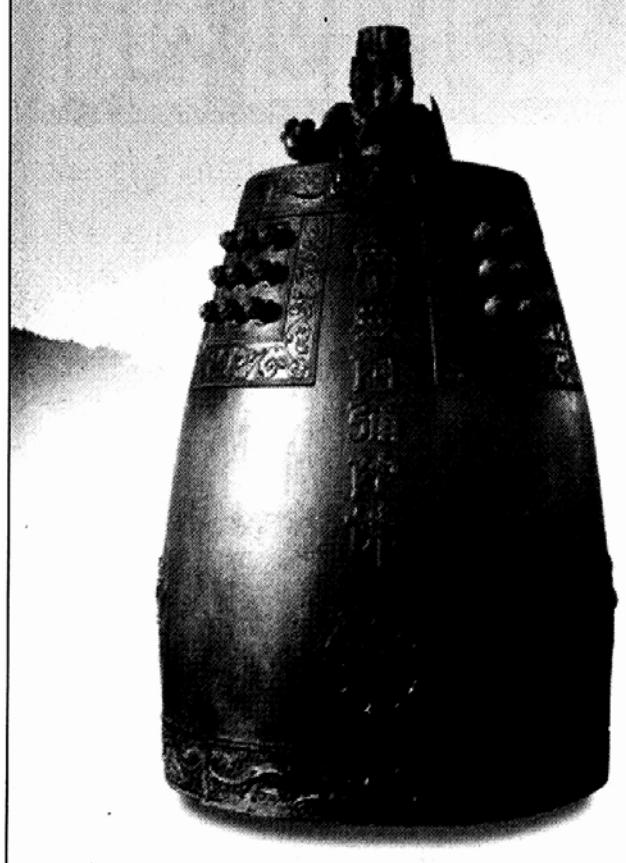
천주교, 개신교계가 활발한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불교계는 아직 소극적인 타태아기령 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몇몇 스님들은 각종 법회와 태교교육 등을 통해 살생중죄인 낙태의 불교적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하늘 맑은 날〉(토방 펴냄)들 태교시집을 잇달아 출간한 대구 파계사 주지 성우스님은 84년 홍콩 홍법원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연과보의 엄중함을 불자들에게 일깨우고자 매년 태령영가 천도를 시작, 파계사에서 청소년~주부를 대상으로 태교강연을 계속하고 있다.

금강사 주지 자우스님은 매년 태아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95년 낙태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 낙태에 의해 사라져간 영혼들에 대한 사죄와 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밀알 펴냄)란 책을 발간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 성덕스님은 10년전부터 타태아기령 천도사경법회를 열면서 '타태아기령 생명수호 결의문'을 채택하는등 낙태반대운동을 펼치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태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담사 주지 지율스님은 10년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아영가 천도도량으로 문을 열어 매년 세차례이상 태아영가 49재 천도재를 지내, 이제까지 구담사에서 태아영가 천도재를 봉행한 신도는 모두 1,000여명에 달한다. 김재경 기자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 화엄경 ㉓

제6은 현전지(現前地)이다. "12연기에 안주하는 지혜(후득지)가 분별이 없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이끌어서 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제7 원행지(遠行地)에서는, "집착이 없이 머무는 작용의 최후에 이르러서 세간과 이승의 도를 벗어난다"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제6 현전지에서는 12연기에 대한 뛰어난 관찰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를 뛰어넘는 삼세일중(三世一重) 또는 이세일중(二世一重) 등 다양한 연기관이 시도되어 10종류를 나열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 일심소섭문(一心所攝門)에 해당하는 경문을 잠시 보자.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또 매의 지혜를 얻고는 큰 방편으로써, 비록 생사를 나타내지마는 항상 열반에 머물며, 권속들이 둘러 앉았지마는 항상 멀리 여의기를 좋아하며, 원력으로써 삼계(三界)에 태어나지마는 세상 법에 물들지 아니하며, 항상 적멸하지마는 방편의 힘으로 도로 치성하며, 비록 불사르지마는 타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지마는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들어가며, 부처님 경계의 장을 얻었지마는 일부러 마군의 경계에 머물며, 마군의 도를 초월하였지마는 지금에 마군의 법을 행하며, 외도의 행과 같이 하지마는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며, 일부러 모든 세간을 따르지마는 출세간법을 항상 행하며(佛子 此菩薩 得如是三昧智力 以大方便 雖示現生死 而恒住涅槃 雖眷屬圍 而常樂遠離 雖以願力 三界受生 而不爲世法所染)…."

위 경문에서 보듯이 세상에 함께 살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원력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항상 적멸한 열반의 도를 여의지 않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원력수생(願力受生)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정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 포교에 나선 법사들은 꼭 이 부분을 애독해야 하리라. 원행지(遠行地) 보살의 큰 원력과 방편의 힘이 있고서야 비로소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중생의 욕구에 따른 방편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이렇게 십지 수행이 무르익는 즈음에, 서울의 한 곳에서는 그동안 동국역경원이 주도해 온 한글대장경 역경불사가 회향되어 그 기념법회를 열고 있으리라. 참으로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 아니겠는가! 오랜만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대지는 온통 6종으로 진동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글대장경을 읽는 불자들은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 삼계는 오직 한마음 뿐이다

### 번뇌 물들지 않는 화광동진이 보살정신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삼계(三界)에 있는 것이 오직 한 마음 뿐인 것(三界所有 唯是一心), 여래가 이것을 분별하여 열 두 가지(有支)라 말하였으니, 다 한 마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皆依一心 如是而立)이로다. 일을 따라서 생기는 탐욕이 마음과 함께 나나니, 마음은 식(識)이요, 일은 행(行)이라. 행에 미혹함이 무명이며, 무명과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나는 것이 이름과 물질이요, 이름과 물질이 증장한 것이 육처(六處)요, 육처의 셋이 합한 것이 촉이요, 촉과 함께 나는 것이 받아들임이요, 받아들임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으로 거두어 버리지 아니함을 취함(取)이요, 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이 유(有)요, 유가 일으킨 것이 나는 것이요, 나서 성숙함이 늙음이요, 늙어서 무너짐을 죽음이라 하도다.'"

이처럼 십지법문이 제7 원행지에서는 방편지혜를 잘 닦아 37가지 보리분법을 만족하게 된다.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경문을 잠시 보자.

"불자여, 이 보살이 이러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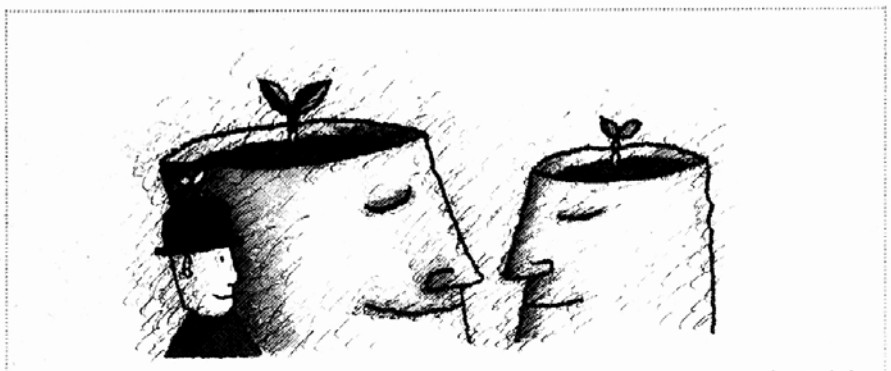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진리 보려면 전체를 보라

## 불교와 과학 〈42〉

19세기 말경, 생물학 분야에서 형태발생학적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형태발생학은 진화론의 한 가지이지만 진화론적 사유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현대 분자유전학의 관점에서 볼 때 형태발생학이란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 안에 자신의 형태를 기억하는 유전적 인자가 들어 있어 그로부터 생식세포를 통한 형태발생과 동일한 형태발생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생물학에서 형태발생학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주 드는 사례는 도마뱀의 잘린 꼬리의 경우이다. 잘린 꼬리는 다시 스스로 같은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재생된다. 그것은 잘려 나간 꼬리 연결부위가 꼬리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복원 기능이 체세포 안에 자체적으로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 형태인식과 인연

**인과 연 하나하나 나누어 이해하면**
**씨가 싹이 되는 연속과정 알수 없어**

이후 이러한 사유방식은 경험주의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을 우리는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이라고 부른다. 형태심리학은 인간의 인지구조가 언어의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인지과정 말고도 종합적이고 심상적(心象的)인 형태를 통해서 인지되는 과정을 특히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갤러리에 걸린 한 폭의 그림을 볼 때, 추론적 인지보다는 형태적 인지가 먼저, 그것도 저절로 작동한다.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림의 화폭을 잘게 나누어서 인지한 다음 그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전체 그림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인지하며 그것을 마음 속에 담아 하나의 심상으로 만들어 이해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형태학적(Gestalt) 인지라고 말한다.

다른 예를 보자. 책을 자주 접한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한 폭의 그림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듯이 문장 혹은 문단 전체를 한꺼번에 인지하고 이해한다. 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분석적 인지를 주로 담당하는 좌측 두뇌와 종합적 인지를 주로 담당하는 우측 두뇌를 골고루 쓰기를 연습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은 먼저 사물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사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서구 근대 인식론은 이 문제를 갖고 300년이나 논쟁을 벌여 왔다. 흄과 같은 경험론자는 사물의 경험적 지식에 중점을 두었고,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론자는 인간의 마음에다 인식의 출발을 두었다. 그 후 칸트는 감각을 뽑어내는 지각경험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틀이 동시에 작용해야만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칸트의 인식론은 흄의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종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칸트의 인식론과 유사한 형태심리학은 한번 인식된 과정을 다음 번에 그 과정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기억하는 마음의 틀을 중시한다. 기존에 기억된 사물 지각을 연상하는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사물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독자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유식론의 아라야식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다.

불교의 유식론을 서구철학이나 과학의 장르와 직접 비교하는 일처럼 우스운 일도 없지만,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쪽 사유의 큰 틀을 대비하는 일은 흥미로울 수 있다. 서구 심리학과 달리 유식론은 궁극적으로는 원래 지녔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그런 흔들림 없는 대원경지(大圓鏡智)의 광명한 지혜를 되찾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유식론은 단순히 심리학과 비교될 수 없는 도솔천의 길을 찾는 일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유식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헛된 감각지조차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것이라서, 감각지의 다양한 현상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일 역시 중요하다.

유식론 중에서 아라야식은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이라고도 한다. 종자가 싹이 나려면 건실한 씨앗이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영양분 있는 흙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업에 의해서 싹이 나는 결과가 형성된다. 철저한 인과론이지만, 그 인과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인과의 원인에 해당하는 인연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종자를 인이라고 한다면 흙은 연으로 비유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인과 연이 하나의 마음 속에 용융되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마음의 실천은 각(覺)을 이루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되기도 한다. 인이 연을 기억하듯, 연이 인 속에 녹아서 몸과 마음으로 체득된 상태를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심리학의 분절된 인식 과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는 형태적 인과관계를 찾는 일은 진리에 가깝게 다가가는 여정에 조금은 비유될 수 있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chiak sangji ac kr

# "모두 내형제" 일깨워 사랑과 평화 심어

## 지구촌 불교 / 美 교도소 교화프로그램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가 힐스보로프(Hillsborogh) 등 7개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심을 기초로(Faith-based)'라는 종교교화 프로그램이 화제다.

AP 통신은 8월 24일 '플로리다 교도소들, 신심삼매(信心三昧)에 빠지다(Florida Prisons Turning to Religion)'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플로리다 주 교도소 관리위원회가 종교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사한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플로리다 주 정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신심을 기초로'라는 종교교화 프로그램은, 플로리다 대학교 사회연구소가 97년 텍사스에서 개최된 사회학 세미나에서 처음 발표한 것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재소자 스스로 내면에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수행법을 토대로 개발한 교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정기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고, 교리 공부를 통해 참회하고, 각 종교 인사 혹은 도반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구성됐다.



◇미 연방 교도소 그린 해븐(Green Haven)의 재소자들이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 플로리다大서 불교 등 수행법 활용 개발
### 재범률 '뚝' … 2년만에 7개 교도소 확대

이 교화 프로그램은 99년 플로리다 주지사 J.부시에 의해 데이토나 비치(daytona beach) 교도소에 처음 채택됐다. 이후 플로리다 주정부는 2년간 450만 달러(약 6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힐스보로프 로와(Lowa) 등 7개 교도소로 확대, 실시했다. 여기에 4백여 재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힐스보로프 교도소를 방문한 교도소위원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재소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효과를 실감했다.

이 곳에 수감된 크루즈(C.Cruz · 20 · 불교)는 "예불의식에 참여 과정에서 평온을 찾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잊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흉악한 살인청부업자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은 것이다.

라미레즈(A.Ramirez · 20 · 기독교) 역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두가 내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강도와 장물거래로 올랜도(Olando) 교소도에서 5년 동안 복역해 오다, 지난해 종교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는 그는 "마약도 끊게 됐다"고 덧붙였다.

힐스보로프 교도소의 종교교화 프로그램에는 불교를 믿는 크루즈 외에도 32명의 재소자들이 참여해 기독교, 이슬람교 등 자신의 종교 전통에 따라 의식을 집전하고 교리를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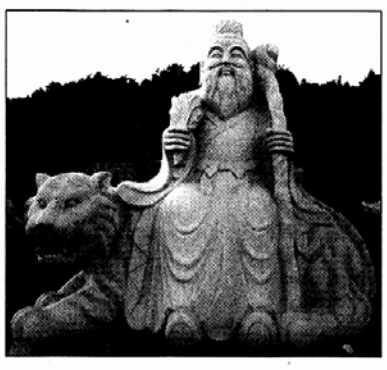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天蕓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 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447-9114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보존처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죽림사 세존괘불탱(보물 1279호).

보존처리 후 →



◇보존처리 전 크기나 손상상태를 치밀하게 조사한다.





◇바탕 재료가 밀려 올라가 심하게 어긋났던 화면이 제모습을 찾았다.



## 불화 되살리는 '보존 과학의 힘'

# 수월관음도 2년 수술 '6백년전 원형 회복'

### 해체-건식-짜깁기-표장 거쳐
### x레이 · 현미경 · 적외선 촬영 동원
### 소맥전분풀 10년 삭였다 사용
### 동국대 · 승가대 보존학과 신설 필요

1998년 보물 제1286호로 지정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14세기)는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우선 1991년 미국 소더비 경매장에서 고려불화로는 최고가인 14억2천만 원에 경매돼 국내에 들어온 것이 그러하다. 고려불화 자체가 국내에선 희귀해 10여 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수월관음도는 당시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점이 유일했다. 6백년이 넘도록 화려한 색채를 자랑했던 수월관음도는 그러나 2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조선시대 때 덧칠을 하는 바람에 원형이 많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불화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본래의 '화려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낡고 손상된 불화에 본래의 생명을 불어넣은 '과학적 보존처리' 덕분이다.

사실 불화를 비롯한 서화의 보존처리 역사는 긴 편이다. 일반적으로 회화는 그림이 손상된 후에나 비로소 보존처리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예로부터 선조들은 그 이전에 이미 그림을 어떻게 보관하고 취급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처치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당 나라 때의 장언원이 〈역대명화기〉에서 표장재료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문인이나 직업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부터 보존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보존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었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보다 나은 보존처리방법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다.

수월관음도 보존처리를 맡았던 박지선 교수(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는 "불화는 재료에 따라 제작기법과 손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존과학이 기존의 방법과 다른 것은, 보존처리에 앞서 X-ray와 현미경, 적외선 촬영 등 과학적 장비를 동원한 재료 분석을 통해 당시의 제작기법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보존처리를 받으러 오는 불화들 대부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중환자들"이다. 얼마 전 박 교수가 보존처리를 맡았던 죽림사 괘불(보물 제1279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에 수리할 때 화면 연결을 정확히 하지 않아 그림이 어긋난 부분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심하게 깎인 부분과 결실부분이 많았다. 화면 우측 중 하단은 비단과 삼베가 많이 밀려 올라가 화면이 심하게 어긋나 있었다. 현미경 촬영으로 바탕재질 및 안료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림 전체가 6폭의 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간의 2폭은 비단이고 그 좌 우는 각각 삼베를 2폭씩 댔다.

불화 보존처리에서는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 못지 않게 새로 교체하는 재료와 원 재료의 물리적 힘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두께, 강도, 수축 팽창율의 차이에 따른 힘의 균형이 무너져 오히려 그림에 손상을 입힌다. 안료 역시 열화처리를 통해 약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조사와 기록, 해체, 건식 클리닝, 아교 보강, 배접지 제거, 결실 부분 짜깁기, 배접, 표장 등을 거치는 불화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잘못된 보존처리는 오히려 그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컨대 수월관음도를 보존처리할 당시, 원 작품의 대나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후대에 누군가가 시커멓게 덧칠한 것을 X선 촬영을 통해 확인했으나 두 그루 중 한 그루는 끝내 복원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손상 지도에 표시했다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배접에 사용하는 풀은 보존처리에서 가장 신경을 쓰아 하는 부분이다. 후대에 보존처리를 할 때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다. 풀의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그림이 딱딱하게 되어 쉽게 깨이게 되고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또한 훼손이다. 이때 무리하게 배접지를 떼어내면 그림까지 망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배접에 쓰이는 풀은 밀가루에서 단백질만 제거한 소맥전분풀을 10년 정도 삭였다가 사용한다.

불화의 보존처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의 전통적인 표장 형식이 잊혀져 간다는 점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표장 형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전통의 표장 형식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새로운 비단에 새로운 비례로 일본풍의 한국 표구가 형성되어 버린 것이다. 그나마 불화의 경우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많긴 하지만, 최근 불화 도난 사건이 잦아지면서 소장처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 그림의 밑부분을 잘라버린다든지, 테두리가 상했다 하여 그 위에 비단을 덧대어 버리는 경우가 잦다.

국내 불화의 과학적 보존처리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과학실이 생긴 것은 1975년이지만, 서화 보존처리실은 1990년대 초에야 생겼다. 그나마 불화의 보존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제는 중앙승가대나 동국대에 문화재보존학과를 신설해 교계 스스로 불화를 비롯한 성보 보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권형진 기자
사진제공=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 "보호 최우선…모사품 전시해야"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박지선교수

국내 몇 안 되는 불화 보존처리 전문가인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박지선 교수는 불화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급 불화들은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대신 모사품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예불의 대상이기도 한 불화 대신 모사품을 건다는 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본 등에서는 불화 보존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 있는 얼룩 하나, 결손부분 하나까지도 그대로 옮겨 그리는 방식을 현상 모사라고 하는데, 현상 모사한 작품은 원래 불화를 대신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괘불의 경우 실제로는 문화재급을 소장하고 있으나 너무 낡아 야외법회에서는 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모사는 단순히 '베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불화 보존 차원과 기법의 전승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서울대 회화과 미술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박 교수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일본 교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회화와 서적류 문화재 보존처리를 배웠고, 1994년부터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보물 1286호인 고려시대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고려불화 지장시왕도(보물 1048호), 죽림사 세존괘불탱(보물 1279호),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126호), 화엄사 5층 석탑 출토 다라니경(보물 133호), 경주 나원리석탑 내 금동사리함에서 출토된 종이류 유물 등 국보급 문화재들이 그의 손을 거쳐 원형을 되찾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소맥전분풀을 이용해 배접하는 모습.



정세채와 떠나는

## 선·식·기·행

### 황정죽



## 오장 편안하게…골수 · 골근 '튼튼'

이순신 장군(1545~1598)은 전쟁에서 늘 승리했을까? 그렇지 못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뼈아픈 패배의 교훈이 있었기에 중과부적의 임란에 맞서 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1587년, 이순신이 조산만호라는 벼슬로 두만강 하류의 녹도에서 둔전(屯田)을 관리하며 국경을 수비하던 시절, 시전부족(時羨部族 · 여진족의 무리)이 침입하여, 양민 160여 명이 끌려가는 패배를 겪었다. 이 일로 함경북도 병마사 이일은 이순신을 투옥하고 극형에 처해 달라는 장계를 조정에 올렸다. 하지만 선조는 훗날 조선의 운명을 건질 장군임을 알아보기라도 한 듯 극형 대신 곤장형에 처한 후 삭탈관직하여 백의종군토록 조치했다.

울분과 괴로움에 찬 이순신 장군은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약초꾼으로 위장한 여진족 병사들이 은밀하게 짐을 옮기는 장면을 목격한 이순신은 그들의 뒤를 밟았다. 궁금증은 엄마 가지 않아 풀렸다. 여진족이 근접전에서 뱅뱅할 수 있었고 엄동설한에도 용맹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에서 구해다 먹는 황정에 있었던 것이다.

장군은 그날부터 병사들을 위해 황정을 넣어 밥을, 밤참으로는 황정죽을 끓여 내도록 했다. 그 결과, 병사들은 백병전에서도 놀라운 정신력을 발휘했다. 이듬해 1월 14일 여진족 2차 정벌이 시작되었고 이때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이순신은 복직되어 정읍현감으로 부임했고,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했다. 이순신은 가는 곳마다 병사들에게 황정을 먹이도록 했다. 그것이 임진왜란의 성웅 이순신 장군에게 연속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무형의 힘이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황정 20g, 구기자 10g, 현미찹쌀 100g, 대추 약간.

**요리법** ① 황정은 잘게 부수어 물에 불리고 현미찹쌀도 충분히 불린다.

② 황정, 구기자, 현미찹쌀, 대추를 넣고 죽을 끓인다.

* 대추는 구기자의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준다.

**효능** ① 기를 보해주고 오장을 편안히 하여 골수와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② 예로부터 노화를 예방하는 신비의 약재였다.



##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 뇌암선사 '一貫'

선사의 법명은 보우(普雨), 법자는 뇌암(懶庵), 호는 허응당(虛應堂)이다. 선사의 출생과 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허응당집〉, 〈뇌암잡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중종 4년(1509)에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게 통설이다. 선사는 유년에 양친을 여의고 절(寺:양주 용문사로 추정)에 들어가 지행 선사의 행자로 몇 년 보낸 뒤 지행 선사를 따라 금강산 마하연에 들어가 수계하였다.

용문사로 돌아온 선사는 23세까지 불서와 유서를 공부하고, 다시 마하연에 들어가 용맹정진하였다. 6년이 되는 해 어느 날 선사는 흐르는 물 소리를 듣고 활연대오하였다.

일관(一貫)
一貫千殊妙聰明(일관천수묘총명)
森羅萬象都自己(삼라만상도자기)

## 일념으로 망상 천만번 끊어 불법의 지혜 얻으니

일념으로 망상을 천만번 끊어 불법의 지혜를 얻으니,
천지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선사는 마하연에서 내려와 안변 석왕사를 거쳐 은심암에서 한철을 보내고, 함흥 서쪽에 있는 백운산 국계암에서 수년간 가행정진하였다. 다시 호남을 향하여 내려가다 병을 얻어 천보산 회암사의 차안당에서 사경을 헤매던 끝에 일어나 오송(悟頌)을 지으셨다.

도산(道山)
以道名山意欲觀(이도명산의욕관)
杖藜終日苦躋攀(장려종일고제반)
行行忽見山眞面(행행총견산진면)
雲自高飛水自湲(운자고비수자원)

도라 이름 지은 산을 보고 싶어서,
지팡이 짚고 하루 종일 고생고생 기어오르니.
가고 또 가다가 홀연히 산의 참모습 보았노라,
구름 절로 높이 날고 개울 물 절로 졸졸 흐르네.

선사는 봉은사의 주지 명곡대사가 인퇴(引退)하면서 주지에 추천되었다. 선사는 명종(明宗) 3년 12월 15일에 문정왕후로부터 봉은사 주지로 임명받아 징부(徵赴)하였다.

선애(禪曖)
心本虛明沒惹塵(심본허명몰야진)
纔懷修鍊隔三千(재회수련격삼천)
非臺古鏡光常照(비대고경광상조)
無樹菩提體自圓(무수보제체자도)
隱隱俯仰行坐裏(은은부앙행좌리)
昭昭談笑視聽邊(소소담소시청변)
迷人喚作精神會(미인환작정신회)
識者還知最上禪(식자환지최상선)

마음은 본래 허명한 것으로 티끌을 일으킴이 없는 것, 도(道)를 닦는다는 생각을 함으로 3천의 사상(事像)이 가로 막힌다.

대(臺)가 없어도 고경(古鏡)의 광명은 항상 비추고, 나무는 없어도 보리(菩提)는 스스로 원만하다.

은거하여 깊이 행하고 앉는 속, 맑고 맑은 소리 또 보고 듣는데,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정신세계라 하나, 식자들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선지(禪旨)로다.

구름과 반짝이는 별 그리고 밝은 달도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른바 천지만물은 나와 하나이며, 내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기(我氣)가 순(順)하면 천지의 기(氣)도 순하다고 선사는 자주 설하였다. 또한 일동(一動), 일정(一靜), 일어(一語), 일묵(一默)이 천리(天理)의 본연에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선사는 회광(回光)하는 경시성불(經是成佛), 즉 염불로서 마음을 돌아오게 하여 반조하는 선을 수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사는 우주의 근본진리에 계합하여 일생을 불교중흥에 헌신하시다가 유생들의 탄압에 제주도로 유배되어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참형되었다.

## 가까이서 뵌 큰스님

# 월운스님

봉선사 조실

# "새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인데…"

하루 하루 급속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분야를 고집하며 한 우물을 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운 세월을 한곳에 머물며, 소리없이 대불사를 일구어온 분이 계신다.

바로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이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봉선사로, 1차 번역사업 완간 회향법회를 앞두고 있는 〈한글대장경〉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한 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하고, 그 태양과 바람사이로 잠자리들이 한가로이 노니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에서 월운스님을 만났다.

"스님, 지난 4월에 조실에 추대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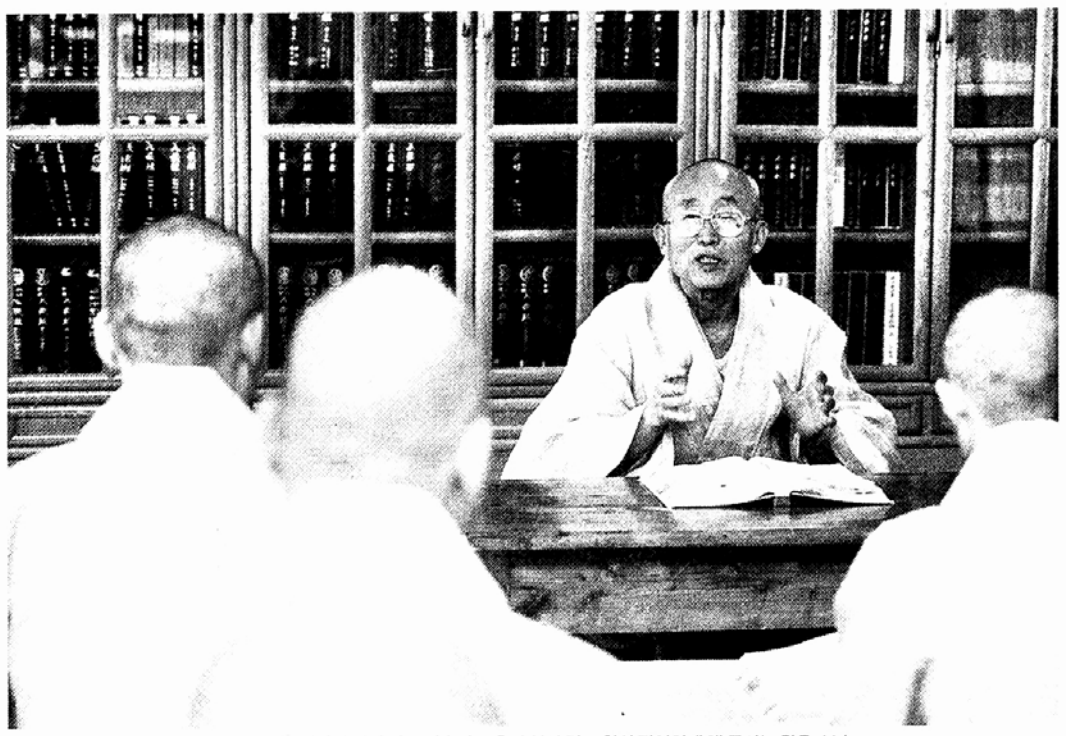
"조실이라는 건 껍데기를 만드는 거야. 내 생각에 조실이란 이 다음에 죽을 순서를 정하는 자리 같아. 어떤 신도는 내가 그 방으로 가니까 울어. 그 방이 봉선사에서 주석하셨던 노스님들이 돌아가신 방이니까, 내가 죽을 차례가 되서 그 방에 들어간다고 말이야. 그런데 신도들이 바로 본거 같아."

스님은 조실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조실 그러면 '넌 이게 병이야 고쳐!' 하고 호령을 해야 하는데 나 보다 더 많이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를 부처님 보듯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공허한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주지스님이 날 위한다고 즈실 추대식 열면 그날도 그랬어. 나는 지금 조실된 실감이 전혀 안난다고. 주장자도 주고, 털이개(불자)도 줬지만 모두 방에 걸어 놓을 테니, 여러분이 알아서 자기 조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끌고 다니라고 말야. 내 말 듣고 끌려올 놈이 없는데 뭐. 내가 잘 알아."

'조실'이라는, 절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자리를 구체적으로 거론해 말씀하시면서, 스님은 자리나 직분 또한 허망한 이름이고 진실로 필요한 것은 자기자신이 직접 목숨을 걸고 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 '자기 조실 자기가 만들어 끌고 다니라' 고.

조실이 되시면서 스님의 일상에 적잖은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이다. 법회 때마다 하던 법문도 조실이 되고 나서는 자주 못하게 되셨단다. 사찰의 가장 큰 어른이신 만큼 4월 초파일과 7월 보름날인 백중, 그리고 동 하안거 결제 해제 때에만 법문 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법문시간 또한 예전에 비해 많이 짧아졌다. "다른 선사들처럼 '이것을 알겠느냐?' 하고 짧게 법문을 하라는 구만."스님은 법문시간이 짧아진 이유를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했다.



◇누구를 대하거나 가식 없고 겸손하고 유머 섞인 말로 항상 편안하게 해 주시는 월운 스님.

> "불교 믿는 불자라면 명분 끄달리지 말고 자신 스스로 다스려야"

기자는 대학시절 봉선사에 수련회를 온 적이 있었다.

"스님 제가 대학생 때 봉선사에 와서 절 마당을 걷고 계신 스님께 법문 좀 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렸더니 뭐라 하셨는 줄 아세요? '법문은 무슨 법문이여, 새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인데 내 법문은 들어 뭐할려고'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요즘도 그러세요?"

"그랬어!" 스님은 잠시 그런 때가 있었나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조실 됐는데, 그 때와는 달라져야지. 그때는 새소리, 물소리 했지만 지금은 물소리, 새소리 하지. 허허허…" "호호호…"기자와 스님 사이에 한동안 즐거운 웃음이 오갔다.

스님께 10여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으시다고 말씀드리니 스님은 또 "도(道)가 안 늘었다는 얘기지 뭐. 근데 어떻게 변치 않어. 변했지 많이 변했어" 하신다.

스님을 처음 뵌 것은 10여년 전 이었지만 스님은 그 훨씬 전부터 봉선사에 주석하고 계셨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늘의 봉선사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스님은 6.25 전쟁때 소실된 봉선사를 오늘의 모습으로 중창하신 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7년여를 거슬러 올라간 1960년대 중반. 스님은 은사인 운허스님을 따라 다니다 봉선사 일을 맡게 되었다. 그때 고찰이었던 봉선사 당우들은 전쟁 통에 모두 소실돼 대웅전도 없고, 기거할 요사채 조차 없었다. 건물은 커녕 사람 살기도 힘들 정도였다. 스님은 운허스님의 뜻을 따라 봉선사로 보따리를 싸들고 들어가 한동안 움막을 짓고 살았다. 한 사람 먹을 쌀도 없을 정도로 궁색한 살림 속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스님이 직접 꾸려가야 했다. 그 무렵 어느 스님이 봉선사 운하당을 다 지어놓고,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병명이 영양실조였다 하니 그 궁핍하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스님은 전쟁으로 소실된 봉선사의 당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원해 나갔다. 봉선사 보다 형편이 나은 절의 스님들이 뭣하러 그 고생을 하느냐며, 그만 두고 다른 데로 가라고도 했지만 스님은 은사이신 운허스님이 계시고, 오랜 세월 그곳을 지켜온 조상 스님들이 숨쉬는 선산 도량이자 한국불교의 역사가 숨쉬는 본산인 봉선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혼자 밥 짓고, 빨래하며 살다가, 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나둘 모여든 젊은 학인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왔다.

37년 봉선사와의 인연이 그러했듯 스님과 〈한글대장경〉 번역사업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니 〈한글대장경〉 이 아니고서는 월운스님을 이야기 할 수 없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 입니다.

※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 문 의
033)263-1102
H·P 017)379-0590

* 전국대리점모집 *

목 불 상



법 상 가 마 불전함



특별 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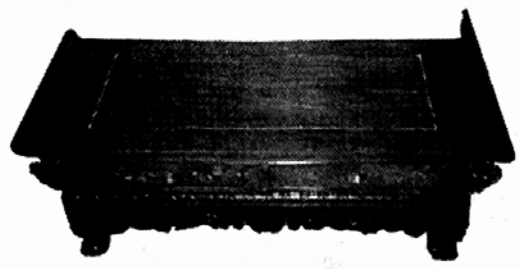


달 마 괘 록

달마대사의 원력을 느껴 보십시오
대 ◆ 가격 : 9만 5천원
중 ◆ 가격 : 7만 5천원
소 ◆ 가격 : 5만 5천원

경 상

전통 짜집기 공법으로 제작했습니다
◆ 크기 : 가로 100 cm
폭 37 cm
높이 45 cm
◆ 가격 : 29만원



최 고 의 작 품 만 을 최 저 의 가 격 으 로 공 급 하 는 불 자 기 업 성 불 조 각 원

**월운스님은?**

**후학양성 · 경전번역 매진**

봉선사 조실이자 동국역경원장인 월운 스님은 1928년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났다. 49년 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56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57~61년 통도사 강사를 지냈다. 63년 마산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65년 조계종 역경위원에 선임됐으며, 79~93년 중앙승가대 교수를, 83년부터 현재까지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을 맡고 있다. 93년부터 동국역경원장을 맡아왔으며, 주중에는 주로 봉선사에서 후학 양성과 경전 번역에 매진하고, 일주일에 한번 역경원에 직접 나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스님은 역경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경후원회도 만들었다. 5천여명에 달하는 역경후원자들이 매달 조금씩 정성을 보태고 있다.

봉선사에서 만난 스님은 심지어 지난 37년 동안 〈한글대장경〉에 소요된 원고지 양이며, 동원된 인원, 소요 금액까지 일일이 메모해서 설명하실 정도로 〈한글대장경〉 사업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셨다.

스님은 5일 열리는 회향식에서 역경원 창설과 운영에 애를 쓰신 분들의 위패를 모신다는 계획이다.

창설자인 운허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총장이었던 김법린박사,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신 ·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탄허, 자운, 청담 스님 등 '역경보살들'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도로 30여분의 위패를 모신다. 또한 스님은 〈한글대장경〉의 전산화까지 다 끝내면 역경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월운 스님은 7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후학양성과 경전번역, 못다 한 공부까지 병행하는 등, 엄격하고 철저한 생활로 주위에 귀감을 보이고 있다.

고, 월운스님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한글대장경〉이 있을 수 없다.

스님이 평생 역경이라는 외길을 걷게 된 것 또한 은사이신 운허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스님은 출가 전에 한학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것을 아는 분들의 주선으로 운허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이 출가할 당시에도 한국불교의 분위기는 참선과 기도가 주류였다. 스님 또한 참선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런 스님에게 운허스님께선 "경학을 하는 것도 수행의 길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스님을 이끌었다.

"돌아가신 운허스님은 내가 모시고 지내는 동안에 한번도 거드름을 피거나,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스님 당시만 해도 불경을 종이에 써서 준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었어. 그냥 말로써 법문하고서 '에, 모르느냐?' 하고 그치는 정도지. 근데 그때도 그 어른은 초파일이나 우란분절이 되면 손수 볼경을 프린트 하셔서 나눠 줬어요. 그걸 보면서 법문을 듣게 하고, 집에 가서도 읽을거리가 남게 그렇게 해 주셨던 거야."

솔직 담백하시기로 정평이 나있는 스님은 은사이신 운허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듯 했다.

스님의 솔직담백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일화 하나.

수년전 서울의 어느 절에서 백고좌법회를 열었을 때다. 65번째로 스님의 법문 차례가 되어 그 절을 찾았다. 스님은 항상 다른 곳에 법문하러 가기 전에 그 전 법사스님은 어떤 분이고, 청중성향은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법문했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법문 내용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 백고좌법화에서 스님에 앞서서 법문했던 분들이 다들 도가 깊은 고승들인지라 스님은 그분들을 능가할 법문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법회에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도인스님들이 이미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분들 근처도 못 가는지라 그저 제 분수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부잣집 고랑진미만 드시다가, 오늘은 가난한 집 만나서 우거지탕 밖에 없으니, 어디 한 번 잡숴 보시겠습니까"하고 스님이 말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불자들이 다들 좋다고 박수를 쳤고, 스님은 법문을 했다. 그 후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 백고좌법회에서 감명 깊게 법문을 들었노라며 연락하는 불자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은 고맙다고, 도대체 내 법문 중에 뭐가 그리 감명 깊었냐고 묻곤 하는데, 한결같은 대답이 "우거지탕이요!"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내 법문을 들었던 불자들이 다른 내용은 기억 못하고 우거지탕만 기억하는 거야. 나, 참!"하고 쑥스러운 듯 여기시지만, 당시의 불자들은 솔직하고 가식 없는 법문과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월운 스님의 인상을 '우거지탕'이라는 한마디로 가슴깊이 새겨놓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한글대장경〉 1차 번역사업이 끝나고 회향식을 남겨둔 요즘도 여전히 역경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스님은 새롭게 번역된 〈한글대장경〉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무리 제대로 된 번역을 했어도 읽는 사람의 수준이 모자라면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 〈한글대장경〉에 대한 해설서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같은 해설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경학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소신이다.

"제2의 역경사,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사실 잘못된 번역도 많이 나오고, 경학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모자라는게 오늘의 현실이야. 불교 경학을 고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많이 망가졌지. 내가 주지 하는 동안에도 신경을 쓰긴 썼지만 주지 내놓고는 솔직한 이야기로 대외적 간판은 역경원장이지만, 주로 차세대 강사, 내가 표현하는 말로 '차세대 장경각 주인'을 길러내는 일에 진력해 왔어. 종단 제

> "은사 운허스님 뜻이어 40여년 역경외길 한글대장경 1차 회향"

도상으로 학림이라는게 있어 93년에 학림에 등록해서 1기 6명이 졸업하고, 지금은 27기 8명이 공부하는 중이야."

스님은 후학들이 자신이 못다 한 일을 잘 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후학 양성을 위해 강단에 선다. 이른 새벽 일어나 예불을 모시고, 조금 앉았다가, 아침 공양을 하고, 7시 반부터 두 시간동안 강의를 한다. 그후에도 그냥 쉬지 않는다. 그 다음날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경전을 뒤져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차도 한잔 대접한다. 스님은 손님이 찾아와서 머문 시간만큼 잠을 덜 주무신다. 가끔 낮에 너무 많은 손님을 접대하느라 그날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다 못할 경우 한잠도 주무시지 않고 철야로 공부를 하신다. 올해 75세인 월운 스님의 일과는 이렇게 평범한 듯 하면서도 촌음을 아끼는 스님의 성품따라 철저하게 채워진다.

스님의 손가락에는 구멍이 나있다. 불쑥 내민 오른손 중지의 구멍. 스님 표현이 구멍인데, 사실은 움푹 들어간 그 구멍은 하도 오래 펜을 쥐어서 그 닿은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 굳은 살이 박힌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원고를 직접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글대장경〉 1차 번역 회향식을 앞둔 스님께 소감을 여쭈었다.

"얼떨떨해. 나 혼자 한 게 아닌데 감회가 어디 나 뿐이겠어. 볼 보살님들의 가피로 한 고비는 넘겼는데, 걱정이 많아. 전문으로 경전을 보는 사람이 볼 때 잘못된 게 나올 것이고,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불평할거 아냐.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흐뭇해. 욕을 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 이번 법회는 그동안의 작업을 회향하는 자리이자 방대한 양의 경권으로 간행된 〈한글대장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산화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가 되는 거지."

〈화엄경〉에 어두운 밤 보물은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다고 했다. 그 어두운 밤을 가는 중생들에게 등불을 밝혀주기 위해, 돌아가신 운허스님의 대를 이어 그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월운 스님. 이제 겨우 등불을 밝혀 놓았지만 손에 쥐고 들고 갈 일이 걱정이라는 스님의 겸허한 말씀에 자꾸 머리가 숙여졌다. 그 등불을 활용하고 안하고는 우리 불자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 보았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향산스님**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삶의 위안이며 등불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향산(香山) 스님은 세속의 깨복쟁이 친구 같은 도반이다. 그를 찾아갈 때마다 둘이서 팔베개를 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헤어지는 일이 또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 든다. 걸망 지고 홀로 떠도는 삶이어도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용기가 생긴다. 중노릇 십 년을 넘기면 비로소 도반의 정을 안다더니, 내가 지금 그런가보다. 요즘 들어 도반의 조그만 관심과 잔잔한 손길에도 울컥 가슴이 메어진다.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나는 크게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다. 그 때 간병실에 누워 이불을 덮어 쓴 채 하루 종일 오한에 시달리다가 해질녘에야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깨어보니 옷은 후줄근하게 다 젖어 있었고 누군가가 내 머리맡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줄곧 물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바로 향산 스님이다. 그는 그때 간병(看病)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환자를 위해 죽을 나르고 약을 지어오는 등의 간

**논리정연-해박 '부루나존자 닮아'**

**항상 헌옷…"옹색해 보이지 않는다"**

병인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다음날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그 때 나는 어렴풋이 도반의 정 같은 걸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소소한 정이 수행 길에서 얼마만큼의 위안과 힘이 된다는 것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일을 그는 까맣게 잊고 지내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두고두고 그 손길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일로 인해 아직도 나는 수행길이 지치고 힘들면 그를 찾아 나그네의 시름을 달래고 정을 나누고 있으니까 말이다.

한 때 향산 스님은 오래된 누비옷을 입고 있었다. 옷이 낡아서 군데군데 천을 덧대어 기운 곳이 더 많았던 옷이었다. 은사 스님이 입던 옷이라고 했던 것 같다. 나는 지금껏 그가 새 옷 입는 걸 보지 못했다. 항상 누군가가 입던 헌 옷을 다시 입고 다닌다. 그래서 그에게서 더러 옷맵시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 바지와 윗도리가 한 벌이 아니라서 작아서 달랑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커서 헐렁해 보이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옹색해 보이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것이 스님의 또 다른 매력이다. 향산 스님을 보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수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리지 않고 사방에 풍긴다는 경구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향산 스님은 참 재미있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다. '심 목사'라는 별명이 그것인데, 부흥회하는 목사처럼 막힘 없는 그의 언변 때문에 속가 성(姓)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참 정연하고 해박하다. 그래서 나는 종종 그를 말할 때, 부처님의 십대제자인 부루나 존자를 닮았다고 한다. 부루나 존자는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 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일단 인정하고 다음으로 종교심을 싹트게 하는 포교법을 구사하였다고 한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방적 자기 주장은 편견이나 아집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향산스님은 백점 짜리 포교사다. 그와 앉아 이야기해 보면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가를 알 수 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전도사가 말을 붙여 오더란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얼마든지 들어 주겠다고 하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한시간 가량 말하던 전도사가 이제 다 끝났다고 일어서려 할 때 이번에는 스님이 그의 허리춤을 잡았다. 이제부터 자신의 말을 들어줄 차례 라며 그를 다시 앉



히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 때 스님은 내리지도 않고 역을 몇 바퀴 돌면서까지 부처님 말씀을 하였단다. 나중에는 그 전도사가 지쳤다는 듯이 슬그머니 지하철에서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때 스님도 같이 내려 그 사람 집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날 그 전도사에게서 다시는 스님들에게 전도하는 무례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헤어졌다고 한다.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전도행위에 대한 스님 나름의 일침이었던 것이다.

강원을 졸업하고 스님은 오랫동안 미얀마에서 수행하였다. 동남아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몇 년 뒤 돌아왔을 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깡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보현보살의 십대원(十大願)중에 유독 상수불학원(常隨佛學願)을 좋아한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보현보살의 서원이 이제는 그의 원력이 된 것 같다.

지금 향산스님은 법주사 강원의 강주(講主)를 맡고 있다. 일찍이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던 스님이 학림(學林)으로 들어가 경전을 강의하는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이 시대의 훌륭한 부루나가 되기를 발원하고 또 발원한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중국 문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 전세기

실크로드에서 저렴한 경비로 알차고 가장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는 전세기편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문수보살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순례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오대산 중대
▶5만 여불의 불상이 모셔진 운강석굴
▶절벽에 제비집처럼 매달린 현공사
▶신라 황룡사9층 목탑의 일면을 엿볼수 있는 중국최고의 응현목탑
▶비구니 스님 300여분이 수행하고 있는 보수사에서 한중친선법회

☞4박5일 69만원!!

순례기간 : 2001년 10월 6일~10일(5일간)
신청기간 : 2001년 9월15일까지

| | | |
|---|---|---|
| 1 | 10월6일 | 인천공항 집결/출국수속 후 인천 출발 |
| 2 | 10월7일 | 태원도착 호텔투숙/조식후 오대산으로 이동, 도착후 불광사 불공삼장이 건립한 금각사, 장엄한 일주문이 있는 용천사 참배 |
| 3 | 10월8일 |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중대 등정, 보수사 한중친선법회, 천년고찰 현통사, 보살정, 탑원사,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조성한 수상사, 오대문수보살을 모신 대라정, 벽산사 등 참배 |
| 4 | 10월9일 | 오대산 출발 응현목탑, 현공사, 운강석굴 참배후 대동 도착 |
| 5 | 10월10일 | 대동출발/태원 도착후 고색창연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모신 숭선사, 쌍탑사, 태원 출발/인천 도착 |

★포함사항 : 항공, 호텔, 식사, 입장료, 비자비, 중국공항세, 보험료, 가이드팁 등
★불포함사항 : 인천공항세
★구비서류-여권만 제출(유효기간이 6개월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함)
여권 없는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대 5만원


오대산의 대찰 현통사


운강석굴의 대불


최고 최대의 응현목탑


불사리를 모신 탑원사

성지순례안내
인도성지순례 9일, 13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파키스탄 성지순례 7일
캄보디아, 베트남 6일
티벳 성지순례 8일, 22일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항상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크로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 상 원 합장

음악회 두장의 초대장

# ♬ 가을산사 울려퍼질 音의 향연 ♬

## 13일 진천 보탑사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

## 15일 봉화 청량사 '받는 불교서 주는 불교로'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을 얻는다. 또한 음(音)과 음(音)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물코의 매듭처럼 하나 되게 하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산사에 가 보자. 좋은 사람과 함께, 음악이 있고 자연이 숨쉬는 깊은 산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향연을 찾아보자.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충북 진천군 진천읍 보련산 자락의 연꽃골에 자리한 보탑사에서 열리는 '보탑사 산사음악회'가 13일 저녁 8시에 막을 올린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보탑사 산사 음악회는 이미 진천지역의 대표적인 연례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보탑사 음악회의 특징은 참가자가 전원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올해의 주제는 '온 마음으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자는 것'이다.

지난해의 성황에 힘입어 올해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동원씨와 김국환씨 등 중장년층에 인기 있는 가수들을 비롯해, 국악과 가요를 접목시킨 소리군 장사익씨의 공연도 준비된다. 또 우리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준호 손심심 부부가 신명나는 소리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남성합창단과 삼선포교원 합창단이 아름다운 우리 가곡과 찬불가를 연주하고, 삼선포교원 승가대학 학인스님들도 평소 닦은 노래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스님의 승무 공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인 자연스님의 대금연주도 곁들여진다. 02)923-0582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천년의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해답이 궁금하다면 15일 저녁 6시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에서 열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찾아보자.

경북 봉화를 중심으로 안동, 영주, 풍기 등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산사음악회는 매년 열리는 청량문화제와 함께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적 색채를 강조하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특히 주지인 지현스님은 청량사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마을회관 등을 빌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법회를 여는 등 고정 관념을 깬 포교활동을 통해 경북지역 어린이 청소년 농민 포교의 중심도량으로서 청량사의 면모를 가다듬었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리꾼 장사익씨와 그의 국악 연주팀 노름마치, 가수 한영애, 안치환 등의 대중가수와 성악가 최조옹교수(안동대), 청량사 신도로 음대지망생인 이민영 양이 노래와 시낭송을 한다. 또 젊은 불자 국악인 성상희씨가 가야금 연주를, 하유스님이 법고연주를 할 예정이며, 김현숙 무용단이 살풀이춤과 불음가수 심진스님의 노래도 감상할 수 있다. 054)672-1446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좋은 사람과 함께, 음악이 있고 자연이 숨쉬는 산사음악회를 찾아가자.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장면.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 한용운 '님의 침묵'(4)

# 나라 잃은 설움 '님'에 대한 연민 알알이 녹인 시

〈님의 침묵〉의 화자가 보여주는 간절한 그리움은 시인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한용운이 1919년 3·1운동을 주도했으며 그 결과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백담사는 출옥 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도 생각났다. 그는 백담사에서 머물던 봄과 몇 개월 사이에 〈님의 침묵〉 90편의 시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던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시가 이미 성숙되어 있었고, 백담사의 안정된 환경 속에서 가슴 속에 저장되었던 시심(詩心)이 분출되어, 그는 터져 나오는 구절들을 단지 받아 적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의 착상은 감옥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의 수감생활 중에 시(詩)들이 마음 속에서 포도송이처럼 영글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둡고 고독한 감방 속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그때, 역설적으로 한국 시사(詩史)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위대한 '사랑의 증도가'가 태어났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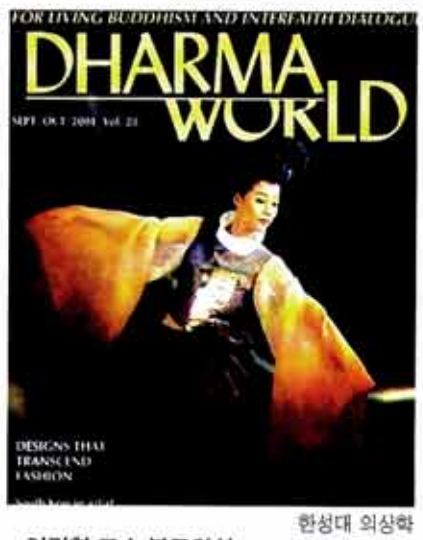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인생 다운 인생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 자(字)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울 난(難) 자이니라." 부처님은 인생의 길인 사성제 중에서 첫째가 고(苦)라고 가르쳐 주셨다. 깨달음과 열반으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사실에는 인생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위대한 사상과 예술이 나오는 것은 신비로운 인과의 섭리이다.

바다 속 진주조개가 입을 열고 닫을 때, 어쩌다 모래 한 알이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너무나 부드러운 조개 속살은 그 모래 한 알이 주는 껄끄러움을 참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죽어라 모래알에 분비물을 쏟아 붓는다. 그 분비물이 굳어져 부드럽고 영롱한 한 알의 진주가 탄생한다. 진주에게나 인간에게나 고통은 보석을 잉태하는 씨앗이다.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 동지들을 모아 불교의 자비와 평화정신에 입각하여 거룩한 3·1 평화선언을 선포하였지만, 선언에 서명한 33인의 대부분이 체포된 후 변절하여 해명서를 쓰고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 끝까지 남은 이는 한용운 한 사람 뿐이다. 나라 잃고 동지마저 잃고, 사방천지가 깜깜한 감옥 속에서 일제의 협박과 회유를 견뎌나가는 그 처절한 심정이 어떠했을까? 해방과 광복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1920년대 초반 모두 석방되고 홀로 감옥에 남아 민족의 가련한 운명에 눈물 흘릴 때, 그의 가슴 속에는 떠나간 '님'에 대한 연민과 설움이 북받쳐 올랐을 것이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용운은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찾지 않았을까?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입에서는 고려가요 한 편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가시리 가시리잇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이 노래는 그의 흥중에서 반복되며 수십 편의 버전(版)으로 확대되어 마침내 백담사에서 완성된 시가로 터져 나왔을 것이다.

■문학평론가




### 이기향 교수 불교의상 日 '달마월드' 표지사진

한성대 의상학과 이기향 교수의 불교를 주제로 한 의상 작품이 국외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의 작품이 일본 법화계열의 중요 종단인 릿쇼고우세이가이(立正校成會)가 발행하는 영문잡지 〈달마월드(DHARMA WORLD)〉의 표지사진으로 선보인 것. '패션을 초월한 디자인'이란 제하의 표지와 함께 커버스토리에서도 이교수의 〈법화경〉에 대한 해석과 의미,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한 불교의 세계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의 전문 예술잡지 〈오나멘트(ORNAMENT)〉에도 그의 작품세계와 불자로서의 인생관 등을 집중 보도됐다. 이은자 기자

## 누비장 김해자 씨 '누비전시관' 열다



◇누비 작업 중인 김해자 씨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씨가 지난달 경복궁 앞에 전통누비전시관을 열었다.

"우리 전통 누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누비의 전통을 이을 제자 양성"이 김씨가 전시관을 연 이유다.

현재 김씨의 문하에서 우리 전통 누비의 맥을 잇고 있는 수제자는 5명. "누비 작업 자체가 워낙 고된 노동을 요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누비의 전통을 살리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이들의 도움으로 전시관을 열게 됐다 한다.

지하 1층 지상 1층 총 18평 규모의 아담한 누비전시관에는 김씨의 누비 작품과 쪽, 홍화 염색작품 50여점이 전시 중이다. 김씨는 이곳에서 매월 둘째 목, 금요일에 누비강좌도 열 계획이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주에 문을 연 누비 공방에서도 작업과 제자양성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김씨는 "우리 조상의 정신과 지혜가 담긴 우리 옷 누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 문화소식

### 임효- '한지에 담은 仙境'

새로운 감각과 그윽한 운치의 비경을 그려내는 한국화가 임효씨의 초대전이 5일~18일 인사동 선 화랑에서 열린다.

임씨는 2년 동안 전국의 정자를 찾아다니며 여러 풍경들에 대한 감흥을 스케치하고, 이를 화폭에 재구성했다.

그같은 노력에다 그림의 바탕인 한지를 치자, 갈뭄, 쪽물 등 전통 염료로 염색해 5mm 두께의 질박하고 두꺼운 독특한 그만의 한지로 만들어 사용해 여느 수묵화와는 다른 느낌을 전한다. 그 한지 위에 먹으로 형태를 그려내어 한지의 특성을 한껏 살리고, 그 위에 다시 푸른 빛이 나는 보석가루를 아교에 섞어 발라 화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한국화의 경우 대부분 흰 여백으로 처리하는 공간에도 임씨는 꽃을 그려 넣어 생동감을 더한다. 이번 전시에는 200호 대작부터 2·3호 소품에 이르는 40여점이 선보인다. 02)734-0458



◇임효 作 '일어'



◇유향숙 作 '삼존불 II'

### 유향숙- '한국인의 얼굴'

틀 위에 표현된 삼존불과 아기보살의 미소, 어디선가 만난 듯한 소년의 얼굴. 5일~11일 인사동 공화랑에서 열리는 조각가 유향숙씨의 조각전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 미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사대부속여중에 재직중인 조각가 유씨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다. 02)735-9938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극락왕생복 1,400,000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삼베양말 30,000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목수건 20,000원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 한국禪 해외포교 35년 행적

### 숭산선사문도회 지음 '세계일화'



1966년 일본 신주쿠 홍법원을 시작으로 32개국 120여 개의 국제선원을 개설하는 등 우리나라 선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숭산(74 · 화계사 조실) 스님의 해외 포교 35주년을 맞아 숭산행원선사 전집이 나왔다.

숭산행원선사 문도회가 출간한 〈세계일화〉(불교춘추사)는 모두 3권. 1권 '가는 곳마다 큰스님의 웃음(해외 포교 35년사)' 은 스님이 8년여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해외포교의 첫발을 내디딘 일본 홍법원을 시작으로 홍콩, 캐나다, 인도, 폴란드, 중국 등 35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한국 선불교를 전한 행적이 담겨 있다.

2권 '큰 스님과의 대화' 는 스님의 구도일상과 해외포교현장의 살아 있는 체험이 실린 신문과 잡지의 인터뷰를 모아 엮은 대담집이다. 숭산 스님이 들려주는 포교이야기와 깨달음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화두는 마치 스님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온다.

3권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 간다' 는 법문집이다.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돌아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곧 그 자리임을 체득하라는 숭산 스님의 사상을 담고 있다. 또한 서양인들에게 알기 쉽게 불법을 전하기 위한 불교 안내서이자, 우리나라 선불교의 지침서인 〈선의 나침반〉원문도 실렸다. 값 각권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 다르마행은 현대병 처방전

### 베철러 '붓다는 없다'



'법천(法天)' 이란 법명으로 순천 송광사에서 10년 동안 수행했던 불교학자 스티븐 베철러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됐다.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의 '아하 붓다' 시리즈 두 번 째 권인 〈붓다는 없다〉가 바로 그것.

철저하게 서양의 시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놓은 이 책은, 건강한 삶을 해치는 온갖 집착과 중독에 허우적대는 현대인을 위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치유란, 붓다가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이 행해온 '다르마 행' 을 가리킨다. 다르마 행이란 삶의 바탕에 깔린 괴로움의 근본을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놓아버리고, 집착을 끊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고 닦는 과정을 말한다. 지은이는 이 다르마 행은 스님이나 신도뿐 아니라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연습이자 실천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평범한 언어로 다르마 행의 주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상 속에서 이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 마음 다스리는 명상법

### 주민황 '신비의 티베트…'



신간 〈신비의 티베트 명상법〉(숨)은 이미 세계 도처에서 생활 명상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티베트 명상 입문서다.

마음과 명상의 원리에서부터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등 지혜로운 명상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상' '나쁜 기운을 없애는 명상' '적개심을 없애는 명상' 같이 읽는 이의 상황에 맞추어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명상을 해도 좋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 사원에 깃든 '삶과 문화'

### '중국사원 문화기행' 바이화원 지음



중국 불교학자 바이화원(白化文) 교수가 1989년 내놓은 〈중국사원문화기행〉(원제 : 漢化佛教與寺院生活, 예경)은 왜 이 지은이가 '중국문화사 선구자' 로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불교학자로 경전 · 사원 · 문학 · 불교미술 등 불교문화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바이화원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사원 속의 문화와 미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한화불교와 사원생활' 이라는 본래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원 불교미술과 사원생활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풀이해 놓았다.



### 불상 · 전각 유래 · 배치 탐구

### '우리불교문화 원류' 찾기 단초

'사찰의 배치형식' 의 경우,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불상이 제작되면서 기념당 형태의 불전이 생기게 됐다는 설명에서부터 인도 초기 불자들의 수행 공간인 석굴 그리고 중국 사원 건립 유래와 사찰(寺) 어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낙양가람기〉에 대한 세심한 고찰은 중국의 고대 사찰 건축의 형식에 대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당 · 송대와 근대의 사찰 그리고 한화불교 사원의 전형적 배치 조감도까지 그려가면서 중국사원의 배치형식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간혹 중복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경전에서부터 고전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인용한 풍성한 읽을거리가 글의 세련미를 더한다.

중국의 불교미술과 문화의 중심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뉜다. 즉 '석굴' 과 '사원' 이다. 석굴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근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사적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책이나 논문의 수도 상당히 많다. 반면 사원의 경우는 문헌 기록은 많지만 실존하는 예가 적고, 남아 있는 것마저 명 · 청대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사원이 석굴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이 주는 정보는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사원문화나 미술에 대해 모호하게 해석해 왔던 일부 내용을 바로잡아 주는 구실도 한다. 또한 좀처럼 재판을 찍지 않는 중국 출판계의 현실 속에서 여러 번 재판을 낸것도 이 책의 가치를 알게 한다.

'불(佛)과 불교', '불상', '전당의 배치', '대장경과 장경', '탑과 경당', '불문 제자', '사원생활과 종교 활동'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옮긴이는 중국불교미술사를 전공한 용인대학교 문화재 보존학과 배진달 교수.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깨달음이 있는 중동 구도 여행기

### '자전거에 사막을…' 행창 스님 지음



〈자전거에 사막을 싣고〉(마당넓은집)는 독일 함부르크대학 인도학 · 티베트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행창 스님의 중동 여행기를 담은 책이다.

행창 스님은 1989년 인도 · 네팔 배낭여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동유럽 배낭여행 등 15년에 걸쳐 50여 국가를 여행했으며, 여행 중 느낀 그날그날의 단상을 일기로 남겼다.

이 글은 함부르크 한인 학생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종합지인 〈함지〉에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일간 인터넷 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지난 5월부터 '유라시아 자전거 횡단기' 를 연재하면서 국내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행창 스님은, 여행과 수행 그리고 학문을 화두로 삼아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 중동 지역을 횡단하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글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모든 현상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걷는 수행자의 지혜와 깨달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고행의 길에서 만난 사람과 공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은이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밭과 돌산을 지나면서 육신의 고통이 바로 업장소멸이라 생각하고,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본연의 '나' 를 찾는다.

때론 한가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지만, 동양인의 관점에서 중동인의 삶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신선하게 읽히고, 스핑크스, 사해, 오하시스 유적지 팔리마 등 풍성한 중동지역에 대한 소개는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된 행창 스님의 중동 5개국 자전거 횡단은 카이로까지 이어진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 새로나온 책



▲침묵과 설법(도영 스님 지음, 아름다운 세상)= 불자들에게 바른 신행의 길을 일러주는 신행지침서. 불교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초심자들을 위해 불교의 특성, 불교의 역사와 발전을 비롯해 교학, 선, 계율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설법자들을 위한 세시명절 법문도 실려 있다. 값 1만5천원.



▲한국인의 솜씨(손영학 지음, 다할미디어)= 나무 벼루, 다식판, 나무 꼭두, 옛 놀이기구들…. 우리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민속공예품과 생활용품들이다. 책은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이를 재현해내고 있는 장인들의 솜씨를 모아 소개한다. 고아한 생활의 향기, 여인네의 섬세한 손길, 풍요와 신명 속으로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의 살림살이에 깃든 선조의 혼과 지혜를 살펴 민속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의미를 일깨워 준다. 값 1만5천원.



▲한국사는 없다(이희근 지음, 사람과 사람)= 우리 역사의 출발점인 고조선으로부터 1894년 동학농민봉기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제기된 12가지의 주제들은 중 ·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운 역사 지식과 달라 일반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명쾌한 논증과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설득력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 값 9천원.



▲디어헌터(박민규 지음, 북앤피플)= 21세기 미래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홀로그램 우주설을 우울한 현대인의 자폐적 자아 찾기로 형상화한 과학 소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고독한 아웃사이더인 주인공의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주변적 인간의 좌절된 욕망의 허상을 리얼리즘과 환상의 수법을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값 8천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매튜버드 래리 로드스타인 지음, 이상원 옮김, 청림)= 이 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행복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은 생물학, 신경과학, 언어 그리고 인간 행동 및 심리에 관한 고대와 현대의 시각들을 접합시킨 자기 치유 프로그램이다. 핵심은 "말하는 그대로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이다. 즉 어떤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값 1만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 · 편 자 | 출 판 사 |
|---|---|---|---|
| 1 | 거울 | 원 성 | 이 레 |
| 2 | 선의 나침반 | 현 각 | 열 림 원 |
| 3 | 유식학 강좌 | 고 목 | 삼 양 |
| 4 | 삭발하는 날 | 현 진 | 호 미 |
| 5 | 산하대지가 참 빛이다 | 양 형 진 | 장 경 각 |
| 6 | 아, 일타 큰스님 | 김 현 준 | 효 림 |
| 7 | 성경엔 없다 | 고 준 환 | 불 지 사 |
| 8 | 화두융합과 초점 | 이 수 경 | 삼 양 |
| 9 | 영가천도 | 우 룡 | 효 림 |
| 10 | 사성제와 여래장 | 정 암 | 부다가야 |

도서 안내 : (02)737-0695


#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불교 신앙사에서 가장 굵고 깊은 맥을 형성하는

##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 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감히 불교 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

###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 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 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 와 함께 합니다.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유정참회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 "부여 능산리 =신궁터"

### 재야학자 서정록 씨 주장

### 문화재청 "절터 틀림없다"

한 재야학자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부여 능산리 절터는 '절터가 아닌 신궁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국 고대문화사 연구가 서정록(53) 씨는 최근 펴낸 〈백제금동대향로-고대 동북아의 정신세계를 찾아서〉(학고재)에서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는 백제 왕실의 조상신과 각종 신령들을 모시는 데 사용된 것"이라며 "향로가 발견된 능산리 유적지는 본래 〈일본서기〉에 전하는 백제 신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서 씨는 장식된 연꽃만으로 향로가 불교의식에 사용된 공양구이며 불교의 연화화생 사상을 담고 있다는 기존 통설을 전면 거부했다.

서 씨는 능산리 유적지의 건물배치가 '1탑 1금당 1강당'의 전통적인 백제 가람배치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학설에 대해서도 강당이 그 동안의 백제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2개의 본실과 회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들어 "성급하게 불교 사찰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 보편화되어 있던 '신불양립'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통설을 뒤엎는 파격적인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국립부여박물관 측은 "백제금동대향로 하나만을 놓고 단정할 순 없다. 불상의 광배조각, 목탑지, 사리감 등의 출토유물들을 볼 때 절터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역시 능산리 유적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면서 "95년 출토된 백제창왕명사리감의 명문내용으로 보아 왕실에서 세운 국찰이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형진 기자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

## 전문학술지 '불교원전 연구' 창간

# "범어-빨리어 문헌연구 활성화"

### 원전 단순 번역 넘어 연구자 견해도 제시

### "한문 대신 국어 사용 많은 사람 쉽게 이해"

불교학 연구의 기초학문 격인 원전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불교 원전만을 다룬 전문 학술지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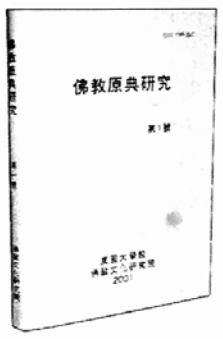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8월 31일 창간한 〈불교원전연구〉는 불교원전의 판본과 필사본을 통해 불교 문헌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최초의 불교원전 관련 전문학술지다.

일차적으로 불교 문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불교학에 관련된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전연구〉 창간은 불교학 연구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년에 두 차례(6월과 12월) 발간될 〈원전연구〉는 한문 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불교학 풍토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문헌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연구원은 한역본뿐 아니라 산스크리트, 빨리어, 티베트어로 쓰여진 불교의 경·율·론을 번역하고 주석함으로써 불교의 개념과 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가 이 분야 전문가 육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의도는 창간호에 실린 논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원전에 대한 단순 번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헌의 구성, 의의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왕의 해석과 연구 성과, 연구자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 측은 "교계에서 발행되는 20여 종의 학술지는 대부분 특정 학회에서 내기 때문에 학회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글을 싣게 마련이다"며 "이런 경향은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율·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의 불교원전 전문학술지 〈불교원전연구〉창간호.

기존 한문 번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 역시 〈원전연구〉의 목표다. 한역본은 신역이라 해도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것이다 보니 천 년 이상 된 고대 한문으로 쓰여있어 현대에 와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를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 문헌과 비교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나아가 어려운 한문 용어 대신 쉬운 현대 국어로 개념을 재정립해 현대적 해석까지 시도한다는 것이다.

불교문화원장 권기종 교수는 "일본이나 서구에서 불교학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문헌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전을 보다 쉽게 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간호에는 범어 원전을 다룬 △〈정리일적소(正理一滴疏)〉 제2장 '위자비량'(이지수 동국대 교수) △성스러운 도간(稻竿)이라는 대장경(김성철 동국대 전임강사) △불교 쁘라마나학파에서의 요가수행자의 증지(우제선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등 3편의 논문과, 빨리어 문헌을 다룬 △붓다의 위대한 입멸-〈대반열반경〉(안양규 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 등 2편, 티베트 문헌인 △도차제의 정수(양승규 동국대 강사), 한문본인 △중편조등오위(김호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등 7편의 논문이 실렸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송광사 소장 티베트 문서 "여행 증명서다" - "법지다"

### 보조사상硏 국제학술대회서 의견 양분



◇송광사 소장 원대 티베트 문서.

전남 순천 송광사에 전해오는 티베트 문서는 '여행 증명서 인가, 원나라 때 제사(帝師)가 발급한 '법지(法旨)'인가?

송광사에 티베트 문서의 성격과 작성 배경을 규명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송광사 성보박물관과 보조사상연구원 주최로 8월 25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문서가 고려와 몽골 간의 관계 연구에 귀중한 자료란 점에는 동의했지만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1998년부터 이 문서를 연구해온 일본의 나카무라 준(고마자와대) 전임강사는 "원나라 불교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제사가 발급한 법지라는 국가적 명령문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카무라 교수는 이 문서에서 역전과 관련된 어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점과 내용 가운데 '위해를 가하거나 힘을 미치는 것 등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확인 된 것으로 보아 "제사가 재산 등 사원 보호를 위해 발령한 특허장"이라고 주장했다.

모리히라 마사히코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은 "송광사 법지는 원나라 제사의 권위가 고려에까지 미친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허일범 교수(진각대)는 "쿠빌라이칸의 초청으로 몽골을 다녀온 수선사(송광사의 옛이름) 제6세 원감국사 충지에게 수여된, 신분보장을 위한 통행증"이라고 반박했다.

장동익 교수(경북대)는 "고려 불교계가 제사의 관할 아래 들어가 있었다는 주장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강진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도 의상 스님 관음보살 친견 형상화"

### 장충식 교수 주장

보물 1314호인 전남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 백의관음도는 의상 스님의 관음보살 친견설화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 사진)는 8월 30일 한국정토학회 주최로 열린 '정토교와 한국문화' 학술 세미나에서 무위사 후불벽 뒷면의 백의관음도는 "일반적인 수월관음도와는 달리 선재 동자 대신 노비구가 등장하고, 백의를 입고 물 위에 떠 있는 연잎을 타고 있는 입상이란 점이 흥미롭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상 대사가 등해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던 설화 내용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백의관음도에 적혀 있는 유자량의 묵서 게찬 내용분석을 통해 백의관음도의 도상의미를 밝히려는 이번 시도에서 장 교수는 "이 시가 유자량이 낙산사 관음굴을 답사하고 쓴 시와 내용이 일치한다"며 "선재 동자 대신 자리잡고 있는 노비구는 곧 의상 스님으로 볼 수 있으며, 스님의 등에 앉아 있는 새는 설화에 나오는 청조(靑鳥)"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보물 1313호)의 화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독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정우택 동국대 겸임교수는 "백의관음도는 조선 초기 불화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작품인데도 지금까지 도상과 게찬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없었다"며 "의상 스님의 관음보살 친견을 형상화한 백의관음도는 한국 수월관음도의 새로운 전형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高僧 다시보기

### 도선 국사와 풍수도참

도선 국사(道詵國師, 827~898)는 풍수지리와 도참술의 비조로, 혹은 고려 왕조를 개창한 태조 왕건에게 정신적 이념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참다운 고승이라기보다는 술승 또는 권승으로, 심지어 신화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님이 저술하였다는 〈도선비기〉 〈송악명당기〉 등의 풍수도참류의 영향도 있지만 〈편년통록〉 〈용비어천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서에도 풍수도참사상이나 태조 왕건과 관련한 기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스님이 당 나라에 가서 풍수도참승인 일행(一行, 687~727)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으며 왕건에게 직접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도선 스님은 당나라에 간 적도 없으며 일행 스님보다 100여 년 뒤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스님이 일행 스님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겠지만, 왕건(877~943)의 출생을 예언하고 그를 직접 가르쳤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남 강진 무위사에 있는 선각국사편광탑비.

### 비보사탑설 조선시대까지 적용

### 왕건에 가르침 전수 '잘못 알려져'

다만 스님의 풍수도참술이 태조 왕건에게 정치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인 듯하다. 태조의 훈요십조에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사찰과 탑 등의 터를 지정하였던 것도 이른바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에서 나온 것이다. 신라 경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왕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 왕조의 사찰의 재배치 또는 불교계의 재정비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고려 시대는 물론이고 조선 시대에도 면면히 계승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나라 명산대찰들 가운데에는 스님이 터를 지정한 사찰이 적지 않다.

이렇듯 스님이 풍수도참술을 펼친 것은, 신라 말 어수선한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스님은 본래 전라도 영암 출신으로, 왕가의 후예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5세에 출가하여 문성왕 8년(846)에 당나라 서당지장(西堂智藏, 735~814) 선사에게 심법을 인가받고 돌아와 전남 곡성 동리산 태안사(泰安寺)에서 동리산문(桐裏山門)을 개창한 적인선사 혜철(惠徹, 785~861)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후 15년간 운수행각을 벌이며 두타행을 하였고 72세로 입적할 때까지 광양 백계산 옥룡사(玉龍寺)에 35년간 머물면서, 서당지장에게서 심법을 받은 혜철 스님에게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이라는 가르침을 받아 선법을 크게 떨친 바 있으므로 옥룡산파(玉龍山派)를 개창한 선승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귀신침범비법 · 산소침해비법(탈) · 빌미 · 부정병비법 · 응기 판단비법 · 비방비법

위 각 육임비요형이상비법 상해(六壬秘要形而上秘法 詳解)

찾아오거나
전화해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을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에게 지금.

一. 어떤 귀신, 누구 산소, 무슨 빌미, 어떤 부정병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一. 그 귀신, 산소탈, 빌미, 부정병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는지.
一. 천도, 시식, 부적, 굿 등의 수법을 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없을 것인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一. 수법을 행했을 때, 언제 어느 날 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언제 완전해 질 것인지.
一. 모망, 승진, 구재, 구직, 시험, 결혼,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여행, 도난, 실종, 가출, 면접,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락, 묘지, 기후사 등의 중요사가.
언제(어느 월, 어느 일) 이루어 질것인지.

이상의 형이상사(形而上事)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학술이 갈망되어 왔으나 육임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항이 비요(秘要)로 전해져 오고 있는바, 이를 이번에 정확히 밝히게 되므로서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경지가 한차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셔서 활인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고복자 철학박사 효 사 배상

입 금 구 좌 : 한 빛 은 행 066-475024-02-001 김 나 여



육임(래정비법)설명회 안내

「육임래정비법」 (온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알아 버리는 비법) 값 삼십오만원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내용을 소상히 판단하는 비법) 값 일십만원
「육임대요형이상법」 (귀신 · 산소탈 · 빌미 · 부정병 판단 비법과 일의 되는 날자 판단 비법) 값 일십오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운명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는 비법) 값 일십만원

위 내용의 설명을 다음 각 장소 · 시간에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사오니 위 책을 구입하신 활인 · 천역자 제위께서는 이 중 마땅한 장소를 골라 참석하시면 더욱 밝은 활인 ·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게 될것입니다.

고복자 철학박사 효 사 배상

장소 및 시간 식대 및 음료비 10,000원

◦서 울 관토원(매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강북구청 좌측 옆건물) TEL : 02-993-8680
◦부 산 불교회관5층(부산시청역옆건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TEL : 011-588-5496
◦대 구 보리암 신원(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9-1(영대병원 지하철 입산출구 새한약국 뒷편 2층) TEL : 053-653-0287
◦광 주 광주시 동구 학1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 주 원각정사(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주시 경원동 2가 43-3(구 경기전 뒤 체세한의원 2층) TEL : 063-284-7714
◦수 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319-4(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반야원 철학원 (기동체일교회 맞은편) TEL : 031-242-8813
◦청 주 동인당 한약방(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암동 378-4(동부경찰서-MBC 사이) TEL : 043-221-2557
◦원 주 노검철학원(매주 금요일 오후5시~8시까지) 원주시 봉산동 쌈다리(경찰서 앞)전 한약방 2층 TEL : 017-377-7005
◦인 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92-4 종호철학 컨설팅(매주 월요일 오전9시~12시까지) 인천시 지하철 1호선 박촌역하차 2번출구에서 전화요망 TEL : 032-554-3789
◦충 주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금강사(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까지) (판금대교 큰 다리에서 150미터 지나서 금강사 이정표가 있음) TEL : 043-842-3352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0-8 대영회관 3층 양무건설사무실 (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까지) (갑천 태평교 동명주요소 옆) TEL : 042-584-1709

위 책 구입 및 설명회 문의전화 : 02-993-8680

도서출판 복 문

# "大道에 입문한 것은 仙佛 인연 있기 때문"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 달마이야기 ㊻



### (45) 성체원명(性體圓明)

달마가 설법한 오계(五戒)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 고불(古佛) 시대부터 전해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달마의 설법은 이를테면 모든 가르침을 아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마는 오계의 세번째인 사음(邪淫)을 금(禁)하는 계를 설명했다. 달마는 본래 예절(禮節)을 근본으로 삼은 데서 이 계율이 생겨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절대로 욕념(欲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하고 금욕하라고 가르쳤다.

달마는 말했다.

"남자는 모름지기 정절(貞節)을 지키고 여자는 청결(淸潔)을 지켜 의마심원(意馬心猿)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날뛰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마음 속에 항상 염치(廉恥)의 씨앗을 간직함으로써 마음은 입(口)에 묻고, 입은 또 마음에 물어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고 근신해야 하느니라. 부질없는 정념(情念)은 티끌만치도 없어야 하며 그 씨앗은 뿌리부터 잘라 버려야 하느니.

### 염치와 예절 소홀히 말라

천지(天地)간에 오직 금수(禽獸)만이 수컷과 암컷이 혼교하여 수치도 모른 채 추악한 소리를 질러대니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도다. 만물의 장(長)인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염치와 예절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윤리를 어지럽히면 비록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금수와 다를 바 없느니라. 옛 동이(東夷) 곧 배달의 남자는 미인이 지나가도 문을 닫고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느니라."

혜가는 동방예의지국의 연원이 결코 오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았다. 새삼 스승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설법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대도(大道)에 입문한 것은 도두 선불(仙佛)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라. 중생들이 인회(寅會)에 동토(東土)에서 태어난 지 어언 6만 년. 어떤 때는 여자로 태어나 전변(轉變)을 거듭했느니라. 사람은 하늘의 씨앗이니 하늘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삼기(三期)에 이르러 도문(道門)이 널리 열려 있으니,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골육지진(骨肉之親)이며 영산(靈山)의 한 핏줄임을 명심할지어다.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음욕을 한 칼로 잘라 버려야 하느니라. 아무리 미인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되느니, 그렇지 않으면 맹수나 독충에 물려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될 것이니라. 음욕을 품지 않도록 마음을 닦아 그 음욕의 그림자조차도 없애버리면 불선(佛仙)이 되는 것은 이미 손아귀에 있는 것과 같으니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음욕은 수마(首魔) 곧 으뜸 되는 마귀이니 도(道)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총체적인 병(病)은 바로 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수행자들의 대부분은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니 겉으론 깨달음에 이른 듯 보이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엉큼하여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자기 마음을 살펴 자문(自問)해 보아야 할지니, 삿된 음욕이 도(道)를 패퇴시키는 실상을 깨달아야 하리라.

색(色)에서 태어나서 색으로 죽으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구나. 비록 깨어났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듯싶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으니, 수행을 이루지 못한 자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뼈는 봉우리가 되었구나. 선불(仙佛)의 뿌리가 티끌 세상에 떨어졌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쏘냐. 큰 뜻을 세운 자는 모름지기 염두(念頭)를 철석(鐵石)처럼 굳세게 가다듬어야 하느니라. 색(色)이 공(空)임을 알고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 두고 꾸준히 행하게 되면 이윽고 무인(無人) 무아(無我)가 되어 사상(四相)이 모두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의 본래(本來)의 면목(面目)이 성체원명(性體圓明)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음계를 어린 아이 장난처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지니 모름지기 근신(謹愼)하고 또 근신할지어다."

혜가는 스승의 사음계에 대한 강설에 절로 마음이 무거워옴을 느꼈다. 자기 자신도 말로만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을 뿐 올곧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혜가는 두 손 모아 스승 앞에 다짐했다.

"사음계의 가르침을 비로소 깊이 깨달았나이다.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도 설명해 주시옵소서."

"주육(酒肉)을 금하는 계는 원래 지혜(知慧)를 근본으로 삼은 것이니 청(淸)과 탁(濁)을 섞지 말라는 것이니라.

### 세잔만 뱃속에 들어가면

술을 끊고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탁함을 멀리 하고 청정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니라. 절대로 입과 배를 탐해서 진성(眞性)을 어지럽혀 미혹케 해서는 안 되느니라. 오계 가운데서 술은 계율의 첫머리라고도 할 수 있나니, 그대는 결코 가볍게 보지 말지어다. 술은 비록 물처럼 부드럽다고 할지라도 독기(毒氣)가 매우 심하니, 세 잔만 뱃속에 들어가도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혼미해 지느니라. 마시고 취하면 미친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며 깨어나지 못해 염치를 잃고 덕행(德行)을 상실하여 흉폭한 짓을 하기 쉬우니, 이런 때는 친척이나 지인(知人)도 몰라보고 입을 열어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느니라. 이것은 생사(生死)와 성명(性命)을 생각치 않는 것이니 하늘의 재앙을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법에는 사사로운 정이 없으니 술이 깨어 후회하더라도 이미 소용이 없느니라.

옛날에 우왕(禹王)이 맛 좋은 술을 싫어하고 선(善)한 말 듣기를 좋아했다는 고사를 본받아야 할 것이니라. 일찍이 공자도 술을 마시면 어지러움을 벗어날 수 없다고까지 경계하지 않았더냐. 더군다나 술은 오장(五臟)을 뚫는 독으로 삼보(三寶)를 손상시킬 뿐이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도 기울게 하는 화근(禍根)이 되느니라. 속인(俗人)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두려워하고 삼가하여 경계해야 하거늘 하물며 청결에 귀의하기로 뜻을 세운 수행자는 두말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비록 감주(甘酒)일지라도 마셔서는 안 되느니, 그렇게 가볍게 뜻을 꺾으면 심신(心神)의 혼란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도 잘 지켜야 할 것이니, 공(功)이 있어 천도를 시켜 주지 못할망정 어찌 감히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만일 공을 이루어 그 원혼을 풀어주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 죄값을 받으리라. 지옥에 가면 먹은 고기의 분량만큼 고기로 갚으라는 염라대왕의 판결을 받을 것이리라. 고기를 뜻하는 '육(肉)'의 글자꼴에 인(人)이란 글자가 두 개나 겹쳐 있는 까닭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먹은 고기는 사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모름지기 천지(天地)의 청기(淸氣)를 받아 본성(本性)을 이룬 데 비해서 짐승은 천지의 탁기(濁氣)를 받아 태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도를 깨닫고자 하면 탁기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탁기를 제거하면 비로소 청기(淸氣)가 상승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骨肉之親이며**
**靈山의 한 핏줄**



◇원담(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스님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혜가는 스승의 설법을 통해 청기가 하늘로 오르고 탁기가 땅에 떨어지는 이치를 새삼 인식하게 됐다. 달마는 혜가의 진지한 표정을 살피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오계의 마지막 계율인 망어지계(妄語之戒) 곧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을 풀이할 것이니 잘 들어라. 이 계율은 신실(信實)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니라. 사람을 만나서 절대로 허세를 부리거나 빈말을 하지 말라. 말에는 전범(典範)이 있고 행동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니 충신독경(忠信篤敬)의 네 글자를 명심할지어다. 충성(忠誠)과 신실(信實) 그리고 돈독(敦篤)과 공경(恭敬)으로 임하면 오고 감에 맑음과 밝음이 있어 조금도 의심이 생기지 않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대개 허황한 말과 야릇한 논리를 펼치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중인(衆人)을 속이기 일쑤이니 동쪽에서는 좋다고 말하고 서쪽에서는 나쁘다고 말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니, 겉모양은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나 마음은 악독하고 입으론 부처님처럼 말하지만 마음은 뱀과 같으니라. 혀는 칼날 같으니 사람을 죽이려 들면 피하여 숨을 곳이 없고, 뜻은 검처럼 사람 몸을 베니 아무도 피할 수 없으리라. 이런 자들은 나만의 배부름과 따뜻함 그리고 편리함과 안온함만을 도모하니 다른 사람이야 쓴맛을 보든 단맛을 보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느니라. 이승에 살면서 혀를 칼로 삼아 세상을 어지럽히면 저승에 가서 심간(心肝)이 찔리고 혀가 뽑히리라.

수행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에 신(信)이 있어야 하느니라. 과장된 말이나 교묘한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느니, 사람을 만나서는 효(孝) 제(悌) 충(忠) 신(信)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예의와 염치를 일깨워 좋은 길로 선도해야 하느니라. 불효하는 사람에게는 효도를 권하고 음란한 사람에겐 정절(貞節)을 권하고, 삿된 짓을 하는 사람에겐 어짐(賢)을 권하고, 악한 사람은 선(善)의 길로 이끌어 인심(人心)을 잡아서 돌이키도록 하여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을 권하여 신(信)에 따르도록 하면 못된 사람도 없어지고 흉포한 것도 없어져 절로 청평(淸平) 곧 태평(太平)을 보게 되리라.

### 허황한 말과 야릇한 논리

하늘과 땅, 연월일시(年月日時)는 모두 신(信)에 따라 운행되고 있느니라. 만물과 사람도 역시 신에 따라서 생겨났느니라. 만약 신이 없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인륜(人倫)이란 있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 신이 있기에 해와 달과 별이 북두(北斗)를 믿고 따르는 것이며, 땅에 신이 있기에 물과 불과 바람이 곤륜(崑崙)을 믿고 움직이고 있으며, 해(年)에 신이 있기에 사시(四時) 곧 사계절에 온(溫) 열(熱) 량(凉) 한(寒)이 있으며, 달(月)에 신이 있기에 초하루와 보름에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으며, 날(日)에 신이 있기에 십이시(十二時)에 자시(子時)와 오시(午時)가 표준이 되고 있으며, 시(時)에 신이 있기에 시간마다 팔각오분(八刻五分)이 있으며 괘(卦)에도 신이 있기에 건(乾) 곤(坤) 감(坎) 리(離)가 정하여 있느니라. 신은 토(土)에 속하여 오상(五常)을 꿰뚫고 오행(五行)을 일관(一貫)하느니라.

하늘과 땅이 합치되면 연월일(年月日)은 당연히 신(信)에 따라 운화(運化)하고 만물과 사람도 그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니 생겨나면 화(化)하고 화하면 생겨나는 것 또한 하나의 신에 의한 것이니라. 만약 신이 없다면 화하고자 하는 해도 화하지 못하고 생기려고 하는 해도 생겨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계는 엄격하게, 한치의 어김도 없이 지켜야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계는 오행과도 밀접하게 연관시켜야 하느니라. 여기에 더하여 삼화(三花)를 머릿골 정수리에 모아야 하느니,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삼염(三厭)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려야 하느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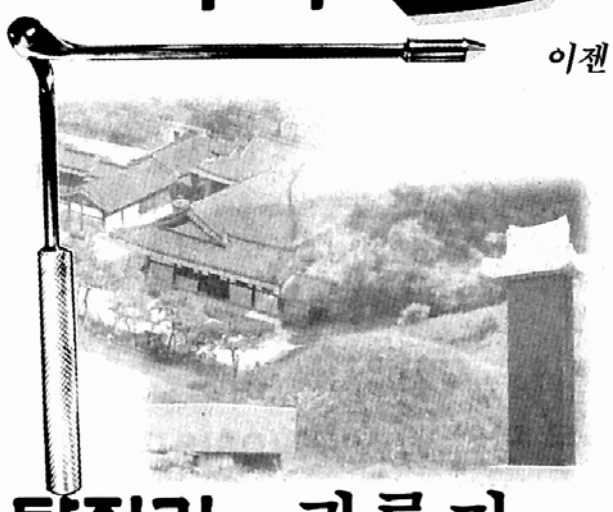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를,
2월호에는 주역을 활용한 「역점64」를,
3월호에는 「철관신수」와 「법륜공」을,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5월호에는 「유달의 산소이장법」을,
6월호에는 「조선의 무격」을,
7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대하여,
8월에는 「중국민간에 전해지는 회춘비결」을,
9월호에는 「한가위 차례 지내기」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탐지기이다.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관,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띤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 · 양(+)의 전하(electric charge)를 발생한다. 이 + · −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된 땅에서는 특별한 지기가 발생하는데, 이 지기가 생기(生氣)이며, 이곳이 바로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에서-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 혈)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함금된 센서를 장착하고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치 않고 반드시 명당 혈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번성해온 사찰의 대웅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번성한 가문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자께는 「월간역학」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 지난호(창간호~2001년 8월호)를 88만원에 판매하며, 단,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명당 탐지기 - 관룡자**
9월 15일(土) 충남 예산의 명당 풍수견학, 회비 2만원(교통편, 중식포함)

**월간역학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한국 지역전화료 없음)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청옥빌아트 101호

## 종립학교를 가다

(12) 해동중학교

'까마득히 달려 내린 금수정기가 마침내 태평양에 다달아 맺은 절영도 물새 날은 푸른 기슭에 그윽히 솟아 앉은 배움의 집' 청마 유치환 시인이 작사한 해동중학교의 교가 가사다. 가사 그대로 해동중학교는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산기슭에 터를 잡고 교목인 소나무의 기상과 슬기를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량이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격완성과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1946년 해동고와 함께 설립된 해동중은 1952년 학제개편으로 해동고와 분리된 이후 이사장 벽파스님의 지원을 받으며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스승제자리 찾기 운동, 독서지도 등의 특색사업을 펼치며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 전일제 야외 특활 … "교육이 살아 있어요"

해동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중앙 출입구에 봉안된 해수관음상이다. 1991년 봉안된 해수관음상은 해동중을 사랑하는 학부모와 선배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조성된 것이라 소중함이 더하다. 교학 성적을 전체 학과성적에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인 강압이 없는 해동중이지만 모든 교사가 불자이고 여름 수련회나 특강 등에 8백 여명이 넘는 학생이 참석할 정도로 불법이 살아 숨쉰다. 이처럼 불법을 근간으로 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해동중의 힘은 바로 해수관음상에 모아진 모두의 원력에서 출발한다.

해동중은 유달리 깨끗하게 정돈된 교정과 화장실마저도 자랑거리다. 깨끗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 신장을 이루는 학교라는 세 가지 목표아래 학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교직원 모두가 합심해 일선에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이다. 화단 조성, 화장실 청결 운동, 교통질서, 실내 질서 등의 생활지도 확립과 더불어 외국어 교육강화, 정보교육 등 학력신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CT 교육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연구중이다. 이미 화장실 문화가 정착된 해동중은 화장실에 향수, 꽃 등이 비치되어 있고 특히 남녀공학이 되는 내년 3월을 대비 2억원의 지원을 받아 화장실, 목욕실 등의 시설 보완에 한창이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내면의 풍요를 가꾸는 것. 해동중은 독서지도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간접 체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반마다 학급 문고를 비치해 불법 시설물이 없는 교육환경까지 갖춰 문제학생이 거의 없는 모범학교로 정평 나 있다. 종교적 색채가 짙은 학교 분위기와 다양한 종교활동을 통한 심성 함양도 해동중이 갖춘 빼어난 교육 여건중의 하나다. 매일 아침 예불과 명상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들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교사들도 매월 한차례 교직원 법회를 열어 교사 스스로의 신행과 신심을 다지고 있다. 또한 가을에 열리는 수계법회에는 60%가 넘는 학생이 참여해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며 불교적 인생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학교 설립 초창기부터 활성화되어 온 학부모 법회는 각종 교육문제를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풀어가는 교육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학부모 법회는 불교 교리, 의식, 문화 등을 학부모에 전하는 평생교육의 장이자 교육 전반에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창구인 셈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지역민과 학부모가 함께 모여 봉행하는 법회를 통해 신행을 다져가는 학부모 법회는 해동관음회(회장 이명옥)로 모임을 결성, 자녀들의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가는 해동중의 교육적 결실은 더디게 익는 열매 같아서 쉬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않는 느긋함으로 해인삼매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육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산과 바다가 인접한 해동중학교는 이사장 벽파스님의 지원아래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학이념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수계법회 장면.

### 자연학습장서 야채 키워
### 학부모 법회서 평생 후원

독서습관을 정착하고 흥미를 유발해 평균 3~4백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년에 2~3회 독서발표회를 개최하고 학년별 필독도서와 권장도서 목록을 비치해 독서수준을 평균적으로 향상시켜내고 있다.

또한 해동중은 바다와 산을 인접한 자연 환경으로 자연 야외 학습의 장을 갖춘 보기 드문 도심 학교다. 2천여 평의 여유부지를 학생들에게 개방, 학년별이나 반별, 또는 특활부서별로 각종 야채를 키우기도 하고 분재, 화분 등을 보살피고 있다. 흙과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여유로와 지는 것은 당연한 일.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해동중은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나

### 정보통신 시범학교 지정
### 1년 평균 3~4백권 독서



◇대명 스님이 골굴사 마애불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분황사 모전석탑 우아함에 매료

### 본사 8월 지역불교문화기행 40명 참가

"분황사는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 스님과 자장율사가 수행 정진과 수많은 경전을 편찬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국보 제 30호인 모전석탑은 전돌로 쌓은 탑을 모방한 것으로 부드럽고 힘찬 모습의 인왕상이 조각돼 있어 신라불교 건축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성보 문화재입니다."

26일 오전 5시 아침예불이 끝난 뒤 대명스님(분황사 총무)은 분황사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했다. 현대불교가 주최하는 지역불교문화기행에 참가한 40여명의 참배객들은 대명 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보았다. 이어 참가자들은 석굴암 본존불을 참배하기 위해 석굴암으로 이동했다. 지역불교기행 순례단은 비록 보호막을 설치해 본존불 안으로 들어갈 순 없었지만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께 절을 올리기 위해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기림사와 선무도로 유명한 골굴사, 감은사지 석탑, 문무왕릉, 신라문화역사관 등을 돌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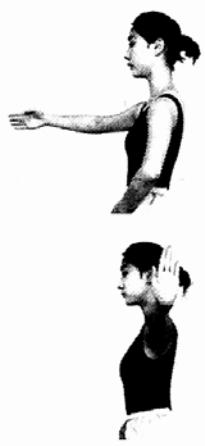
방학을 이용해 이번 기행에 참가한 김인혁군(서울 재동초등 3년)은 "석굴암 부처님처럼 멋있고 잘생긴 부처님은 처음 보았다"며 "앞으로는 일요일 어린이 법회에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했다"고 즐거워 했다. 김주일 기자



이선옥의
## 선무 건강법 ⑭

• 스트레칭 •

1. 엉덩이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이' 소리를 내며 오른쪽 팔로 기를 보낸다.
2. '이'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두 무릎을 굽히고 단전을 척추 쪽으로 수축하면서, 천천히 팔을 옆으로 벌린다.



**무릎 굽히고 펴며**
**몸 균형 바로 잡아**

3. 단전을 이완시키고 구부렸던 무릎을 피면서 발꿈치를 들어 다리를 곧게 편다. 동시에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통해 에너지를 보낸다.
4. 손목을 이완시켜 팔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가져가면서, 자연스레 처음의 단전자세로 돌아온다.
5. '뭐' 소리와 함께 왼팔로 동작을 반복한다.



6. '꼬' 하면서 양손을 들어 반복한다. 넓적다리, 단전, 허리 근육을 잡아 댕겨주고, 몸의 균형을 키운다.

## "자연스럽게 보리심 심어요"

### 해동중 정종근 교장



깨끗하고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이 세 가지는 정종근 교장(59)이 새 학교 문화창조를 주창하며 펼치고 있는 기본교육 방침이다. 이같은 교육방침은 학교 시설 정비, 환경 조성, 기초질서, 생활질서, 예절,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학교 장학 활동 다변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보현장학회와 교계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많다"고 자랑하는 정교장은 33년 전 해동중에 부임해 젊음을 해동중에서 보냈다. 잔정 많고 교직원에 대한 배려가 남달라 '컨츄리보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권위와 격식을 따지지 않는 정교장은 각종 행사나 수련회에서도 솔선수범하며 학생 지도에 나선다. 파라미타 부산지회 중등부 지회장과 포교사로 활동하며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교장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강제적으로 전하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해동중에서 보낸 3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학교장의 가장 큰 역할로 알고 항상 노력한다"고 해동중의 교육 분위기를 설명했다.

교법사실에서 이태욱교법사

## "비디오·사진 감상하며 포교"



중학생들에게는 불교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욱태(41) 교법사는 불교 문화, 불교 정신이 깃 든 비디오, 사진 자료 등을 통한 흥미 있는 수업으로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보했다. 교리나 가르침을 전달하려는 욕심이 앞섰던 초창기와는 달리 '불교가 좋다는 막연한 느낌'이나 '법당에 갔던 기억' 등이 오히려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이 교법사는 딱딱한 교리보다는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불교적 내용을 주로 다룬 교학 수업으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교직원 감화, 학생들의 정신 함양, 지역 사회기여 등을 크게 활동 방향으로 설정한 이 교법사는 학교 교직원 절반을 부산불교교육대학의 불교교양과정을 이수하게 한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포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 사찰 학생회와 파라미타 지도자로 활동중인 교사가 유독 많은 해동중의 자부심이 바로 이 교법사의 철저한 신행과 원력에서 비롯된 것.

해수관음상 봉안을 발원하여 1991년 학교 건물 중앙에 해수관음상을 모시며 교내 종교활동의 중심을 다진 이 교법사는 대외적으로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환희지 문화원 등의 소임을 맡아 부산 불교계의 대소사를 알뜰히 꾸려가는 지역 불교계의 든든한 일꾼도 겸하고 있다.



◇한국통신 주최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식 장면.

## 컴퓨터반 홈페이지 제작 '도사'

동아리 탐방

해동중의 동아리 활동은 매월 마지막주 전일제 특별활동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3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일제 특별활동은 일주일에 한시간씩 하던 활동을 한 달에 1번 온종일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낸 것.

특히 컴퓨터반은 부산, 경남 지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참석하는 경진대회에서 227개의 중등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컴퓨터반을 지도한 김태호교사는 중등단체 지도교사상을 받아 해동중의 앞서가는 ICT교육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파라미타 불교학생회는 7월에 열린 지역문화재 애호 활동 전시회에서 영도대교에 대한 자료 조사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동중의 파라미타는 동아리 중 가장 가입 경쟁이 치열한 인기 동아리, 안시영 해동중 불교학생회 회장이 부산지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파라미타 체전에서 3년승을 거두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 "부모 은혜 알아야 자신의 삶도 원만"

## 칠석과 백중의 의미

**문** 며칠 전에 칠석을 지냈습니다. 또 9월 2일은 백중날이었습니다. 칠석과 백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가 칠석날은 견우와 직녀를 많이 상상하시죠. 옛날 이야기든 뭐든 이치가 담겨 있지 않는 말은 없을 겁니다. 옛말에도 까치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인연을 이어 주고, 까마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전달을 해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둘 것은 전체가 인연 아닌 것이 없지만 칠석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태어남을 뜻합니다. 모두가 태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탄생하는 날을 기해서 칠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을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불성이 둘 아니게 인연이 되는 그런 인연의 소치를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거나 똑같죠. 백중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칠성, 말하자면 칠석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근본은 칠성입니다. 그러나 칠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는 바로 이 칠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불성이 밝으면 모두 다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뭐 꿈을 꾸었는데 꼭 죽을 꿈이라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잘못돼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놓고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꾸게 한 것도 너니깐 너만이 잘못되지 않게도 할 수 있다.' 하고선 관하고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만 갖는다면 그게 다 훌렁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현재·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칠석날 마음을 밝게 해서 백중에 모든 조상의 영령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도 됩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고, 땅이 없으면 인간이 없듯이, 우리가 부모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다 못해 곤충 같은 것도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다리가 찢기고 목이 떨어져도 달려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자신의 삶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곡식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수화풍의 도리를 믿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만이 만물 만생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기에 먹고살지 않습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죠. 또 음식을 가공해서 먹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공용·공체·공심·공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겁니다. 다섯 가지 문제를 총동원해서 한마음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여래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그 도리를 알게 되면 그대로 한 종자에 한 종류니까 살아서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죽은 사람들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중날은 내 마음이 자식의 도리로서 조상님들에 대한 생각을 퉁틀어 하면서,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다 제 마음과 같이 둘 아니게 한 자리를 하소서.' 하고선 한량없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아리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렸고, 맛있는 거 한 번 제대로 못 사 드렸고, 공양 한번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했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깐 그랬고, 철을 몰라서 그랬고, 철 들어서는 부모가 안 계시니 이 불효를 어떡합니까!" 하고 지극히 정성을 담아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꽃송이처럼 향기가 퍼져서 온 천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 **業·苦 없는데**
> **자기가 만들고**
> **자기가 당해요**
> **공용·공식으로**
> **근본에 맡기면**
> **업 녹일 수 있어**

그럼으로써 그 영령들의 마음이 "아이구, 우리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늘에까지 향기가 퍼지는구나." 하고 그 퍼지는 걸 느끼면서 그냥 와서 친견을 합니다. 친견할 때 모습이 없으면 친견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놓거나 위패를 놓습니다, 거기에 응접하시라고. 그래서 꽃잎마다 응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접을 해서 "내 아들 장하구나." 그러다가 어느덧 그 조상이 그 도리를 알게 되어 자식의 마음, 공부한 자식의 마음 속으로 탁 들어가 보면 "아하, 내 자식이 따로 없구나. 돌아가면서 부모 자식 노릇하기에 더불어 같이 이 끝없는 자비가 아니라면 어찌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상들이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식들의 그 마음이 아주 끝간 데 없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니 흔히, 천도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백중이고 추석이고 따로 또 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우리가 밥 한 번 먹고 더 이상 안 먹습니까? 그런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이 몸이 없어졌다고 다 끝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 업이 많아 사는게 막막 해요

**문** 전생의 업이란 걸 안고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업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 운명인가요. 삶의 희망, 보람은 주어진 삶을 자신이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데 따르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을 것이고 내 삶에서 나 스스로가 자신감과 의욕이 없다는 게 가장 쓸쓸하고 허무하답니다. 예전부터 전 누군가에게서 평탄치 않은 삶,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땐 예사롭게 들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전 그게 운명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막막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제 업이 아직도 남은 건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답** 아무렇지도 않게 업이 많다, 팔자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는데 업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은 없는데, 관념에 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업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업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땐 뭐 그냥 한생각 한다면 그냥 한생각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체 제불이 다 안다는 얘기죠. 깨달은 분들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진짜 업이라든가 고는 없어요. 진짜예요. 모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누가 갖다준 게 아니거든요. 갖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립니다. 우리들 모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맨날 말하죠? 거기에 모든 걸 집어넣어라. 거기에 다 공용(共用)으로 맡겨라. 그리고 끄트머리, 공식(共食)인데 공식으로 맡기면 다 해결이 난다. 업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대로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업이라면 바로 부처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쓰라림을 겪어오면서, 또 잘못해 가면서, 잘못한 거를 참회해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으로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그 악업들이 모두 차례 차례로 없어지는 거니까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실천적이고 지혜로워야 만이 그것을 무난히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입력된 것이 나올 시기가 될 때까지 말예요.

## 믿고 놓는게 될듯하다 잘 안돼

**문** 변함없는 가르침과 자비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요즘 제가 제대로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는지 자꾸 의심이 들고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주인공이고 거기를 믿고 놓으려고 합니다만, 좀 될듯하다 다시 안되는 것 같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못난 탓이겠지만, 못난 사람이니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요컨대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주인공을 믿고,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다 몽땅 그 자리에서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만큼 되는 것인데 누구한테다 핑거를 하겠습니까? 잘 되다가 안 됩니다. 잘 됐는데, 잘 되니깐 마음이 해이해졌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할 탓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잘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 각자에게 다 제각기 컴퓨터가 있어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고,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 생활에 차례 차례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오는 데다 되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된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지 않는다면 입력된 업보, 유전성, 인과성, 윤회성, 세균성, 영계성 등이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차곡차곡 쟁여지니, 그것을 없애려면 나오는 구멍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데도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죠! 아니, 사람이 마음과 육신이 작용을 하죠? 몸이 있고 마음이 없어도 안되고, 마음이 있고 몸이 없어도 안되죠? 그러면 생사윤회라는 것이 죽는다 산다 이 양변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죠. 생신이 되고 멸하는 양변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잘됐다, 잘되다가 안된다 이러죠? 그런데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부산에서 더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내릴 자리는. 그럼 부산에서 되돌아 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만, 막힌 그 종점에서만 다시금 그대로 믿고 가려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한 번 스르르 돌려서 다시 오고 가고, 스스로 작용을 돌려야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 인제 잘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안 되는 것도 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구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그냥 되게끔 하는 것도 너다.' 이렇게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계도 가다가 선 놈을 굴릴 줄 모르면, 운전을 못하면 차가 안 갑니다. 인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똑똑한 놈보단 좀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 싹을 틔운다고요. 그런 말도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아주 모르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 맨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을 빗자루 하나를 줘서 쓸라고 하고는 그 마음을 틔우게 한 사실도 있듯이, 부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가르치셨는데 아니, 왜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까?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해라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나무도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과일을 열게 합니다. 과일들도 제 나무에서 열린 과일이라야 만이 되고 제 나무에서 익은 과일이라야 만이 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불법이라는 거는 과일 하나에, 한 나무에 하나가 열리면 만 가지 맛이 나는 이 맛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정말이지 자유스럽고 똑똑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못났다는 생각마저도 그 자리에 놓고 더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더 깊은 뜻을 알게될 것입니다.

## 아미타불 염하는 뜻은

**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님들을 뵈옵고 절을 보면 당장 나무 아미타불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자연스럽게 염을 하게 되는데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답** 많은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합니다. '나무'라는 것은 무한하게 큰 것을 말합니다. 허공에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법. 그런데 평등하기만 하면 그냥 돌아가니까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 작용이 안되죠? 그러니까 '관세음' 했습니다.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것이 관세음입니다. 이 세상을 비롯해서 사람이 살고, 보고, 듣고, 관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이름해서 '관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대천세계에 돌아가는 살림살이를 바로 이름해서 '관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름으로만 부르고, 높다랗게 있어 가지고 나를 살려주는 줄 알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니…. 예를 들어서, 어디 취직을 하려 해도 직접 관여하는 사람에게 서류를 갖다 주어야 빨리 성사가 되지 간접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력서를 갖다 주어 봤던들 일이 성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불성 자리에다 그 서류를 갖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마음이 그 이름들을 지었다구요. 동방에는 아촉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는 관세음이라고 했고, 지천국에는 바로 지장 보살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님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아버지니, 아버지니, 또는 아들이니 하고 이름을 다 지어 놓고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계시죠? 그 많은 이름들을 항상 동시에 돌아가면서 써먹죠. "여보!" 그러면, "왜 그래!" 그러고 남편 노릇하죠? 걸림이 없죠. "얘, 아무개야!" 그러면 "예!" 그러고 아들 노릇 하느라고 아주 깍듯하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리 많은 돈 벌레가 걸림이 없이 가다가 "아휴!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 어떻게 걸리지 않고 가나!"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냥 딱 걸려서 못 가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잘 가는 건데, 이것이 참선이고 그대로 도인데 그 요량과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모르기 때문에 올팡갈팡 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놈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게 될 겁니다.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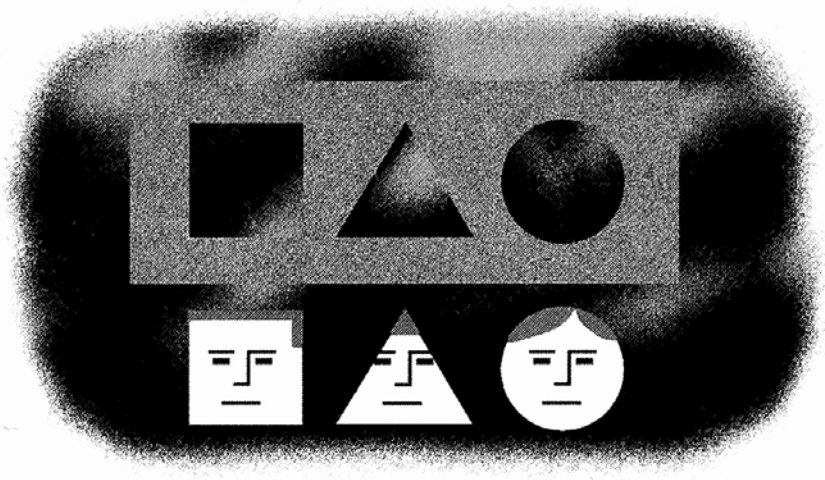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내탓으로 돌리면 원망과 증오 없어"

☞ 19면에서 계속

## 명상 · 요가 · 참선의 차이는

**문**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가 꽤나 오래 되었지만 책을 접할 때마다 의문사항이 많아도 물어 볼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여쭤 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명상과 참선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티베트의 명상과 인도 힌두교의 명상과 요가, 또 우리 불교의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과의 차이점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 세 나라 수행 방법의 차이점과 구하는 바가 모두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네 참선도 스님들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참선법은 무엇입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서만이 참된 본성을 발견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 인지요? 체계적인 지식이 없어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는데, 참선이 옳습니까? 명상이 옳습니까?" 그러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선도 옳고 명상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선도 없고 명상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참선도 없고 명상도 없다면 무엇이 있는 거냐?"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따귀를 한 대 치더랍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람이 살면서 사물을 쳐다보는 것도, 어느 나무가 흔들리는 걸 쳐다보고 있어도 그것은 명상이고요. 또 앉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생각을 해도 그거는 참선이다 이거예요. 근데 명상도 참선도 그저 두루 오면 오는 대로, 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옳다 이게 옳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참선이니까요.

## 나쁜 건 놓는데 좋은 건 끄달려

**문** 저는 스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마는 책을 통해서 친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한테 놓아라' 고 강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쁜 것은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좋은 것은 자꾸 거기 끄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 예전에 어느 선지식께서 말입니다. "좋은 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요. 또, 언짢은 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럼 뭐가 부처님 법입니까?" 하니까 "이리 오너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러구선 오니까 아, 거기 주장자로 그냥 골통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구! 아이구!" 하니까, "이놈아, 아이구 하는 그놈이 누구냐!" 그러시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 생각을 잘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법이며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가 움죽거리는 것이 행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되는 거는 "아! 거기서 나온 거니깐 거기서 해결하겠지, 거기서밖엔 해결 못해."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거 또한 놓는 겁니다. 놓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놔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 인해서 고가 벌어지고, 나로 인해서 부처님이 있는 줄도 알고, 우주 천하가 있는 줄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원망할 게 없고 증오할 게 없고 밉게 보는 게 없고 더욱 이쁘게 볼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다면 오늘서부터 편안하실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돈도 더 편안하게 연방 들어오게 될 거고 말입니다.

## 불행감에 만행 떠나고 싶어

**문** 저는 나름대로 무척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자의 업식이 두터워서 그런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몹시 불행한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만행을 떠나야 만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으니 더 극심한 불행감에 숨이 막힙니다.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마음을 맞닥뜨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나중에는 신경성 위장장애등을 동반하게 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처처에 법당 아님이 없고 도량 아님이 없는 줄을 알지만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거두고 남들이 뭐라 하든 제가 하고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제 근본자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가르침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답** 예전에 내가 산으로 다니던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색으로 다녔어도 한 번도 내가 먹으려고 애를 써 본 예가 없고, 입지 못해서 애를 써 본 예도 없고, 또 그것을 원한 바도 없고, 더 살아보겠다고 원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유유한 겁니다. 그런데도 내게 먹을 건 그대로 있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게 된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일하게 되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고, 모든 것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고맙다고 할 것도 없고 그것을 얻지 못해 애를 쓸 것도 없겠죠. 다만 나를 끌고 다니는 나한테 고마울 뿐입니다.

누가 음식을 준다 해도 내 것도 아니고 상대방 것도 아니니 참 감사하게, 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게 그 음식이 맛있는 거죠. "스님! 이 음식 맛이 참 좋습니다."하면 "맛이 좋던가?" 그러고선 그냥 껄껄 웃고,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슨 맛이 나던가? 그러면, 예전에는 실과가 겨울에 많지 않으니 이른 때에 토마토라든가 이런 걸 하나 먹게 되면 "아이구, 이거 무슨 맛이 납니까?" 또는 "무슨 맛이 나던가?"이런다면 "토마토 맛이지 무슨 맛입니까?"이러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맛이 나던가?"또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스님 맛이 나는데요."그러면 "또 거기서 무슨 맛이 나던가?" "물맛인데요."

> 안팎으로 맹종말고
> 모든 이치를 눈으로
> 보고듣고 총괄해
> 결정할때 법이 되고
> 자기 주장자 세워져

이렇게 서로가 웃는 그 뜻이, 스님네들끼리 이 세상 돌아가는 비유를 한 거지, 토마토를 가지고 야단을 한 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사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맛만 나던가요? 24시간 사는 것도 한 맛만 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한 가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도 아니고 담은 그릇도 아니고 묻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면 불(佛)도 아니요, 역시 마음도 아니라, 천지미분 전 만백화라고나 할까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겠소?

세상살이가 다 그러한 거죠. 그래서 돌고 도는 물일뿐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대로 그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 견성한 후도 경계에 걸리나요

**문** 늘 함께 계심에 감사 드립니다. 견성을 한 후에도 경계가 닥치면 마음이 일어나는지요. 예를 들어 경계에 닥쳐서 때때로 화가 나고 놀라고 걱정하고 이러한 것을 다시 놓아가야 하는 것 인지요. 그래서 경계에 여여해지는 것이 성불인지요.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이 근본임을 느꼈습니다. 모든 생각이 근본에서 나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 생각에 집착하여 근본을 놓쳐왔음을 느꼈습니다. 근본은 청정하지도 탁하지도 않음을 느꼈습니다.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놓고 있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답** 습을 떼지 못한다면 깨우쳤다 하더라도 다시 미(迷)해지는 그러한 연결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치기는 쉬워도 성불하기 어렵고, 성불하기는 쉬워도 열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세 단계 없는 세 단계를 꾸준히 나갈 수 있다면 생과 사가 그대로 열반과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작업이 나로 인해서 벌어진 거니까 나를 다스리면서,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다 헌 쇠 넣듯 모든 것은 거기서 이끌고 가고 일체 만법은 거기서 들고나는 거니까 거기서 하게끔 놔라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어도 수억 겁을 거쳐 나오면서 악업 선업에, 즉 말하자면 성냄과 착과 욕심이 그냥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거를 확실히 알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며 배우면서 지혜롭게 둘이 아님을 알아야 영계성이나 유전성 같은 것이 내 앞에 닥친다 해도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놓고 가되, 안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맹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나를 발견해서 볼 때에 나를 넓혀서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안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의 경계에 맹종하지 말고 누가 되지 않는 일은 듣고 누가 되는 일은 듣지 말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 또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맹종하고 또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안으로 기울어지고, 밖에서 끄달리고, 밖으로 떨어진다면 밖의 경계에 또 끄달리고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안이나 밖이나 맹종하지 말고 모든 이치를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해서 결정짓는 데에 양면이 다 총괄이 돼서 그대로 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만이 모든 경계나 망상 같은 것에 끄달리지 않고, 그대로 생각하면서도 걸림 없이 자기가 주장자를 올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 아닌 도리를 체득해서, 만약에 구렁이가 "나를 구원해 주시요."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모든 문을 활짝 여시고선 그거를 안아들인다면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자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구렁이가 돼 버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건져달라고 할 땐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이 건져달라고 할 땐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또 돼지가 살려달라고 할 땐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소가 살려달라고 하면 소에 속으로 들어갔다, 말의 속으로 들어갔다 또 하다 못해 풀 속으로도 들어갔다, 나무 속으로도 들어갔다, 목신도 되고, 구더기 속으로도 들어가서 구더기도 되니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구경각지(究竟覺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법(不二法)은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할 때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불을 밝히려고 스위치를 누를 때에 불을 켜야 옳겠습니까? 안 켜야 옳겠습니까? 그러고 불을 켭니까? 아니시죠?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벌써 가설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불만 켤 뿐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물이 떨어졌으면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걸레 갖다가 훔치는 것뿐입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아무 소리 없이 그저 냉장고 문 열고 먹거나 물을 마실 뿐이지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데 이유가 뭐가 붙느냐 이겁니다. '내가 먹어야 옳으냐, 안 먹어야 옳으냐.' 그러고 누구더러 물어보고 먹습니까? 그리고 또 물더러 물어봅니까? 내가 너를 마셔야 하느냐,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이러고 물어보고 먹습니까?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붙지 않는 데서, 나라는 걸 세우지 않는 데서, 바로 구경경지를 이루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삼 단계의 문제, 바로 삼 단계 아닌 삼 단계의 도리로, 삼 단계도 없고 일 단계도 없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이 자기 탄생을 한다면 모두 삼계를 통달하게 될 수 있으며 바로 통달했다는 이름도 없는 그런 통달이 온다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구경경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무르지 말고 더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1C 복지법인경영총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한 도서입니다.

법인 · 시설 · 단체 실무행정

21C 복지법인경영총람

법인의 분류

사회복지법인의 행정
1.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
2.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내용
3.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후 업무
1. 허가 후 주요업무
 1) 설립등기 사항보고
 2) 재산 이전 보고

시설운영에 관한 사례
1. 회계처리사항
2. 법인 · 시설운영에 관한 세입 ·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
3. 과목별 예산 부족시 일시 차입
4. 기부금 관리
5. 공사,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사항
6. 물품관리
7. 기본재산처분
8. 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
9. 직업보도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
10. 법인 ·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및 장부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소홀히 하기 쉬운 사항
12. 법인의 각종 사례
 1) 법인 설립허가 사례 4종류
 2) 임원 취임변경 사례 4종류
 3) 재산 처분(농지)사례 2종류
 4) 채무로 인한 기본재산 가압류 사례 2종류




정가 : ₩28,000 (5×7배판 495page)

■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 사단법인 정관준칙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의 분리
1. 기본재산 처분(증여) 허가
2. 분리로 인한 설립허가신청

장기차입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사회복지관련 법률 · 시행령 · 규칙
1. 사회복지사업법
2. 노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행처 복지연합신문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689
TEL. (02) 831-6459

구입문의 : 02-831-6459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65-21-0191-359 (예금주 - 김종래)
■ 구입방법 : 송금후 080-003-0888로 연락주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음
(주)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곰팡이 방지 및 제거제, 퇴색방지 발수제"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031)479-2940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학인모집(통신생 포함)
• 과 목 : 종수, 역학, 한의침술
• 자 격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각과정 : 3개월 졸업, 수료증 수여
• 강 사 : 스님(불교대 및 승가대 교수)
• 현재수업 진행 중, 학인에 따라 진행시간 조정 함
기숙하면서 수업가능, 출가자 지원과 각과목 개원시도 협조함
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69-6 원동사 승가대
☎ 061)334-9930
H·P : 016)639-9167

법왕사 행자(男)모집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서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고졸이상의 40세 미만 (단, 고졸이하는 검정고시 교육후 자격 부여됨)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 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함 ❀21세 전후 환영
문 의 : ☎ 053)766-3747, 9088
인터넷 : www.bubw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초보 찬불가 피아노 3개월 완성 ◇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앞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총장연주(법회 · 산사 음악회 · 결혼식)

국내최대 납골함 판매장
• 다양한 제품 도소매
(천연목/세라믹/금은세공/보존조/자수실/도석스톤/대리석)
• 저렴한 가격과 철저한 사후관리
(저품질 배제한 적정적 가격/업적한 품질관리)
• 각국의 최고명품 총집결
(한국/미국/일본/프랑스/이태리/중국/파키스탄/대만 법률 상신)
• 고인 성명 무료각인
납골당 납골묘 분양/묘지이장/소형광수묘지 전문상담
벽제 효자원
☎ 031)964-4445

탈 종 공 고
사 찰 : 도선사 김보명(정열)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김원종(종수)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혜 안 법하

탈 종 공 고
경남 하천군 쌍백면 하신리 미륵사는 관음종단의 종지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음으로 탈종을 공고합니다.
미륵사 주지 감 광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木목 酢초 수액원기시트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동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신추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통증감이 없어져 몸이 기분합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원조 농산(어성초·삼백초)
덕유산 혜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 삼백초 동우회원 모집「어성초 생즙 출시」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957-8342
011)479-0633

녹차 약 베개
쌍계사 주변에서 자란 야생 녹차와 한약재, 선조들의 지혜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 수험생을 위한 : 총명베개 45,000원
◆ 불면증 해소용 : 숙면베개 35,000원
◆ 아가에게 필요한 : 성장베개 25,000원
◆ 주재료 : 녹차, 메밀, 천연 염색천 (뽕잎,측백,옹담초,녹두,국화, 결명자,첨향,백복신,석창포,박하,천마,갈근,좁쌀,유황)
신 선 마 을 사람들
▶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13호) ☎ 055)884-5949 · 011)569-5844
▶ 은행 : · 농 협 885-02-144351 홍현오 · 우체국 611582-06-008547 홍현오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교 뉴월드 예식장 뒤
• 대지 : 58평 신축건물
• 시설 : 석가모니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 특징 : 주차시설완비, 직접내사요망
02)439-0898
011)795-5758

달마도를 무료로 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소승이 1000일 기도를 하면서 10가지 발원을 세우고 달마대사도를 하루에 10점씩 그려 청정한 마음으로 불보살전에 삼배 올리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이생에서 맺은 아름다운 인연이 다음생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달마도를 원하시는 분은 우표(170원) 한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소승이 기도중 정성껏 그린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내실곳 우 618-230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34의 1번지 수도암 정암 스님
전화 : 051)972-568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서울 소재
02)359-7766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41)953-8447

사람구함
뜻이 바르고 신심이 있는 30~50세의 여성 불자나 비구니스님으로서 외국 참선 수도원에서 간단한 소임을 맡아보며 禪 수행을 해가며 살고 싶은 분을 구함
011)898-101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50~60세
출가의 뜻이 있는 분 연락바람
041)566-6301
011)9803-6301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2)992-7064
993-30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연락 주세요
▷ 경북 구미
054)452-0845
054)458-6013
011)539-0845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각법과 우리달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걱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도심 속 아늑한 산사 기도정진 하실 비구 · 비구니, 부전스님 출가외 뜻이 있으신 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2)435-0478

배우자 구함
• 男 공무원 대학원 졸 30대 불교 여성과 교제를 원합니다.
02)584-0342
(21:000|후)
011)9080-7640

삼명 수려한 좋은 도량 입니다
참선기도 수양공부 하실 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 강 사
055)932-5706

비구니스님구함
서울시내 도심포교원으로 스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스님을 도와서 포교원에서 정진하실 비구니 스님을 구합니다
02)885-155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포교당 운영하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1)953-1420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스님 환영
032)435-0478

조그만 암자에서 기도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561-664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경북 경주 백운암
054)748-353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55~65세
011)9589-821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소재
• 부 지 : 7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20평
※ 뒤는 산이며, 지하철역 5분거리, 역사 100년된 사찰임
• 전 세 : 1억 5천
• 위 치 : 충남 홍성 소재
• 부 지 : 5,300평
• 법 당 : 30평(반목재)
• 요 사 : 50평
※ 신 정심에 있으며, 서해바다 보임
※ 기도정진도량으로 이주 좋음
• 양도가 : 1억 8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암자안내
• 위치 : 김천시에서 거창가는 쪽
• 부지 : 500평 • 부처님 봉안
• 건물 2동(법당 1, 요사채)
• 가액 : 6천만원
054)434-3392
011)9505-0101

포교당(급) 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시내중심지)
• 건물 : 40평 2층 방 2개 법당 현재 운영 중
• 가액 : 보증금 + 시설비 포함 3500만원
016)501-2725

지리산 토굴터
• 경남 함양 마천
• 부지 : 1291평, 대지 : 100평
• 특징 : 600고지, 천왕봉안대
• 가액 : 3,000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찰 및 정자 터 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부지 : 약 1400평(준농림) 대지 87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 특징 : 영천시청에서 차로 3~5분 거리
· 전면 : 1급수 맑은물이 흐르는 큰강
· 뒷면 : 산세 수려 평풍을 두른 듯한 바위 절벽 정자 및 사찰 기도 도량 500년 물려 받은 땅임
019)549-0667/016)9393-174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051)245-4012
011)617-4013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군 산내면 감로암
• 평수 : 160평
• 권리금 : 2천오백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 바람
054)751-8965
061)277-1342

토굴 안내
• 대지 : 189평
• 법당 : 22평 요사 : 35평
• 수목다수, 전원주택 사용가능
• 이천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3천(절충불가)
031)634-2136
018)238-1760
※ 특이사항 : 묵언이 좋은것 아닙니까

선방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시우리 머치 신축한지 3개월 됐음
※ 덕소에 있는 머치고개 높은산 정상에 있는 한방 찻집이자 선방입니다. 주위의 최고의 자연 숲과 1급수 물
• 대지 160평 반지하 방 3개 2층 방3개 • 가액 : 1억 9천만원
011)774-2083

개인선방 안내
• 풍광 : 앞은 호수 뒤는 산이 어우러진 비산비야의 명당 남향집
• 용도 : 선방, 전원주택, 서예실
• 위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예산읍에서 15분 거리)
• 대지(76평) + 전(204평) = 280평
• 특징 : 불간벽돌집 22평, 200평잔디정원, 현대식 돌담 · 기와담장, 책장(500권 이상), 붙박이가구일체 커텐, 버티칼포함.
• 가액 : 8950만원(급매물)
041)333-3394 / 017)470-0107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건평 70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3억 5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안내
• 위치 : 김천에서 15분 거리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 유명 약수터 근접, 도로 인접
• 대지 : 1700평
• 건평 : 요사채 포함 70평
• 가액 : 2억 3천 (주지 직접)
054)432-2840/054)431-4898
017)513-4898

사찰 · 정자터 부지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다산면
• 부지 : 340평(대지)
• 가액 : 3,300만원
• 특징 : 저수지를 앞에두고 평풍을 두른듯 산세가 수려함 (차량진입 가능)
011)503-2438

암자,포교당,철학원등 다용도
• 위치 : 이천시 중리동 이천극장 앞 2층
• 평수 : 25평, 법당1, 방3, 거실및주방
• 특징 : 시설물, 신조성, 몸만들어 오면 됨
• 가액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無
• 시설비 : 700만원
031)637-7820
016)786-5658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경주 감포 10분거리)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 인법당포함, 건물 2동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1)495-7754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버스에서 30분거리
• 대지 : 158평
• 건평 : 60평
• 지하수있고, 주차장 78평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9539-1420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 평 : 59평
• 2층 법당 : 24평
• 1층 요사채 : 35평
• 가액 : 보증금 3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동내를 끼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함.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철형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지붕 개·보수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각 사찰, 암자, 토굴, 요사채 비새고 허물어 진 곳 지붕개량 및 보수해 드립니다.
054)833-0677
011)9307-0609
지원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13번지
• 관음전 1개, 방 4개, 부엌 1개, 건물 등기 있음, 45평
• 가액 : 8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019)319-5954

지리산 사찰부지
• 위치 : 육조 혜능 스님의 정상이 모셔져 있고 입적이 스님께서 예언한 해등제엽의 명당형계사를 마주 하고 있는 화계장터 심리 빗꽃길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시배지
• 현재 100% 녹차 밭 (1954평)
• 지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옹강리 330, 606-2, 607
• 도로접 즉시 건축 가능
• 가격 : 평당 10만원, 주인직접
011)875-5500

포교당·철학관 안내
• 위치 : 역곡역 (역에서 2~3분 거리) 남부역
• 평수 : 약 20여평 (법당,삼존불,탱화,방,주방, 다용도) 동부시장 앞 도로변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천만원
032)346-5527
018)237-4244

사찰부지 및 가족묘지(터) 안내
• 위치 : 경남 울주군 상북면 언양에서 석남사 사이
• 산 : 3150평
• 가액 : 6000만원
011)591-8401

임법당 안내
• 위치 : 의정부 도봉산 산하
• 건물 : 24평형, 2층, 삼존불
• 특징 : 주택가, 교통편리 (화룔역 옆)
• 가액 : 5천 3백만원
016)353-8025
031)876-96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 1동 지하철역근접, 교통편리
• 평수 : 대지 50평, 건평 150평, 공터 25평
• 구조 : 방3개,거실 · 주방 大, 임법당,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억 5000만원
051)331-9937

토굴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백호산
• 대지 : 140평
• 건물 : 2동 (옛날흙집)
• 가액 : 수리시 2,000만원 입주시 : 1,600만원
※ 버스 정류장에서 50m거리
011)655-388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평수 : 3층건물 중 3층 60평
• 요사채,큰방 주방 외에 방3개,
• 내부시설 : 석가모니불, 관음,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피아노, 대형에어콘, 시설 A급
• 보증금 : 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8)532-7249

# 케이블카 설치싸고 명산 '몸살'

## 한라산·지리산·미륵산 이어 설악산도 분쟁

## 지자체 "세수증대" 환경단체 "생태파괴" 맞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민족의 명산인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유명산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세수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4곳과 신불산, 미륵산, 천황산 등 도립, 군립공원을 합해 모두 10여곳에 이른다.

최근 용화사의 경내지 수용문제와 관련돼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영 병꽃나무 서식지인 용화성지 미륵산의 경우 통영시가 지난 8월 16일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9월 초순 입찰 업체의 설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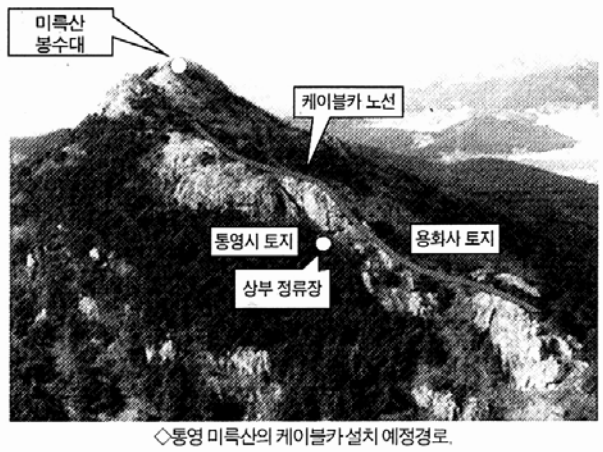
이에 맞서 시민환경단체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케이블카 하차장 주변에 소유토지를 가진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7일 오후1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에 출석, 미륵산 케이블카와 관련한 현황보고를 통해 케이블카 반대입장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불교 남방전래설을 간직한 한라산의 경우 제주도가 환경부에 케이블카 허가신청을 낸 지난 2월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를 비롯한 도내 22개 종교·환경·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 추진절차의 공정성 등을 따지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용역 및 도민여론조사에 들어간 혈세의 환수투쟁까지 벌이겠다고 벼르면서, 환경부의 최종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설악산 역시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대청봉을 잇는 4.5㎞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중이어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낙후된 오색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망대를 갖춘 환경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숲을 파헤치고 나무들을 베어내야 하는 등 설악산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도 산동면 온천랜드-성삼재-노고단을 잇는 지리산 4.8㎞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올 10월말 완성을 목표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해 놓았다. 이에 대해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지리산의 케이블카 설치와 골프장, 호텔 유치 등 모든 개발을 중지하라"며 지리산을 특별생태보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통영 미륵산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경로.

이밖에 경남도와 밀양시가 천연기념물 제 224호인 얼음골을 경유해 천황산 정상을 연결하는 3~5㎞의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고 있고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어우러진 남해 금산과 울산 신불산, 부산의 달음산 등도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전남 영암군은 월출산에 94억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건설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98년 4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신청해 환경단체와 오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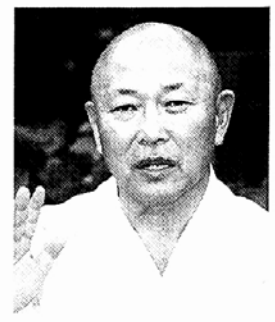
이에 대해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 생태계 및 불교문화 보전을 주요 사업으로 펼칠 예정인 불교환경연대(준)는 9월 6일 창립과 함께 케이블카 설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들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 "연꽃축제 통해 불법 널리 전파"

무안사암련 경훈스님



"무안(務安)이라는 지명 자체가 불교에서 나온 것이고 승달산(僧達山), 발산동(鉢散洞) 등 무안에는 불교에서 나온 지명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안이 원래 불교와 가까웠던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무안연꽃축제가 무안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꽃을 보러 오는데 불교를 상징하는 깨달음의 꽃 연꽃을 통해 불교를 포교하는 방안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무안사암연합회 회장 경훈(慶壎) 스님(약사사 주지)은 무안연꽃축제를 전국민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암련 스님들이 마음을 합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8월 25~28일 열린 이번 축제에는 무려 165만여명이 다녀 갔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데에는 곱게 핀 연꽃 외에도 무안사암련 스님들이 전통사찰음식 시연회, 탁본 현장 체험, 연화 및 달마도 전시, 다도, 제등행진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행사를 기획해 호평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 국제학술세미나 계획

### 금강삼매경 읽기 생활화

무안은 예로부터 중국과의 교역지역으로 최근 해양문화시대를 여는 길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청 이전과 공항 건립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무안의 발전 청사진에 맞춰 경훈 스님은 지역 불자들의 교육갈증을 채워주고 다양한 계층 포교를 위해, 스님이 최근 번역 출간한 〈금강삼매경〉을 매개로 '금강삼매경 독송회' 조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강삼매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불교사상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맑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금강삼매경 독송회 지부를 두어 널리 전법하고자 합니다."

무안사암련은 무안군내 28개 사찰이 모여 7년전에 창립됐다. 매달 1차례씩 모여 친목도 다지고 포교방안도 논의하며 교도소와 군부대 등에도 정기 위문을 간다. 경훈 스님은, 다른 군과 달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골고루 있는 무안군의 특색에 따라 포교대상이 무궁무진하다는데 스님들이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불교를 쉽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늘 의견을 나눈다고 귀띔한다.

경훈 스님은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환희심을 느끼도록 힘을 보태고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 = 이경숙 기자



◇8월28일 열린 영주 장애인복지관 개관식.

# 영주 장애인복지관 개관

경북지역 불교계 첫 장애인 복지관인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현, 관련 인터뷰 4면)이 8월 28일 개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5월 위탁 받은 이 복지관은 영주시가 1999년 12월 착공,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년 만에 초현대식 건물로 건립돼 문을 연 것.

부지 326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05평 규모의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 보호작업장, 정보실, 방과 후 교실, 컴퓨터 교육실, 상담실, 직업 적응 훈련실, 조기교육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등이 들어섰다.

영주 봉화 사암연합회가 운영을 맡은 복지관은 영주시에 등록된 3천 3백여 장애인 외에도 안동, 봉화, 장수 등 인근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판정,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사업, 재가복지,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고운사 회주 근일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 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안동사암연합회장 일우스님, 영주봉화사암연합회장 정진스님, 박시균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오종욱 기자

# 천성산 늪지 보전지구 추진

## 식생조사·시민토론회도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개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지율스님)는 심각한 생태계 파괴에 직면했던 천성산이 양산시와의 협의로 임도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화엄늪을 자연생태보호구역 혹은 습지보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에 돌입했다.

양산시와 보존대책위는 비로봉을 중심으로 한 2.2km 구간에 대한 복구를 협의하면서 구간의 식생조사결과와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보존대책위는 복구책 마련과 함께 천성산을 자연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일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복원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양산=천미희 기자

# "소외된 이에 재활꿈 심어요"

## 부산 늘푸른 교육원 실직자녀 무료교육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인권, 환경, 문화, 교통, 복지, 교육 등의 개선을 추구하는 늘푸른세상(회장 황국근)이 3일 부설 평생교육원 늘푸른문화교육원(원장 이미경)을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산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원 허가를 받은 늘푸른문화교육원은 실직자 자녀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늘푸른문화교육원은 3일부터 실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도예교실을 개강하는 것을 비롯 영어, 미술, 수학 교실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초·중·고급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도예교실은 북구 교육청 관내의 초·중·고교에서 실직가정 자녀들을 추천받아 반죽, 흙가래, 투각, 분청, 상감 등의 기법과 전기물레를 이용한 성형, 굽깎기, 초벌 등의 전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 범어사 20일 문중총회

## 차기주지 선출 논의

범어사 종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8월28일 휴휴정사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차기 주지 선출과 관련 오는 20일 문중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종무협의회 의장 흥교스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중원스님을 비롯 2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20일 문중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차기 주지 선출과 관련된 후보자 지명, 산중총회일 공고 등 모든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 무량종 연수교육 실시

대한불교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13~15일 2박3일동안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종단 산하 각 사암 스님들과 포교사, 창건주 등을 대상으로 2001년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스님들을 대상으로 법계고시가 실시될 예정이다. (055)883-7771

이경숙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박희준 식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3일이면 레이키요법가(氣치료능력자)가 될수있게 해드립니다.
레이키는 사람과 빛이 담겨있는 우주의 생명 기운(에너지)입니다. 이것을 바로 끌어다가 질병도 치료하고 생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을 3일만에 하는 것이 박희준 식 레이키 입니다.
단 3일간의 교육으로 이런 능력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침구사 포함), 호스피스 봉사자, 간병봉사자
• 만성병 환자, 성인병 환자, 그 가족
• 임신, 태교, 순산을 원하는 부녀자나 그 남편
• 마음의 정화와 정신의 각성을 원하는 분
• 氣능력자로서 활동하려는 분등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 들면 전반적으로 기운과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레이키 요법은 이같은 기운과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 병이 낫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레이키 요법은 세계에서 제일 효과가 높은 리랙세이션(잠을 잘 자게 하는)법입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가족(유학을 가 있는 자녀)에게도 여기서 먼데 치료(원격치료)를 해주고 기운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박희준씨는 국제레이키 마스터 명단에 올라있는 한국유일의 레이키 마스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의 레이키계에서나 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올바른 레이키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됩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핸드폰 019)392-2557, 018)850-1680

와선 [어린아이 잠자듯 누워하는 참선④]
피부,근,관절,신경이 완전히 이완되고 진신에 기운이 꽉찬 상태로 단전호흡,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며 신비롭고 환희로우며 또렷또렷한 상태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황홀경의 와선삼매를 단 시일에 체험하시게 됩니다.
※ 점심식사후 30분정도 수행으로 오후 일과를 맑은 정신으로 절대 피로하지 않게 됩니다. 절,염불,독경,좌선,행선,사경,선체조 등의 수행후 와선 수행이 잘되며 불교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3박 4일 기도수행
◉ 호흡에 맞춰 잘하는법 (호흡호 호흡법)
· 5명이상 예약하시면 날짜 시간 관계없이 절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강경 독경, 석가모니불 염불, 부처님 감사 수행
· 아침예불(5시~7시) 저녁예불(8시~10시)에 동참하시면 자세법, 호흡법, 운룰법, 자동염불법에 의한 신명나고 리드미컬하고 박력있고 우렁차며 가슴이 열리고 목이트이고 단전이 열리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수행임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 일 시 : 수시로 언제나, 예면도구
3333배 특별 철야 용맹정진
▶ 일 시 : 제 8차 9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 일요일 아침 7시
▶ 준비물 : 두꺼운 기도수건 2매, 두꺼운 면양말, 면T 2매, 예면도구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 하차 전화 요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한국전통불교 연구원 학당 개설
제1기 연구생 모집
◻ 강의 시간표

| 요일 | 교 재 | 강 사 | 강 사 약 력 |
|---|---|---|---|
| 월 | 조당집 | 일지법사 | 제1회 해인학술상(88)수상 (주)佛地社출판부 부장, 사단법인 법사원 불교대학 교수 도서출판 민족사 주간으로 일함 |
| 수 | 맹자 | 이상하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졸업, 상임연구원 역임,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수료, 현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위원 |
| 목 | 붇교와노자 | 혜거스님 | 금강선원 주지 |
| 금 | 논어 | 공근식 | 민족문화추진회 상임연구원역임, 경북대, 제명대 강사 역임, 현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실 전문위원 |

▶ 시 간 : 오후 7시 30분 ~ 오후 9시 30분
▶ 장 소 : 금강선원 법당
▶ 수강료 : 강좌당 4개월 8만원
▶ 입학식 : 2001년 9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 문 의 : 02)445-8484, 445-4873
금강선원 강의
◻ 영가집(永嘉集) 강의
▶ 강 의 : 9월 4일 개강. 4개월간
▶ 시 간 : 매주 화요일 13:30-15:30
◻ 14기 불교교리 강의
▶ 강 의 : 9월 5일 개강. 3개월간
▶ 시 간 : 매주 수요일 10:30-15:30
◻ 금요법회
▶ 교 재 : 법화경
▶ 강 의 : 9월 7일 개강
▶ 시 간 : 매주 금요일. 10:30-12:0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직진 200m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항림 빌딩 2층 204호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 대표전화 : 02) 679-5902

*국립공원 제도개선시민위 '100대 개혁의제' 설문*

# "집단시설지구 공원 밖 이전"
# "공원내 사유지 국가서 매입"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 제도는 환경관련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가공원청 및 공원별자문위원회 신설이 필요하고 집단시설지구는 공원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사찰소유지(8.3%) 등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야 한다."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는 8월 22일 북한산 원불교청소년수련원에서 하반기 수련회를 갖고 지난 7월 한달간 실시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및 지방사무소, 환경부 및 지자체, 국회의원, 조계종, 환경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관리법, 산림법 등이 복잡하게 뒤얽힌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관계법 정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특히 환경단체들의 사후약방문식의 일회성 환경운동을 근원적으로 개선, 입법단계부터 환경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국립공원이 자연공원법,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각종 개발 특별법 등 상이한 목적의 여러 법들에 의해 일원적인 관리가 제약받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으로 관리하거나 국가공원특별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연공원법에 대한 대체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명승, 사적, 기념물 등은 보전관리가 필요함으로서 국가공원법, 국립공원법을 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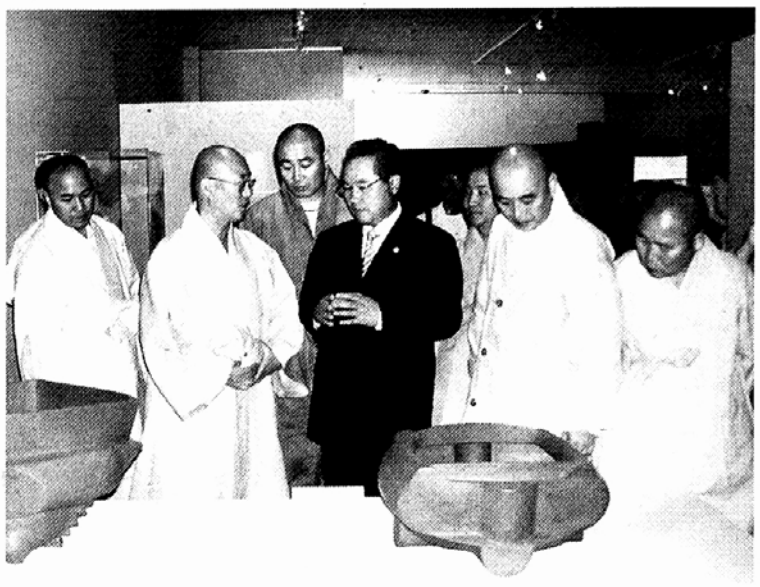
이와 관련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립공원 관련 법제 분석'이란 발제문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제도를 환경관련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 내지 문화재를 보호·보전하는 쪽으로 특화되어야 하고 자연유산에 해당되는 천연기념물 및 보호구역 자체는 유지하되 근거법률의 통폐합 및 관할 행정청 이관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립공원 관리체계와 관련, 전문성을 담보하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보존관리를 가능케 하는 '국가공원청' 설립이 필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주민, 사찰, 시민단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출 수 있는 '공원별 자문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폐쇄, 공원밖으로의 이전이 필요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하촌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제시했다.

사찰소유지(8.3%), 기타 사유지(34.6%) 등 공원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또는 기금조성을 통해 매입해야하고, 사찰과 국립공원과의 효율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사찰-불교시민단체-공원관리청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립공원입장료와 관련해서는 국립공원 보조기금으로 변경 인상하는 방안과 공원별 차등징수, 폐지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대해서도 분리징수, 관람료 폐지, 공원입장료 폐지, 합동징수 등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도자기 엑스포' 간 스님들

조계종 부 국장스님 20여명이 세계도자기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8월28일 이천 주행사장을 방문하여 임창열 경기도지사(가운데)와 함께 세계 각국의 도자기를 감상하고 있다.

# "회암사 박물관 짓겠다"

## 林경기지사, 조계종 부국장스님들과 면담

조계종 부국장스님 20여명이 8월 28일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공식초청으로 이천 주행사장을 방문했다. 스님들은 임창렬 경기도지사의 안내에 따라 세계도자기 전시관과 가마터를 견학하고, 다도시음장에서 차를 마시며 세계도자기엑스포 현황을 소개받았다.

이어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조계종 부국장스님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경기도는 전통불교 육성을 위해 회암사지와 고달사지등의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회암사지의 경우 도로개설과 레미콘공장 이전 등 주변 환경정화를 할 계획이며, 현지에 회암사 박물관을 지어 발굴작업 결과 나오는 유물은 모두 전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임지사는 "용주사 앞에 효행촌을 건립하고, 수원월드컵 경기장옆에 위치한 봉영사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해 한국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0일 문을 연 세계도자기엑스포는 10월 28일까지 80일간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린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는 28일 현재까지 200여만명이 다녀갔으며, 외국인은 6만명이 다녀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대구 관음사 납골당 '마찰'

## 항의방문등 주민반대

통도사 대구포교당 관음사(주지 우학)가 8월 24일 대구 남구청에 신청한 납골당 설치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납골당이 들어설 관음사 인근 대명5동과 봉덕3동 주민들이 교통 혼잡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내세우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인 남구청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납골당 설치를 허가하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허가 여부를 놓고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등 허가와 관련,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음사는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납골당 설치는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 울진 불영사 수행환경 훼손 '위기'

## 왕피천에 대형댐 계획

안거기간이 아닌 산철에도 1백여 비구니 스님들이 정진하는 울진 불영사가 수행환경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경북 울진군 서면 불영사 인근을 흐르는 왕피천을 막아 저수용량 2억톤 규모의 속사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왕피천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흔히 발견되는 민물어종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의 원형인 금강송(춘양목)의 최대 군락지로서, 인근 소광리에는 1610ha의 금강송 유전자 보호림이 있어 자연 생태계의 파괴도 우려된다.

불교환경연대(준) 정성운 사무처장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함께 불영사 천축선원의 수행환경과 문화재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춘천불교방송 부지 매입 등 개국준비 '한창'

조계종 3교구 신흥사가 추진중인 춘천불교방송국 개국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흥사에 따르면 내달 초 춘천시 동면 느랏재 부근에 2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총 40여억원을 들여 건물신축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초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흥사는 건물이 완공되는 데로 방송장비 구입과 직원 채용 등을 거쳐 내년 초파일을 전후해 개국할 계획이다.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은 "춘천불교방송의 연주소 건물이 어느정도 완공되면 올해 말 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불교방송국은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개국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사형제 폐지하라 7대교단 한목소리

## 국회의원 138명도 서명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교단 대표자로 구성된 사형폐지범종교연합과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8월 27일 롯데호텔 36층 샤롯테 룸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일·대만 국제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 일본, 대만의 활동가 및 단체대표들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2001 사형폐지 아시아 포럼'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아시아 포럼을 위한 조직위원회 준비, 2003년 초 아시아지역에서의 제2회 사형제 폐지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공동노력 등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의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136명을 넘어선 1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경 기자

# "유선방송 불법선교 단속"

## 조계종, 방송위에 촉구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양산)는 8월 27일 방송위원회에 중계유선방송의 불법 기독교채널 송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방송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종교편향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불법적으로 기독교 선교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중계유선 방송은 서울지역의 중계유선방송 11곳과 기존에 접수된 부산지역 중계유선방송 2곳 등 13곳으로 파악된다"며 "방송위원회에 이들 13곳의 불법 방송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 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공문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후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북한산 관통도로 즉각 중단"

## 종단협 공청회개최 촉구

## 이호웅의원 반대 표명

## 시민모임 "환경평가 잘못"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그속도로 반대운동이 불교계와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8월31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자연환경 및 종교문화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북한산 고속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며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불교계,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종단협은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이 환경, 교통, 공익성 측면에서 훨씬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8월 30일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도봉산)터널구간 생태분야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반려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봉호 전문위원은 사패산 터널구간의 식생조사 표본조사구 수가 적어 대상지의 자연생태계 평가를 위한 대표성이 없고, 평가서상의 녹지자연도 판정 근거자료가 없어 등급판정에 문제가 있으며, 훼손지역 이식수목에 대한 산정 및 터널 입·출구 지역 생태계 복원의 근거자료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종단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새천년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국회보〉 8월호에 게재한 '북한산 국립공원을 생각한다' 제하의 의원시평을 통해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한 것은 개발로 인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최소한 이것들만이라도 자연상태로 보전하자는 뜻이 가장 크다"며 "북한산국립공원내 사패산 터널공사가 허용될 경우 제2, 제3의 국립공원 훼손계획이 생길 것"이라며 북한산 관통도로공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마음고운 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 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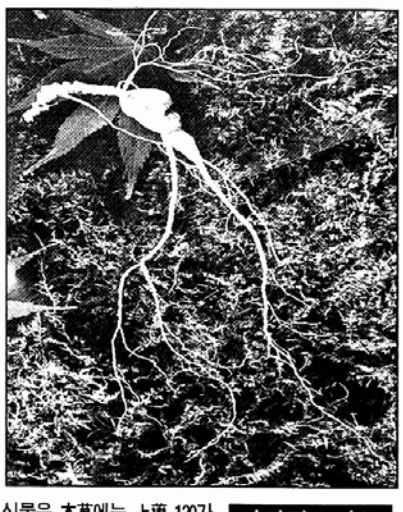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 등성마루 쑥부쟁이 때 이른 가을인사

## 백두대간 속으로 〈41〉 설악산 ㊦



◇울산바위에서 바라본 백두대간. 화면 오른쪽의 봉우리가 황철봉이다.

딸아이가 네 살인가 다섯 살쯤 되었을 때, 함께 밤길을 걷다가 내게 물었었다.
"아빠,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을 걸."
"왜요?"
"별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있거든."
백두대간의 산들도 그랬다. 높은 산 낮은 산이 어깨를 겯고, 이 땅의 모든 산들을 보듬어 안고 있었다. 높은 산은 저홀로 우뚝하지 않았고, 낮은 산이라 하여 주눅들어 하지도 않았다. 골짝마다 물을 흘려 강물을 살찌우고 있었고, 그 강물은 들을 적시며 사람을 거두고 있었다.
이제 지리산에서부터 백두산을 향해 오르는 남녘 백두대간의 마지막 고개인 진부령을 향한다. 몸을 낮춘 낮은 산이 높은 산을 오르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산등성이가 허리를 낮춰 고개를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길이다.
높고 낮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등산과 하산 또한 맞선말이 아님을, 설악에서 진부령으로 내려서는 내리막길에서 다시금 깨닫는다.

이번 산행의 기점은 마등령(1230m). 외설악의 비선대나 천불동 계곡에서 내설악의 백담계곡을 넘나드는 길목인지라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다람쥐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에 길들여진 탓이리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의 한 부분이다.
설악산의 때묻지 않은 옛 모습은 어땠을까. 마등령에서 서남쪽(내설악)으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오세암의 옛 풍정에 잠기어 본다.

오세암(五歲庵)

구름과 물 있으니 이웃할 만하고
보리(菩提)도 잊었거니 하물며 인(仁)일 것가.
저자 멀매 송차(松茶)로 약을 대신하고
산이 깊어 고기와 새 어쩌다가 사람을 구경해…
다무 일도 없음이 참다운 고요 아니요
첫 뜻을 어기지 않는 것 진정한 새로움이거니.
비 와도 그떡없는 파초와 같다면
난들 티끌 속 달려가기 꺼릴 것이 있겠는가.

설악산의 옛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머리 속에 펼쳐놓는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시다. (본디는 한시(漢詩)인데 지면 관계상 원문을 생략했다. 옮긴 우리말은 이원섭 시인의 것을 그대로 썼다.)
동학혁명의 좌절을 경험한 뒤 오세암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된 다음에도 대폭같은 기개로 일제에 맞선 만해 스님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긴 시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청정한 마음의 본바탕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곳이 곧 정토임을 일깨우는 시로 읽어도 크게 허물될 일은 아닐 성싶다.

### 오세암엔 설잠 김시습 혼 서려
### 향로봉 보며 금강산 그려본다

다섯 살 난 아이가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으로 부처를 이루었다는 전설을 간작한 오세암에는 또 한 명의 고결한 인간의 혼이 서려 있다. 바로 설잠 김시습(1435~1493)이다. 오세신동으로 불린 그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속세를 등지고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마등령에서 진부령까지는 도상 거리 23km로 여유로운 산행을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짚굳고도 까다로운 너덜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거리로만 소요 시간을 예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마등령에서 허리를 곧추 세우는 대간은 너덜(1326.7봉 아래)을 지나면서부터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저항령(1100m)을 향한다. 특히 저항령으로 내려서는 너덜은 반 시간 이상 시간을 잡아먹는다.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으로 조각이 난 화강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너덜은 '세월의 모래시계'다. 이런 거대한 시간의 흐름에 비춰보면 인간의 삶이란 그야말로 하루살이의 삶에 불과하다.
황철봉(1381m)을 지나면서 또 너덜이다. 산기슭을 흘러내리는 거대한 바위물결. 이왕이면 즐기는 쪽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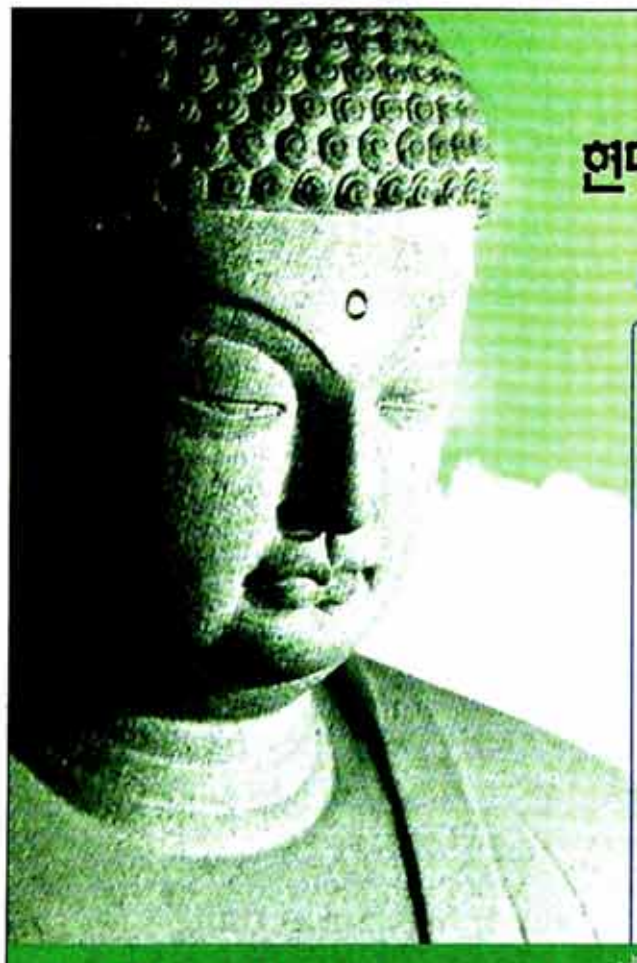
◇미시령에서 상봉을 오르는 초입. 늦은여름 들꽃과 이른 가을 들꽃이 한창이다.



◇한국 특산식물인 금강초롱.

자세로 바위의 파고에 몸을 실어본다. 이곳을 지나면 미시령(彌矢嶺, 767m)이 지척이다. 가쁜 숨을 토해내는 자동차 소리가 반갑게 들린다. 심각한 수준의 문명 중독증이 아닐 수 없다.
미시령(767m). 강원도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을 이어주는 고갯마루로, 옛부터 백두대간의 동서를 넘나드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 백두대간은 상봉(1239m)과 신선봉(1381m)을 일으켜 세운다.
미시령을 지난 백두대간의 등성마루는 지금, 늦은 여름과 이른 가을이 자리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꽃며느리밥풀과 같은 여름 들꽃이 지천인데, 드문드문 쑥부쟁이와 구절초가 수줍은 웃음을 피워올리고 있다.
미시령에서 10여 분쯤 지나면 통신 중계탑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잠시 몸을 돌려 세워야 한다. 남쪽으로는 황철봉이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고, 동으로는 울산바위가 빼어난 눈맛을 선사한다.
다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상봉 아래 샘터. 물봉선과 동자꽃에 눈인사 건낸 다음, 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상봉이 삼갑게 다가선다. 상봉 암릉지대를 비껴돌아 화암재로 살짝 내려앉았다 키를 올리면 신선봉. 두어 시간 더 진행하면 대간령(샛령, 630m).
이곳에서부터 마산(1051.9m)을 향하는 백두대간은 서북에서 남, 다시 북으로 심하게 휘어돈다.
마산 정상에 서서 남녘 백두대간 종주의 마지막을 실감한다. 흘리 폭 일프스 스키장이 눈 아래로 펼쳐지고, 진부령(529m) 너머 향로봉이 시선을 허공으로 띄워올린다. 금강산이 지척이건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분단의 비극은 한달음이면 될 물리적 거리를 아득히 벌려 놓고 있다.
알프스 스키장에서 진부령으로 향하는 포장 길을 버리고 희미한 대간 능선을 더듬어 진부령에 선다. 향로봉 위에 걸린, 향불 연기를 대신한 구름에, 반쪽짜리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는 확찹한 심사를 가탁한다.
(사실상의 남녘 백두대간 종주는 끝났지만, 다음 회에 향로봉에 오르는 것으로 연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스님 좋고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자는 부다피아 카드로 산다!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개시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재물보시! 부다피아 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①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②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③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신속1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신속2 주유할인서비스
신속3 무료보험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통소니안심보험
신속4 롯데월드 무료입장서비스
신속5 스피드카드론

카드사업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대표 : 02)6078-1115~6
· 부산지사 051)463-5331~2 · 영주지국 054)674-1199 · 목포지국 061)244-4520 · 김룡지사 033)643-5599 · 대구지사 053)768-8008 · 포항지국 054)284-4575
· 충청지사 042)527-0559 · 광주지사 062)375-9986 · 밀양지국 055)353-1196 · 전북지사 063)255-2274 · 울산지사 055)387-1500